



11

1986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6. 11호

(루게 469)



◆◆◆◆◆◆◆◆◆◆

차 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3
축하문	4
그날의 등잔앞에서	6
사랑의 보석길	6
조선	7
영웅의 고지에 사과꽃 피었네	7
향도의 해발 넘치는 《지하평양》	8
경험과 진리	10
바늘	11
하늘과 땅	12
중편소설 《세대》와 정서적향기	20
우리가 만난 사람들	24
포구를 떠날 때	27
어로공의 마음	27
취재길에서 만난 녀인	28
말해다오, 창가의 불빛이여	38
내 고향	38

읍으로 가는 길	39
초소의 들국화	40
해당화 너처럼	40
평범한 걸음	41
빛나는 그 시절	43
나의 초원	46
첫 밭파 (외 1 편)	47
지하의 100 리 물길	47
수림속의 서정	48
대동강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 조국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	49
기발	53
생활에 대한 개성적탐구와 특색있는 묘사	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 령

문예출판사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당의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당과 수령께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도서들과 신문, 잡지들을 많이 편집발행함으로써 주체적문학예술 분야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업적을 빛내이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불러 일으키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크게 공헌한 문예출판사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1986년 9월 12일

평 양

축하문

문예출판사 기자, 편집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문예출판사창립 40돐에 즈음하여 당의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과 문예로선을 구현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출판사의 전체 기자, 편집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문예출판물이 노는 중요한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전통에 기초하여 1946년 9월 2일 새조선의 첫 문학예술출판기관으로서 문화전선사를 창립하시였으며 문학예술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그것을 문예출판사로 강화발전시켜주시였다.

문예출판사는 지난 40년동안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따라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왔으며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여왔다.

문예출판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고매한 품모, 우리 당의 위대성과 업적을 형상한 문예출판물발간사업을 훌륭히 보장함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당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 기여하였다.

문예출판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옮긴 문학예술작품들을 비롯하여 사상예술적

으로 우수한 문예작품들을 수많은 편집출판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다그쳐나가는데 이바지하였다.

문예출판사는 확고한 당적, 혁명적원칙에 서서 온갖 반당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조류들을 반대하고 우리 당의 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수호하여왔으며 편집출판활동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문학예술건설에서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다.

당의 령도따라 혁명적인 문예출판활동을 벌려오는 과정에 문예출판사는 당의 문예로선을 관철하며 인민들을 교양하는데서 힘있는 무기로 되는 혁명적문예출판물을 편집발간하는 종합적인 출판기지로 강화발전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문예출판사 전체 기자, 편집원들이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마다출판활동을 활발히 벌려 혁명적인 문예출판물들을 많이 편집출판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수행에 크게 이바지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출판보도물과 문학예술은 대중을 교양하고 조

직동원하는 위력한 수단입니다.》

오늘 문예출판사앞에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문예출판물발간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르고있다.

문예출판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고매한 품모를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편집출판하여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혁명과 건설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교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문예출판사는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위대성과 주체적문학예술건설에서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담은 문학예술작품들과 도서편집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주체적문학예술발전을 적극 추동하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빛나게 실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문예출판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데 이바지할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편집출판하여야 한다.

문예출판사는 편집출판사업에서 주체의 원칙, 당의 유일관리제원칙을 비롯하여 당이 제시한 출판보도원칙을 확고히 지킴으로써 모든 출판활동을 당의 의도에 맞게 해나가며 문예출판물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문예출판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그 직접적담당자인 기자, 편집원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여야 한다.

문예출판사 기자, 편집원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학습과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정치적 식견과 안목, 편집기량을 끊임없이 높이고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기자, 편집원들은 혁명하는 시대의 출판일군답게 안일과 해이를 배격하고 항일유격대식으로 출판활동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문예출판사 전체 기자, 편집원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문예출판물발간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감으로써 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86년 9월 2일

그날의 등잔앞에서

박희구

우리 수령님
한자한자 새기시는
진리의 글발들을 비껴안고
백두의 그밤
꺼지지 않던 그 별빛

우리 수령님
마주서신 귀틀벽의 지도우에
홀려홀려
얼어붙은 설음을 녹여주던 그 불빛이여

너는 수천만이 우러르는
그 눈빛의 한끝에서
세기의 어둠을 뚫고

누리를 밝혀준 태양의 불꽃

너는 긴긴밤
이 땅을 옥죄이던
암흑의 철쇄를 녹이고
자주의 하늘가에 타오른
해불의 심지

사령부귀틀집의 작은 등잔불이여
세월이 바뀌어도
너는 영원히 꺼지지 않으리
조국의 먼먼 미래까지 환히 밝혀준
30년대의 광원이여!

사랑의 보석길

렴우봉

오늘
첫아기를 품에 안고
걸어나옵니다
사랑의 보석길을

시대의 축복우에 높이 솟은
평양산원-
홍옥, 황옥, 청옥의
황홀한 보석주단우를

차마 딛기를 저어하며
울렁이는 가슴으로
걸음걸음 들어서던
그 길입니다.

하루하루
살뜰한 손길을 느끼며
친정처럼 정이 든 집
이 옥보석우에 걸음 옮기는
뜨거운 마음

반아안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깊이 느끼며
내 목메었습니다.
나라의 《왕》들이 태어나는곳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보석꽃주단도 퍼주신 그 손길에

아, 인간의 탄생을
가장 큰 경사로 여기시며
인생의 꽃을
가장 아름답게 피워주시는
우리의 자애로운 지도자동지!

세월이 다하도록 피어있으라고
세상에 진귀한 보석을 다듬어
한송이 두송이 수놓아주신
이 동백꽃, 도라지꽃...

보석이 무엇이였겠습니까
꽃이 무엇이였겠습니까
자식 낳은 기쁨대신에
살아갈 걱정이 더해만가던
그 옛날에야

진정 그 옛날엔
가난의 진창길을 헤매이며
몸에도 지녀 못던 옥보석을
오늘은 발밑에 깔아주시니

아, 세상이 다 바라보는
행복의 언덕길을
조선의 오늘과 래일이
안고안기여 가고갑니다!

조선

좌시기가 아그베코

아, 조선
아름다운 자유의 나라여
내 너를 노래하노라
영웅의 나라
궁지높은 자주의 나라에
자유의 노래 울려 퍼져라

아, 조선
자유의 나라여
내 너를 사랑하노라
내 만경대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왕재산도...

너의 이름 부를 때면
내 가슴 기쁨으로 설레여라
온 강산에
아름다운 주체의 노래
자유의 노래 울려 퍼지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사람들을 깨우쳐 하나로 뭉치게 한 나라
바위도 침묵을 깨뜨리고
자유의 노래 힘있게 울리어라

오, **김일성** 동지
당신은 자유의 창조자
내 당신을 칭송하나니
자유의 해빛으로 빛나는
주체의 나라 만세!
위대한 어버이 **김일성** 동지 만세!

당신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여라
당신은 위대한 신분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모든 나라의 자주성은 빛나리
조선처럼 빛나리

(필자는 가나 37호군부대병원 주체사상연구
구락부 책임자)

가사

영웅의 고지에 사과꽃 피었네

심봉원

천이백십일고지 그날의 전호가에
세그루 사과나무 굳세게 자랐네
아, 영웅의 기상을 떨친 고지에
전설같이 사과꽃 피어 설레네

장군님 주신 땅에 백화만발할
승리의 봄 그리며 전사들 심었네

아, 타는 목 추겨야 할 물 한모금도
사과나무 푸르라 부어 키웠네

불구름속에서도 미래를 그린
영웅들의 그 넋이 강산에 꽃렸네
아, 결전의 그날에 남긴 그 마음
아지마다 송이송이 피어 설레네

향도의 해발 넘치는 《지하평양》

박창민

시작은 여기인데 끝은 어디인가.

눈썹리 아득히 뻗어내린 사갱으로 계단식승강기가 미끄러지듯 흘러내려간다.

은혜로운 해빛 넘치는 《지하평양》으로 끝없이 흐르는 행복의 《무지개》,

그 《무지개》를 타고 내리는 밝은 저 얼굴들, 락원의 강산- 이 땅에 사는 《선남, 선녀》들이 아닌가.

그들속에 어울려 향도의 거룩한 자욱을 따라 기행의 길에 오른 우리의 마음도 무지개를 타고 내리는듯.

여기에도 《삼지연》이 있다

지하로! 수백길 지하에로!

승강기의 고르로운 동음이 행복에 젖어든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간단없이 들려왔다.

드디어 《광복역》이 나타났다.

아- 웅장화려하구나, 《지하평양》이여!

현란한 빛발을 발산하는 무리등이며 밝은 빛을 받아 반들거리는 은근하면서도 시원한 대리석, 사람들의 마음을 백두산으로, 삼지연으로 실어가는 대형벽화, 행복의 《꽃수레》- 진동차에 오르는 화려한 옷차림의 환한 얼굴들...

독특한 기교의 건축과 예술작품이 서로 조화되어 환상세계처럼 느껴지는 지하철도!

기행의 첫걸음부터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평양지하철도! 너야말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예지로온 향도의 빛발아래 솟아난 기념비적창조물이구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얼마전에 지하철도는 대를 두고 길이 전할 기념비적창조물이기때문에 지하철도의 역이름들을 의의있게 달고 그에 맞게 지하철도역들에 불일 벽화들의 주제를 옳게 설정하며 내용을 잘 반영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삼지연을 형상한 커다란 벽화앞으로 다가갔다.

금시 백두산의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천리 수림의 바다가 설레일것만 같았다.

아, 백두산!

창공높이 솟은 메부리들을 뿌리채 휘감아올릴

듯 푸른 하늘에 백설을 뿜어올리며 만년빙설의 빛광속에 장엄한 위용 펼치는 백두산!

하늘우에 군림한 네 모습 천만의 용사를 거느린 장수의 장검인양 위엄있고 날아가는 구름을 걷어안으며 쿵쿵 격파 치솟아 설레는 천지의 푸른 기상, 장쾌하구나!

한발자국 또 한발자국!

백두의 흰눈을 마음속으로 저저디디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니 이번에는 삼지연이 나타났다.

아, 삼지연!

네 기슭에 서니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조국으로 진군하던 혁명투사들의 모습 눈앞에 떠오르누나!

붉게 핀 저 진달래는 못잇을 그날 향일의 너전사들이 한아름 그러안고 두볼에 비비며 뜨거운 눈물로 적시던 그 진달래...

우리는 황홀한 심정에 사로잡혀 대형벽화앞을 떠나지 못하였다.

《지하철도의 자그마한 하나하나의 조각으로부터 화려한 무리등, 하나의 벽화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것들에는 그 어떤 장식으로서가 아니라 예술작품화하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한 한 지하철도일군의 말이였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지하철도 내부장식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의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보는 사람마다 황홀함에 휩싸이게 하는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예지로온 향도의 해발이 흘러넘쳤기때문이라고, 여기 광복역에도 향도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다고.

평양지하철도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던 1978년 9월 어느날 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다시 광복역을 찾으시였다.

완공을 앞둔 광복역은 한없는 영광을 안고 환희의 파도속에 설레였다.

축포의 꽃보라 피어나는가 밝고 아름답고 현란한 빛을 뿌리는 구슬들로 장식된 우아하고 화려한 구슬무리등, 금시 항일혁명투사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올듯 붉은 기발 필력은 청봉숙영지, 격동의 파도를 일으키며 밀려올것만 같은 삼지연!...

봉화와 잣송이모양의 섬세한 조각장식들이 조화롭게 어울린 지하역은 립체적으로 완성된 하나의 예술작품을 방불케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석고상앞으로 다가가시었다.

눈덮인 백두밀영에서 조국광복을 구상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그이를 옹위하는 항일혁명투사들의 모습을 형상한 부각상앞에서 오래도록 자애로운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잘 형상하였다고, 지하역을 훌륭하게 꾸렸다고 매우 만족해하시었다.

뜨거움에 젖어든 눈을 슴뻘이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르는 건설자들의 눈앞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끊임없는 가르치심을 받던 지하철도건설의 잊지 못할 날들이 떠올랐다.

...지하철도건설을 끝내면 한시름 놓겠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그 건설을 진두지휘하여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광복역형성안만 해도 여러차례나 보아주시고 친히 역이름도 달아주시었으며 벽화의 주제사상과 그 형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벽화는 항상 중심에 모셔야 하며 그 재질로부터 시작하여 삼지연과 백두산에 대한 벽화를 비롯한 모든 벽화들의 사상에술성을 높이기 위한 형상방도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광복역에 모실 위대한 수령님의 석고상을 보아주시고 그 주위에는 그이를 옹위한 항일혁명투사들의 생활모습을 반영한 군상들을 배치해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지하철도벽화는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야 할 역사적의의를 가지는 만년대계의 기념비로 창조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산 좋고 물 맑은 이 강산의 이름없는 자연바위에 새겨진 글을 보시고도 그것이 우리 인민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이끄시는 빛나는 우리 시대에 새겨진 행복의 글발로 후세에 전해지도록 날자를 새기게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한없이 숭고한 충성심을 지니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벽화의 색깔을 오래도록 보존할데 대하여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 간곡한 말씀을 가슴에 새겨갈수록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이 깃들어있는 지하철도를 대를 이어 물려주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뜻이 뜨겁게 안겨왔다....

그 지하역건설의 나날, 힘과 지혜가 모자라면 힘과 지혜를 주시고 부족한것이 있으면 제일먼저 아낌없이 돌려주시고 지하역건설 방향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여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하여주시고도 오히려 그 빛나는 성과는 이처럼 건설자들에게 돌려주시고 기뻐하여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에 건설자들모두의 가슴가슴은 뜨거운 격정으로 소용돌이쳤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의 전동차가 광복역에서 첫 출발을 하던 뜻깊은 날이 왔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여기에 나오시여 기쁨을 금치못해하시었다.

벽화앞에서 걸음을 멈추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벽화가 대단히 잘되었다고 하시며 광복역에 들어서니 삼지연에 온것 같다고,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삼지연못가에서 사진찍은것과 꼭 같을것이라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었다.

정녕 무심히 바라볼수 없는 벽화였다.

귀를 기울이면 어버이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그날의 그 음성 귀전에 들려올듯, 우러르면 웅장 화려한 《지하평양》에 예술적화폭을 펼쳐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이 안겨올듯 우리의 가슴은 뜨거움에 젖어들었다.

《향도의 해발아래 <지하평양>에도 <삼지연>이 생겨났습니다.》

광복역의 한 일군의 뜻깊은 말이였다.

우리는 다시금 벽화앞으로 다가갔다.

아-삼지연!

이 나라 인민의 가슴속에 하냥 설레는 혁명의 성지!

우리 언제나 너처럼 살리라.

너처럼 변함없이, 너처럼 열정에 넘쳐...

백두의 흰눈과 삼지연의 맑은 물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전동차에 올랐다.

다음역은 《건국역》

경험과 진리

오필천

경험과 진리,

두 의미는 주는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호상 뉘없이 밀접한 연관속에 놓여있다.

진리는 경험을 통하여서만 얻어진다. 하나의 진리를 찾자면 무수한 실패의 쓰고단 경험적과정을 거쳐야 하는것이고 또 해와 세월을 이으며 경험의 탑을 쌓아가는 과정에 진리를 찾게 된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하며 권력과 칼날이 곤두선 교수대앞에서도 지조를 잃지 않고 인류앞에 내놓은 지동설론의 그 진리라든가 개들이 끄는 썰매에 운명을 싣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산을 죽음의 고비를 넘어 극점을 찾아낸 경이적인 발견의 진리들은 이렇듯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수 있었다. 레하면 어느 나라나 당에는 당건설경험이 있고 국가에는 국가건설경험이 있고 매 사람들의 운명에는 인생경험이 있다. 경험은 인류력사의 장구한 길우에서 축적되어가는것이다.

그러나 경험이 다 진리로 되거나 행동교범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한때 력사발전의 행동교범으로 내세웠던 경험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저녁연기처럼 사그라지고 한 시대를 대표하였던것들이 지금은 낡은것으로 되어버린것들도 있다. 진리란 사물현상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한 참된 리치일진대 이 진리의 속성을 얼마나 가지고있는가에 따라 그 경험의 가치가 규정되는것이다. 때문에 예로부터 경험이란 단어의 뒤끝에는 교훈이란 말이 붙어있다. 그것은 경험에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따르지 말아야 할것, 나쁜 영향을 주는것이 있기에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주석을 달아야 하는것도 있는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장구한 혁명의 길우에 쌓아 올리신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은 한 시대만이 아닌 인류의 전 시대를 대표하는 력사의 채부로 되어 참된 진리로 빛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다도제국주의동맹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을 걸어 온 우리 당은 그 길우에서 세기에 빛나는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였으며 철석같이 통일단결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력한 혁명적당으로 장성강화되였다.**》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보석처럼 쌓아올린 당건설경험의 그 위대한 진리성 주체사상, 이 주체사상의 창시가 인류사상사의 보물고를 빛나게 장식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로서 한

시대만이 아닌 인류의 전 시대를 대표하는것은

그것이 력사앞에 지동설을 밝힌 그 진리나 백열전등의 밝은 빛을 준 그 발명에는 전혀 대비조차 할수 없는 인류력사발전을 추진시키는 사회개조의 주인으로서의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힌 자주적인 인간의 새 탄생을 선포한것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무장한 적을 무장으로 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여 20성상 일제와 싸워이긴 무장투쟁경험이나 전민족이 총동원으로 원썬을 칠데 대한 반일민족통일전선경험이나 그 모든것은 지금도 어느 한 나라,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혁명을 하고 있는 나라나 승리한 나라나 모든 나라, 모든 당에 혁명투쟁의 진로를 밝히는 참된 교범으로, 투쟁의 기치로 되는것이다.

우리 당 건설의 이 절대적진리성은 이렇듯 백전백승한 투쟁경험이며 그 백전백승의 진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완전무결한것으로 쌓아올리신것이다.

나는 얼마전에 영광의 땅 청산리를 찾은적이 있다. 나는 여기서 당사업과 방법의 교범으로 되고있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어떻게 창조된것인가를 다시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정전직후 스무나문집도 안되는 세대가 모여 몇 개에 불과한 보습과 얼마 안되는 호미와 낫을 가지고 첫 농업협동조합을 무어 새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 갈피를 못잡고있을 때 아버지수령님께서 수수한 멍석우에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나아갈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였다. 한 농장을 근 백차례에 가까운 현지지도의 그 낮과 밤, 해와 해를 거듭하시고 이슬내린 새벽 두령길을 걸으시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위대한 진리를 창조하신것이다.

우리 민족의 력사가 깊어 반만년, 우리 당의 뿌리가 길어 60여년, 조선로동당의 이 경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것이기때문에 그 진리성이 확고히 담보되고있는것이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예지로 동강의 밀림우에 내려쳐가던 조국광복의 위대한 해발이였고 몸소 붓을 드시여 《토지는 발같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글발을 새겨주시던 힘찬 구호였고 공장구내길을 걷고걸으시는 그 자욱우에 보석처럼 빛난 대안의 사업체계였다. 그것은 엄혹한 조국해방전쟁의 새 국면을 열으시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의 연단에서 높이 드신 위대한 손길이였고 오현리의 키낮은 초가집에서 각계각층 군중을 넓으신 한품에 안아주시신 우리 당의 통일단결이며 눈덮인 발머리에서 농촌의 휘황한 앞길을

열어주시며 이 땅위에 마련해주신 주체농법의 위대한 승리였다.

세월과 세월을 두고 이어가신 로고의 자옥에서 싹트고 줄기로 뻗어 거목으로 된 이 진리,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 건설에서 쌓으신 위대한 경험이며 백전백승의 기치로 그 진리성이 안받침된 투쟁의 무기인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계시어 빛나는 당건설경험이 창조되고 그 경험이 위대한 진리로 된 이 력사적사실, 그렇다. 수령님의 위대성은 당의 위대성이며 진리의 위대성이다.

빛나는 경험과 진리,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서 창조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자랑스러운 승리이며 고귀한 결실이다. 그렇기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은 우리 당 건설경험을 빛나는 진리이며 력사의 교범으로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낡거나 변하지 않고 따라배울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라고 말하는 것이다.

경험과 진리,

언어학의 견지에서 두 의미가 주는 귀결은 다르지만 조선로동당건설경험의 견지에서 볼 때 이 두 의미는 완전무결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다.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은 광명한 앞길을 밝히는 영원한 진리이다.

바늘

(삼지연 진군편 너대원의 동상앞에서)

윤명숙

밀림의 우등불에 타오르던 불씨들이

저렇게 별이 되어 여문듯

행복한 이 밤에도

배낭우에 실패를 올려놓은채

수십년이 지나도록 너대원은

오늘도 바늘을 쥐고있네

때론 군복집던 일손을 멈추고

눈을 들어

비단옷을 화려하게 입은

사람들의 웃음넘친 행복한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아도 바늘만은 놓지 않네

고향을 떠나올 때

동구박을 따라나서던

혈땀은 어머니에게

구운 감자를 안겨주던

배잠뱅이 걸친 동생에게

좋은 옷을 지어주지 못한

그 아픔이 아직도 바늘에 다 실려있는가

행군길에서도

불무지 우등불곶에서도

대원들의 떨어진 단추며

목달개를 달아주다가도

때론 그 작은 손수건에 고향의 들국화를

한뼘한뼘 새겨갈 때도

비단옷을 입으신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보여와서

가슴은 행복에 부풀고

또 한뼘 꽃을 수놓아갈 때면

꽃바다에 잠긴 조국의 모습이 다 보이어서

장군님따라

혈전만리

불길만리를

총잡고 너대원은 다 누벼왔거니

그래서 땀에 젖은

해진 군복을 누벼갈 때면

마치 비단옷을 누벼가는듯

한뼘한뼘 새기던 고향의 들국화를

오늘은 내 짜는 비단필에 다 피워주고도

너대원은 바늘을 놓지 않네

아, 너대원이

총을 잡은것은 바늘을 쥐기 위해서였던가

바늘을 놓지 않으려고 총을 잡았던가

총과 함께 놓을수 없는 바늘

수십년의 세월이 쌓여지는

마음의 년륜에 꽃을 수놓아가며

오늘도 쥐고있는 그 작은 바늘실이

내 마음속 은실금실을 끝없이 이어주며

찾은 조국을 어떻게 빛내여야 하는가를

너대원의 그 정찬 눈빛이 다 속삭이네

나에게

후대에게

하늘과 땅

김영길

1

철봉산 기상대는 읍거리를 약간 벗어나 야산등성이에 자리잡고있었다.

은회색라크칠을 한 판자들을 톱날처럼 다듬어 빙- 두른 목책안에는 유난히 푸른 잔디밭이 록주단처럼 깔려있었다.

파아란 가을하늘은 아득히 높아졌다.

기발계양대마냥 하늘높이 솟은 장대끝에서 꼬마비행기의 바람개비가 사르륵- 사르륵 돌아가고 이따금 고추잠자리가 사뿐히 내려앉곤하는 정갈한 목책과 땅우에 비스감치 꽃아놓은 지면온도계에서 부서지는 아침 햇빛은 오히려 아늑함과 정적만 불러오는것 같았다.

북적거리는 읍거리와 마치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두른듯 판세계를 이루고있는 군 기상대는 여전히 고요하고 한적했다.

문순보 기상관측소장은 관측장으로 나드는 문 옆에 의자처럼 뽕죽나온 바위에 걸터앉았다. 길쭉한 얼굴에 주름살이 곱게 잡힌 문순보는 60나이에 비해 그닥 늙어보이지 않았다. 10년을 하루와 같이 고즈넉한 고요속에 살아온 문순보는 이 별세계에서 생의 말년을 기꺼이 보내고있었다.

도합 직원이 셋뿐인 기상관측소에 복잡한 일이란 제기될것이 없었다.

문순보소장은 3시간에 한번씩 관측자료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도 기상대에 보고하는 일 외에는 일거리를 만들지 않았다. 문순보는 어디가서 무엇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것이 질색이었다. 우선 문순보자신에게 줄것이 없었던것이다.

각종 온도계와 기압계따위를 밖에 없는 기상대에 내밀것이 있을리 만무했다. 줄것이 없으니 달래지도 않는다는것이 문순보소장의 생활방식이였다.

기상관측소라는 기관도 힘이 없고 문순보자신에게도 아무런 힘이 없다는것을 그자신이 인정한지 오래다.

그런데 얼마전, 정확히 따져보면 달포전 도 기상대로 소환되여간 사람의 후임으로 기상고등전문학교 졸업생 강정구라는 청년이 오면서부터 문순보의 울타리가 실그럭거리기 시작했다.

청년은 오자바람으로 아무리 자그마한 군 기상대라도 여기는 10년 뒤편어졌다면서 관측원처너 은회까지 휘둥해가지고 일판을 벌려놓기 시작했다. 중앙과 도 기상대를 쭈서서 그래프식 자동온도측정기와 풍속기들을 받아다가 더 설치한다는 것이였다.

문순보도 그것을 마다할수 없었다.

처음에는 강정구네들을 자기 생활의 울타리, 아늑한 목책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던 노릇이 자기도 모르게 그가 한발자국 한발자국 그들이 일으키는바람에 말려들기 시작했다.

계기들을 새로 설치하는 일이 벌써 퍼그나 진척되어가고있었다. 이제는 세멘트와 모래를 얼마간 얻어오면 될판이었다.

오늘은 손쉽게 할수 있는 강변의 모래부터 한차 실어오기로 했다.

문순보는 그것도 여간한 걱정거리가 아니였다. (모래는 강변에 있다치고 실어오기는 무얼로 실어온단말인가?)

문순보대장은 아침나절 그 걱정에 머리가 다 지근거려났다. 지금도 의자에 앉아 어떻게 하면 모래를 한차 실어올것인가고 오만가지 생각을 하고있는 참인데 등뒤에서 강정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장아바니, 빨리 내려와서 전화를 걸어주시시오.》

청년은 창문을 열어잡고 이쪽을 바라보고있었다.

문순보는 별조임을 좀더 하고싶었으나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리고 경사가 완만한 둔덕길을 따라 천천히 사무실로 내려갔다.

강정구는 전화기옆에 서있고 은회는 오늘따라 손을 대면 베여질듯 날이 선 곤청색 작업복을 가뜰차려입고 앉아있었다.

문순보는 수화기를 들면서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갑자기 부탁해서 되겠나- 남에게서 달구지 한대라도 얻기 어찌 그리 쉽겠나... 교환입니까? - 여기 기상관측소데요, 저- 미안하지만 읍농장관리위원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기다립지요.》

문순보소장은 교환수처녀가 앞에 있기라도 한듯 송구스런 표정을 짓고 기다리기 시작했다.

여차직하면 전화통을 빼앗기라도 할듯 잔뜩 노려보며 딱 붙어 서있던 강정구는 의아스런 눈길을 치르고 물었다.

《아-소장동지! 달구지는 해서 뭘합니까?》

《아니, 모래를 안싹겠소?》

문순보 역시 놀라운 소리로 반문했다.

《자동차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차 한대 얻으면 뭇걸 가지구 달구지로 언제 나릅니까?》

순보는 이 청년이 이렇게도 현실을 모르는가싶어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문순보는 언제 짬을 내여 정구에게 기상대의 실정을 잘 이야기해주리라고 속다짐을 했다. 생각에 잠겼던 문

순보는 한식경이 지난후 입을 열었다.

《자동차?- 우리 힘 가지구 자동차를 어떻게 얻는다구 그라나...》

《배차를 받아야지요. 이것두 다 국가일인데요.》

강정구는 마치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듯 큰 소리를 쳤다.

그러는사이 전화가 연결되는 모양이었다. 문순보소장은 조용하라고 손을 내저었다. 드디어 전화가 걸렸다. 마침 관리위원장이 전화를 받았다.

문순보는 달구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대방이 알고도 남을 정도로 루루이 곱씹어 설명했다.

관리위원장이 좋은 대답을 주었는지 긴장으로 거뭇해졌던 문순보의 안색이 저이기 풀리면서 희뻑해지기 시작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걸겠습니다. 예, 예, 이거 참 감사합니다.》

문순보는 송수화기를 놓았다. 그리고 이마에 척척히 내뺨 땀을 훔치면서 말했다.

《닷새 후에 보자누만. 상상외로 쉽게 풀렸소. 한때 군위원회에서 함께 일한 사람이니까 모른다구는 안하누만.》

운수문제를 풀었는데 무엇이 못마땅한지 강정구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더니 불판에 올려놓은 차관처럼 푹푹푹푹거리는 것이었다. 고개를 수긋하고 앉아서 한동안 무엇인가 생각던 강정구가 다시 벌떡 일어서더니 마치 회의석상에서처럼 큰 소리로 말했다.

《소장동지! 한가지 제기하겠습니다.》

《?...》

《가만히 보니까 소장동진 그저 죽었소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있습니까. 이 자그마한 기관에 은희동무하고 저하구 청년이 둘씩이나 있구 소장아바이까지 셋이 합치면 왜 힘이 적다구 그럴니까.》

뜻밖에 강정구가 자기 이름까지 거들면서 기관 책임자와 맞서는데 당황해난 은희는 눈을 내리깔고 앉았다가 관측기록부를 들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문순보소장은 말이 난김에 품을 놓고 물불을 모르고 헤덤비는 청년을 깨우쳐주려고 생각했다.

문순보는 청년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스물이라는 강정구의 나이가 부러웠다. 그러나 문순보는 스물이라는 산수적개념은 이해했지만 그 스물이 문순보가 살아온 지난 시기의 스무해가 아니라 학교와 사회와 가정교육에서 질적변화를 가져온 인간도 사회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가는 우리 시대라는것을 깊이 알지 못했다. 문순보는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구- 좀 앉으라구.》

했으나 청년은 장대처럼 꺾끗이 선채로 순보의 말을 들을 차비였다.

순보의 머리속에는 불현듯 지난날 자기의 생활

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허허허... 나두 정구같은 때가 있었소.》

사람은 누구에게나 찬란한 과거가 있는것이다.

문순보는 자기 생활에서의 전성기- 찬란한 과거는 군위원회 상업담당 부위원장으로 사업할 때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때는 실로 힘이 있었다. 무서운것이 없었다. 마음만 먹으면 세상끝에 가서라도 군에 필요한것을 끌어왔었다. 지금도 공지를 가지고 회고하는 것은 군자체로 자그마한 세멘트공장을 건설할 때였다. 뜻하지 않던 설비의 오작상으로 조업을 며칠 앞두고 공사가 중지되었다.

파업을 받은 《문부위원장》은 그바람으로 화물차를 타고 강선을 향해 달렸다. 다음날 해동갑하여 강관을 싣고 들이닥쳤다.

사람들은 제 주머니것을 털어낸대도 그렇게는 빠르지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입을 딱 벌렸다.

그때는 적어도 도내에서는 《○○군 문부위원장》하면 그의 활동력을 인정했었다...

나이가 들어 군 기상관측소장자리로 옮겨앉은 첫시기만도 순보는 왕성한 사업욕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그마한 기관을 본때있게 꾸려보려고 여러가지 사업을 설계해보았다. 점차 《문부위원장》이라는 타력이 쇠진해지면서 어느 하나도 수나롭게 풀려나가는것이 없었다. 처음엔 그래도 생각은 부글부글 끓어올라 좀 시도도 해보다가 세월이 감에 따라 이 호젓한곳의 호젓한 주인으로 되버리었다. 순보는 이 모든것을 기상대라는 기관에는 힘이 없어 안된다는 자작구실로 정당화하며 마음편히 살아왔던것이다. 순보는 자기가 터득한 《생활철학》을 이 청년에게 이야기해주고싶었다.

《여보게 정구... 셋의 힘을 합치면 한사람의 힘보다 크다는건 산수적 계산이야, 그런데 사회생활을 산수로 할수 있나-》

《?...》

강정구는 울퉁퉁한 눈으로 소장의 입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문순보는 제잡담 말을 계속했다.

《요새는 그저 손에 쥘것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렁찮음 권한이 있던가 허허허...》

《예?-》

머리를 한쪽으로 약간 기울사한 강정구는 황황 불타는 눈으로 문순보를 마주보는것이였다. 그 눈빛에는 문순보의 설교를 부정하는 강한 주장이 어려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문순보는 말을 계속했다.

《그러니 군에서 우리 기상대같은 기관이야 생명이거나 있나. 내밀것이 없을 때는 아예 바라지 않는게 편안해... 그대두 괜찮아. 우린 또 우리 멋대로 살아갈 맛이 있거든...》

한참동안 참잠히 서서 들을만하고있던 강정구

는 《아니, 소장아바니. 그럼 이 세상을 권한이나 물건이 움직인단말입니까?》라고 통명스럽게 내쏘았다.

《사람두 원-》

순보가 다시 말을 꺼대려는데 강정구는 벽시계를 피곳 울려다보더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이어 강정구의 쟁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희동무, 내 자동차사업소에 갔다오겠소.》

대답 대신 빗살같은 목책틈새로 나비가 팔랑거리듯 머리수건이 언뜻거리더니 빨갛게 상기된 은희의 얼굴이 나타났다.

문순보는 강정구를 부르려고 했으나 청년은 벌써 구울듯이 내리막길을 달려 강냉이밭뒤로 사라졌다.

순보는 하는수없이 주저앉아 담배를 붙여물었다.

한참후 은희가 관측기록부를 들고 소리없이 들어왔다. 그길로 도 기상대를 찾은 은희는 손바닥을 송수화기에 오그려대고 될수록 낮은 소리로 보고하기 시작했다. 전화를 끝낸 은희는 제자리에서 가앉으면서 소장을 훌끔 쳐다보았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댔 은희는 매우 발랄한 처녀였다. 은희는 문순보의 기색을 살짝 훑쳐보면서 말했다.

《소장아바니, 저대신 좀 봐주실래요?》

순보는 은희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물었다.

《어딜 갈려구?》

《호호호... 가긴 어데 가겠어요. 모래 실으러 가려고 그러지요 뭐. 강에서 미역두 감구요. 호호호...》

《요새 차 한대 얻어쓰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하여튼 차만 얻으면 그러려무나. 아무렴, 바늘가는데 실이야 따라가기마련이지.》

차는 차고 눈앞에서 두 젊은이가 마음이 맞아 돌아가는것이 기특하게 여겨졌다.

《아이 아바니두, 그렇게 아니예요. 난 그런건 몰라요.》

은희는 귀뿌리까지 활짝 붉어져가지고 발을 동동 굴렀다.

《허허허...》

문순보는 마음이 유해지여 즐겁게 웃었다.

은희가 어쩔바를 몰라 벽쪽을 향해 돌아앉아 이야기는 잠시 동강났다. 사무실은 다시금 조용해졌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책상우의 전화기도 세사람중 누가 들기전에는 부뚜막에 늘어붙어 잠자는 고양이처럼 곱두룩 웅크리고있을뿐이었다. 고요는 종이 한시간이나 지속되었다.

똑딱거리는 벽시계의 단조로운 음향만이 이 집안의 고요를 깨치려는듯 꾸준히 울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갑자기 전화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문순보는 아침부터 전화기가 울리는바람에 희한한 생각이 들어 《어데서 우리한테 전화가 다오나?》라고 중얼거리면서 집어들었다.

《기상관측습니다. 예? -자동차사업소요?-예! 예, 오?- 정구동무요. 아니, 그게 정말이요?... 예 - 숨이 다 나가누만. 알겠소.》

전화를 받는 문순보의 눈꼬리와 입귀에 잔주름이 잡히며 느슨한 미소가 피어나더니 점차 온 얼굴이 환해졌다.

순보는 은희에게로 고개를 돌리면서 놀라운 소리로 말했다.

《애, 정구동무가 자동차를 해결했구나. 삼을 가지구 빨리 강변으로 나가보아라.》

《그것보시라요!》

은희는 탄성을 지르며 발딱 일어섰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순보는 자동차가 어떻게 것처럼 쉽게 풀렸는지 그 내막사를 알고싶었다.

빈주먹 하나 들고 간 사람이 무슨 수가 있어서 차한대를 떡먹듯 쉽게 얻을수 있단말인가?...

문순보는 머리수건을 꼭 졸라매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은희를 불러세웠다.

《애, 그 사람 차사업소에 누가 있니?》

《제가 그런걸 어떻게 다 알아요. 필요하다니까 쫓겠지요 뭐.》

은희는 누가 붙잡기라도 하려는듯 바삐 사라졌다.

문순보는 머리를 가로흔들면서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누가 있을까?... 누가?...》

2

청명한 가을날씨가 계속되었다. 하늘 잠자리들이 무리지어 목책안을 뚱뚱 떠다녔다. 바야흐로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잔디밭속에서 수정알같은 이슬방울들이 해빛에 반짝거렸다.

기상관측소장 문순보는 방금 진행한 관측자료들을 기입한 기록부를 뒤집진 손에 들고 목책밖으로 나왔다.

순보는 습관적으로 의자에 앉으려다말고 손바닥으로 쓸어보았다. 불이 죽은 온돌방처럼 산산했다. 관측자료에도 반영된것처럼 날이 갈수록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심했다. 아직도 동의자가 따끈해지려면 한시간은 실히 걸릴것 같았다. 요즘은 사무실 안보다 따스한 별이 내리찍는 밖이 더 좋았다.

순보는 마당가에 선채 창문으로 기록부를 넘겨주었다.

강정구는 랑미간에 가느다란 주름살을 짓고 앉아 컴퓨터를 정신없이 들여다보고있었다. 그

의 손가락끝은 모이를 쫓는 닭부리처럼 실재없이
수자판을 내리쪼었다.

은희는 방금 진행한 관측자료들을 종합하여 도
기상대에 보고할 차비를 하고있었다.

순보는 그들을 일별하고나서 사무실 처마끝에
매단 약초들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전
화기를 들고 도 기상대를 찾는 강정구의 목소리
가 울려왔다. 오늘 당직자인 은희가 아니라 강정
구의 목소리가 튀어나오는바람에 문순보는 일손
을 멈추고 잠시 귀를 강구었다.

정구는 관측자료를 보고한 뒤끝에 덧붙여 말했
다.

《...오늘 우리 군내 정확한 예보가 필요해서 그
럽니다. 예... 도기상대의 예보는 이미 받고있습
니다. 산간지대들에서 소나기가 예견된다고 했는
데 우리 군은 어떤지 정확히 알자는겁니다. 예?-
어데요? -린접군 수력발전소 기상대예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보소장은 손에 들고있던 약초를 어떻게 놓아
버렸는지 알지 못했다.

군예보라니?- 도대체 현재 장비를 가지고 그
걸 어떻게 알며 갑자기 그것을 알아서 어찌자는
것인가?...

원래 린접군과 같이 큰 수력발전소를 가지고있
거나 그 의의로 보아 꼭 필요한곳에는 인원과 기
술장비를 주어 자체로 예보를 할수 있다.

그 외 관측소들에서는 임무자체가 관측자료통
보가 기본인것이다.

그런데 강정구가 아무리 생활을 모른다손쳐도
전문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관측소 실정이야 왜
모르겠는가... 문순보가 생각을 쫓는사이 강정구
는 벌써 교환을 찾아 린접군 기상대를 부탁하고
있었다. 전화가 걸리는사이 정구는 자기가 연구
하고 산출해낸 수자들이 깨알같이 적힌 종이장을
들여다보고있었다.

말을 해줄것인가 말것인가 바재이고 섰는데 때
마침 강정구가 밖으로 나왔다.

그는 순보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먼저 말을
꺼냈다.

《소장동지, 저아래를 좀 내려다보십시오.》

문순보는 웬일인가싶어 정구가 가리키는 읍거
리를 굽어보았다. 별로 이목을 끄는것이 없었다.
8층아파트들이 랑통으로 늘어진 읍 맞은켠쪽 산
기슭으로는 물살이 급한 시내물이 희끗희끗 갈기
를 일으키며 흐르고있었다. 이웃군으로 나가는
신작로가 마치 땡기오리를 감아놓은것처럼 성골
령을 굽이굽이 돌아갔다.

《아니, 이쪽말입니다. 식료공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좀 보시라요.》

순보는 실눈을 짓고 그쪽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웬일인지 그 길에 사람들이 한발 덜썩였는데 자
동차, 트럭포르들이 분주히 오갔다.

《저기서 뭘하나? 도로수리를 하는가?》

《수리가 아니라 포장공사가 벌여졌습니다.》

《응- 거참 잘하는군. 먼지가 꽤나 일더니.》

문순보는 별로 흥심없이 말했다.

《소장아바니, 그런데 저 공사가 야단났습니다.》

강정구는 안타깝게 말했다.

《왜?-》

《도예보를 듣구 제가 좀 계산해보았는데요. 우
리 군 경내에 오후쯤 꼭 소나기가 내릴것 같습니
다.》

《소나기?-》

하면서 순보는 반사적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산발로 겹겹이 둘러막혀 하늘도 크지 못했다.

기상학적으로 볼 때 자기가 선자리를 중심점으
로 하여 시야가 미치는것 빙-둘러보이는 하늘이
몽땅 구름으로 덮였을 때를 10바르라고 한다. 그
런데 지금같이 팔짱 개인 0바르상태에서 소나기
가 온다고 장담하기가 힘든 일이다. 기상기후관
변덕이 심한탓에 안온다고 단마디로 일축해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 설사 온다 한들 무엇이 야단
이란말인가?...

문순보는 의아스런 눈길로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래서말입니다. 오후에는 저 포장공사를 중
지해야지요.》

문순보소장은 그만 가슴이 철렁했다. 지나친
흥분으로 가슴이 활랑거리면서 말이 잘되지 않았
다. 문순보는 가까스로 어성을 낮추어 말했다.

《공사를 중지하다니?- 동무 정신이 있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까운 세멘트가 다 녹
는 판인데요.》

문순보소장은 고개를 들고 얼핏 주위를 둘러보
았다. 엇들은 사람이 없는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구. 어서.》

문순보는 청년의 등을 밀었다. 순보는 출입문
이며 창문마저 꼭꼭 마주 닫고 자리에 가 앉았다.
사회생활의 첫자옥을 내딛는 청년에게 신발을
단단히 신길 필요가 있었다.

문순보소장은 자못 엄한 소리로 꾸짖기 시작했
다.

《강정구동무, 동무 무슨 일을 치지 못해 그러
나. 응?-》

때마침 린접군 기상대와 시외전화가 련결되었
다. 강정구가 썩싸게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를
두손으로 감싸잡은 강정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
었다.

《그 군에 오늘 소나기가 예견됩니까?... 14시경
신평리를 중심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수화기를 놓은 강정구는 환성을 질렀다.

《보십시오. 우리 군 접경인 신평리에 소나기가
내린답니다. 틀림없습니다. 대책을 취해야지요.》

문순보는 번듯한 이마에 주름살을 지으면서 말
했다.

《거기는 구름이 몇바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이야 현재 0바르가 아니요. 풍속두 그렇구… 켄히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웃음거리가 될수 있소.》

강정구는 가슴속으로 불만이 욱 치미는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것이 왜 남의 일이란말인가… 크건 작건 이런 때에 우리의 힘을 바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측소가 어디에 필요한것인가…

강정구는 자기의 생각을 끝이끝대로 쏟아놓았다.

《소장아바니, 우리 기상관측소가 왜 힘이 없는줄 알아요? 꼭 물위에 뜬 기름방울같아요. 생활과 동떨어져서…》

《뭐?~》

《그렇기때문에 물밑에 가라앉은 조약돌처럼 빛도 없고 힘도 없는거예요.》

할말을 다 내놓은 강정구는 숨을 쉼씩 몰아쉬면서 자리에 앉았다.

정구는 아무 일 없었던듯 최근 중앙과도 기상대의 예보와 실측자료, 군 관측기록부를 다시 펼쳐놓고 컴퓨터앞에 앉았다.

강정구가 감정을 능치고 잠시 즈믄해지자 문순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젊은 사람들이 결집에 한 말을 별로 탓하고싶지 않았다. 젊은 사람하고 맞방망이질 할수도 없고 또한 말재간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수 없는것이다. 문순보는 이제는 앓기 좋을만큼 파스해졌을 의자를 바라보며 관측장으로 향했다.

장시간 불박이로 앉아 계산기와 씨름하던 정구는 벌떡 일어나면서 웅쳤다.

《틀림없소. 15시경이요.》

그 소리에 결파라 일어난 은희는 가슴우에 손을 올리면서 탄성을 질렀다.

《아이, 그래요! -그럼 빨리 알려주자요.》

《내가 도로공사장에 갔다오겠소.》

《뛰어가시라요.》

은희는 문밖까지 따라나와 그를 바래왔다. 은희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려는데 목책안에서 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사람이 어딜 저렇게 뛰어가니?》

《도로공사장에 알리러 갔어요. 틀림없대요.》

《틀림없다니 무엇말이냐?》

《아이참, 소나기말이지요워.》

처녀의 대답에 문순보는 대뜸 정신이 펴쩍 들었다.

《응?~ 너희들이 끝내…》

이어 문순보는 사무실마당으로 내려왔다. 순보는 은희를 몰아세웠다.

《저 사람을 데려오너라 어서-》

하얀 목덜미가 활짝 붉어진 은희가 허아래소리로 말했다.

《놔두시라요. 소장동지.》

《?~》

문순보는 그만 억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고요와 아늑한 정적이 곧 생활로 습관된 군 기상관측소에 뜻하지 않던 회오리바람이 휩쓸고 지나간듯 순보는 가슴이 어수선했다.

3

소장의 성화에 못이겨 강정구를 찾으러 갔던 은희는 혼자서 되돌아왔다.

순보는 마당가에서 서성거리다가 은희를 맞았다.

《그 동무 안와?~》

《오는게 다 뭐나요. 분해서 죽겠네. 글썄 우리말을 귀등으로도 안듣지요워.》

《그것봐라. 켄히 안배칠데 빠치다가 망신만하는걸.》

《이건 가만있음 안돼요. 글썄 대장아바니를 보구 문대장이 아니라 <무대장>이라잖아요.》

《나보구? -누가?~》

《군 건설대장동무말이지요워.》

《그 사람이 뭐라든?~》

문순보는 자기와 한현관에서 벽을 사이두고 사는 군 건설대장의 입심을 잘 알고있었다.

《오늘중으로 포장공사를 끝낸다고 도로 량켄에 세멘트를 막 부리워났는데 야단났지요워. 공장, 기업소별로- 직장별로 뜯어말겨서 불이 붙었어요.》 강동무가 그 복새통에서 겨우 건설대장을 찾아서 오후 3시경에 소나기가 예견되는데 그때까지 길가의 세멘트를 다 비벼넣을수 있는가고 물으니 우리 보구 어디서 왔는가 되물잖겠어요. 그래서 강동무가 군 기상대에서 왔단니까, 아이참, 기가 막혀서, 대바람에 <여보, 내 그 령감 말 듣구 저번날 구멍탄을 한마당 넣어놨다가 망했소. 난 이제 그 령감이 우산을 들구 나가면 양산을 들구 나가오. 그 문대장인지 무대장인지 한 령감 보구 바람개비나 잘 돌아가는가 지키라구 하오.>

말하는 게가 꼭 우리같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하다는거지요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난 창피해서 얼른 뛰어오구말았어요.》

《정구 그 사람은 안오나?》

《오겠지요워. 군 행정및경제지도위원회 위원장 동무가 나왔다길래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기어코 일치겠군. 팬스레 남의 일에 발벗고 나서서…》

은희는 것처럼 모욕을 받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문순보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소장동지 안가보세요?》

은희의 까만 눈동자에서는 아직도 불길이 이글거렸다.

《어델?~》

《어디라니요. 그 건설대장한테 가서 해보자요.》

《허허허… 뭘라나. 우리 그 사람 신세 안지면 되지.》

《아이, 속상해-》

눈물이 글썽해난 은희는 분을 삭이지 못해 짙게 겨졌다.

때마침 벽시계가 땡- 땡- 땡- 하고 열한점을 쳤다. 벌써 점심시간이 가까왔다.

순보대장은 측은한 눈길로 은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일론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마. 오지람이 넘어두 분수가 있지 윈-》

순보대장은 은희를 남겨놓고 밖으로 나왔다.

한줄기의 서늘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누렇게 마른 강냉이 이삭들이 거꾸로 매달려 사람의 손을 기다리고있었다. 어디를 둘러보나 누른 빛이 있었다. 풍년의 계절이었다.

문순보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 성골령 꼭대기로 버섯모양의 적란운이 뭉클 솟아올랐다. 목책안에서 꼬마비행기의 바람개비가 요동치며 돌아갔다. 눈집작으로써도 기후변동이 심하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때아닌 적란운과 바람은 소나기를 몰아오기 일쑤지만 하늘에는 여전히 가을의 깨끗한 태양이 떠있었다. 문순보는 곧바로 공사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도로포장공사장은 은희한테서 들던바대로 복적거렸다. 런닝그짤으로 구리로 빛은듯 적동색의 근육들이 울퉁불퉁 튀어나온 청년들이 열성스레 다녔다. 그 혼잡속에서 문순보는 뛰여가는 강정구의 얼굴을 피곳 보았다. 순보는 두어번 목소리를 높여 불러보았으나 강정구는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물결속에 뒤섞이고말았다. 마치 홍수로 범람하는 강물처럼 작업장은 들끓고있었다.

공지에는 세멘트와 모래무지가 작은 산등성이처럼 솟아있었다.

문순보는 몰탈삽날들이 번개처럼 번뜩이는 타입장을 예돌아가면서 강정구를 찾았으나 허사였다.

미구하여 점심시간을 알리는 고동소리가 자그마한 읍거리를 들었다놓았다.

문순보는 돌아가는 길에 길역에 있는 공사지휘부천막안을 기웃해보았다. 텅비어있었다. 모두 시원한 강변으로 나간 모양이었다. 문순보는 문바투 끌어다 놓은 장의자에 앉아 잠시 다리쉬을 하면서 설핏해지는 사람들속에서 눈더듬으로 강정구를 찾아보았다.

이때 마침 어깨가 한발이나 쳐져내린 강정구가 맥없이 터벅터벅 걸어왔다. 옷은 온통 세멘트가루를 뒤집어써서 푸릿푸릿해졌다. 몹시 지쳐보였다.

문순보는 물기어린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정구 이사람! 어데 갔댔나. 괜한 고생을 사서 하면서…》

강정구는 문순보소장을 알아보고 천막안으로 들어오더니 말없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강정구는 문순보를 보자 금시 설음이 북받쳐올라 목이 메었다.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데 있습니까? 예? 술한 사람들을 만나 제기했지만 어디 말을 들어줄니까. 이젠 시간이 급한데. 혼자서 다 처리할수없구…》

강정구는 울상이 되었다. 그러나 청년의 눈만은 여전히 반짝거렸다.

《듣지 않겠으면 듣지 말래지. 이젠 됐소. 돌아가서 점심이나 먹구 오라구. 은희가 기다리겠는데.》

하면서 문순보는 먼저 일어서서 천막밖으로 나왔다. 순보는 느릿느릿 여람발자국 옮겼으나 따라나서는 기척이 없었다. 문순보는 다시 독촉하려고 멈춰서서 뒤를 돌아다보았다.

그런데 천막안에서 또 어딘가 전화를 거는 강정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엇때문인지 교환수에게 사정사정하는것이였다. 문순보는 강정구의 말을 토막토막 얻어들을수 있었다.

사택?... 사택... 사택이라니?... 군치고 사택에 전화가 있는 집이란 뻔했다. 문순보는 순간 가슴이 활랑거려났다. 순보는 천막을 향해 바빠 걸기 시작했다.

천막안에서 다시금 정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군당?-책임비서-동지?-》

그다음 문순보는 어떻게 걸음을 옮겼는지 몰랐다. 숨이 턱에 닿아 천막안에 들어선 문순보는 강정구가 들고있는 전화기를 무작정 두손으로 꼭 잡았다. 그리고 벽력같이 고향을 질렀다.

《아니, 책임비서택에는 왜서 함부로 전화를 거요?》

어망결에 전화기를 떼운 정구는 영문을 몰라 두눈을 깜빡거렸다.

《아니, 그럼 어쩡니까. 분초가 새로운 판에 마지막으로 군당책임비서동지한테 제기하는수밖에 있어요?》

더 피할 길 없게 된 강정구는 큰소리로 맞대들었다.

그러니 강정구가 잠시나마 잠잠해있었던것은 폭우가 쏟아지기 전야의 저기압과 같은 침묵과 자체력이었던가... 비로소 어슴푸레하게나마 상사말뼉듯하는 청년의 성격을 파악한 순보는 사택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어디라구 함부로... 그렇게 물인지 불인지 모르구 덤비다가 큰일을 치구야말겠소.》

순보는 생각할수록 가슴이 떨려났다.

때마침 전화가 나왔다. 신호종소리가 울린지 한식경이 지난후 순보는 전화기를 두손으로 받쳐들었다. 송수화기가 천근만근 무거웠다. 이어 교

환수처녀의 새소리같은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말씀하십시오. 도로포장공사장이 나왔습니다.》

문순보는 불시에 몸이 떡 굳어지는것 같았다.

《제 책임비섭니다. 말씀하십시오.》

군당책임비서의 목소리가 확성기에서처럼 왕왕 울려나왔다.

《예, …저…사실은》

문순보는 이마에 내뿜은 콩알같은 땀을 훔치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구는 문순보의 손에서 수화기를 넘겨주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군당책임비서가 재차 다짐을 두면서 따져 물을 때마다 강정구는 확정적으로 대답하곤했다. 군당책임비서는 곧 현장으로 나오겠다고 했다.

전화가 끝났다. 별스럽게 천막안이 조용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다. 불집은 이미 터지고말았던것이다. 이제 군당책임비서를 만날 일을 생각하니 문순보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사람은 자기 힘에 맞게 일하고 요구해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이제껏 그렇게 살아가던 관측소가 이제 군민들의 웃음가마리가 될것만 같이 문순보의 가슴은 불안해나기 시작했다.

4

기상관측소장 문순보는 요즘 때없이 자기 회오의 감정에 사로잡혀 멍하니 앉아있곤했다.

아까부터 전화기가 보채는 아이울듯 야단스럽게 울어댔다. 요즘은 전화성화에 지칠 지경이었다. 순보는 천천히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거 래일말입니다. 비가 안오나 해서 그러니까.》

《울것 같지 않습다.》

《아- 이거 책임적인 발언을 해주십시오.》

꽤 덤비는 청년이었다. 문순보는 저쪽에서 은근히 걸고드는바람에 오히려 속이 누그러워졌다.

《어디 소금장사라도 떠나시려오?》

《예?- 아 이거 소장아바니시로군요. 그새 건강하십니까?... 래일이 일요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자전거 타구 낚시질 원정가려구 그러니까.》

《낚시질? 그런 한가한 사람한테 날씨가 대주는 기상대가 아니요.》

문순보는 점잖게 말하고나서 수화기를 놓으려고 했다. 저쪽은 급해맞아서 소리소리 질렀다.

《아, 그냥 통화중이 돼서 겨우 찾았는데- 거 그럼 강정구동무를 좀 바꾸어주십시오.》

《정구동문 지금 밖에서 관측중이요, 방해하면 안돼.》

《좀 찾아주십시오. 전번 소나기 퍼붓던 날 세멘트때문에 싸우던 친구라면 알아요. 야- 이거

좀 정확히 알려주시구려.》

문순보는 속이 그닐거려 참을수 없었다.

《허허허... 그래- 그런데 우린 매일 예보를 하지 않아.》

《그래요?-》

청년이 너무도 섭섭해하는 바람에 순보는 한마디 덧붙였다.

《이사람아, 그럼 오후에 한번 다시 걸라구.》

《예! 감사합니다. 소장아바니.》

순간 문순보는 가슴이 후터워났다. 이쯤 사람사는것 같은 활력이 어디서 솟는가를 문순보는 알고있었다.

방금 낮모를 청년이 말한 소나기내린 그날이 바로 문순보의 생활에서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었던것이다.

바로 그날로부터 군기상관측소장 문순보의 생활에 대한 관점에는 대대적인 파열이 가기 시작했다.

회상에 잠겼던 문순보는 관측기록부를 들고 들어오는 강정구를 보고 말했다.

《빨리 재확인해보오, 경영위원회에서 또 독촉이 오겠는데.》

어느새 벌써 마가울에 접어들어 산간지대들에 서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중앙기상수문국의 통보와 도 기상대, 그리고 린접군 기상대의 예보를 종합분석한 결과 군적으로 해발고가 제일 높은 지대인 유전농장 막치기에는 래일 새벽 강서리가 내릴것이 예견되었던것이다.

오늘중으로 그 어방 가을무를 뽑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경영위원회에서 농장에 알렸으나 그곳 작업반장들이 벌렁 나누웠다. 아침 저녁이 다르게 무대가리에 살찌는것이 알리는판에 하루이틀이 어딘가 하는 배짱들이었다.

군에서는 심중하게 토의를 거듭했다.

경영위원회에서는 혹시 다른 대답이 나오지않을가 하여 시간이 멀다하게 전화를 걸어오는것이였다.

이때 밖에서 인기척소리가 났다.

순보는 얼핏 창밖을 내다보았다. 뜻밖에도 키가 후리후리한 군당책임비서가 서있었다.

《들어가도 좋습니까?》

순보는 얼른 일어서서 문을 열었다. .

《어서 오십시오.》

강정구와 은희도 일손을 멈추고 일어서서 인사를 했다.

군당책임비서는 서글서글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 우리 군 보배덩이들이 수고하누만. 앉아서 일들 보시오.》

강정구와 은희는 자리에 앉아 다시 펜을 달리기 시작했다.

순보는 군당책임비서에게 의자를 권했다. 군당

책임비서는 담배를 꺼내더니 순보에게 권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방해를 끼칠세라 목소리를 한껏 죽여가면서 말했다.

《소장동무, 그해 강서리가 기어코 내린다는 겁니까?》

문순보는 컴퓨터를 부지런히 다독이고 있는 강정구쪽을 흘끔 쳐다보면서 말했다.

《잠간만 기다려주십시오. 우리 동무들이 다시 한번 확정하는 중입니다. <ㅅ>군기상대 예보가 우리 군과 그중 군사한테 틀림없을것 같습니다.》

군당책임비서는 말없이 머리를 끄덕이었다.

이때 그렇잖아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있는 전화기가 파르릉- 파르릉- 하고 야무지게 울었다.

소장은 한쪽옆으로 비껴 앉아서 전화를 받았다. 오늘따라 감도는 왜 그다지도 좋은지 온 방안 사람들이 다 들을수 있을 정도였다.

《기상대요?》

《예, 어서 말씀하십시오.》

순보는 입안소리로 조용조용 말했다.

《여보게, 문대장 아니요? 나요 건설대장이요.》

《예, 예.》

문순보는 그가 또 왕청같은 소리를 할것만 같아서 잔등으로 진땀이 나왔다.

《여보, 문대장, 내 신세값음을 하려고 그런단니까. 동무네 무슨 공사를 벌려놔다면서?... 오- 그것말이요. 래일 모래 우리 사람들을 보내니까 기다리라고요.》

순보는 집안끼리 하는 그 공사를 건설대장이 어떻게 아는지 놀라왔다.

순보는 어물어물 대답했다.

《아, 그-괜찮아. 아직 세멘이랑...》

《자재는 다 가지구 간다니까. 이 건설대장을 다시 비판이나 안방게 해주구려.》

《예, 예, 고맙수다.》

순보는 송수화기를 놓았다.

군당책임비서는 웬일인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것은 군에서 취한 조치였던것이다.

송수화기를 놓자마자 기다렸던듯 또다시 신호가 울렸다.

이번에는 읍인민학교에서 걸려왔다. 래일 학생들이 가을철 자연관찰을 가는데 날씨가 미려하다는것이였다. 순보는 교장선생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 순보는 연방 걸려오는 전화때문에 민망스러운 눈길로 군당책임비서를 바라보았다.

군당책임비서는 무엇을 긍정하는지 의미심장하게 머리를 끄덕이는것이였다.

이때 또다시 전화가 요동을 했다. 경영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했다.

군당책임비서가 전화를 달라고 했다.

《제 여기와 있습니다. 발머리들에 우등불이요?... 한번 해볼판이지요. 손털구 나왔아서 언

김치를 먹을 맛이야 있습니까. 예... 이 동무들의 말을 다시한번 들어보고 모두 나갑시다.》

전화를 끊은 군당책임비서는 밖에 나가서 관측기재들을 돌아보라고 했다.

군당책임비서는 걸으면서 문순보에게 통말처럼 한마디 했다.

《여기가 우리 방보다 더 복잡합니다. 온 군을 쥐구 흔드는구만. 기상대 힘이 대단합니다.》

《예?!...》

《난 오늘아침 이 자그마한 기상관측소에 와서 많은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일부 책임일군들이 일시적난관앞에서 맥을 놓고 주저앉아 뭉개고있는데 동무들은 세사람이서 정말 큰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힘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의 정신이 아닐가요. 소장동무!...》

《!!...》

순간 기상관측소장 문순보는 가슴속으로 불뭉치같이 뜨거운것이 콧 솟구쳐오르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온 군을 쥐고 흔든다!... 우리 관측소가... 언제부터 우리 관측소에 이런 힘이 생겼던가!... 달구지 한대를 얻지 못해 것처럼 동분서주하던 우리 기관이...

생각에 심취된 문순보는 군당책임비서의 뒤를 따를것도 잊고 습관적으로 의자에 앉았다.

힘! ... 힘! ...

힘은 본래 인간의 소유인것이다. 사회와 집단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 여기에 따라 힘은 정비례로 생기는것이며 그것이 곧 메아리쳐오는것이다.

언제인가 열정적으로 호소하던 강정구의 목소리가 금시 귀가에 쟁쟁히 살아났다. 실로 자신은 이제껏 물우에 뜬 기름방울이나 물밑에 깔앉은 조약돌처럼 생활의 중심에서 너무도 멀리 떨어져 살아오지 않았던가...

아! 자기의 위치와 존재를 잃었을 때의 인간! 자기의 위치, 자기의 존재, 자기의 힘을 찾았을 때의 인간! 그 인간의 존재가치, 삶의 가치는 실로 하늘과 땅, 산과 바다처럼 멀어지는것이다!...

문순보소장은 이슬이 번뜩이는 뜨거운 눈길로 사무실을 내려다보았다.

안에서는 강정구가 무엇인가 불러주고 은희가 부지런히 받아쓰고있었다.

홀륭한 청년들이였다. 강정구의 뜨거운 열정과 그의 눈에서 비치는 광채는 아무런 가식도 꾸밈도 없는 순결무후한것이였다. 그것은 20대인 그가 나서 자라며 받은 시대의 깨끗한 자양분의 덕택일것이다.

문순보소장은 기관책임자로서 강정구청년에 대해 무엇인가 여쭙고싶은 충동으로 군당책임비서를 향해 힘있게 걸어갔다.

중편소설 《세대》와 정서적향기

리용일

《소설을 단숨에 읽었습니다. 손에 쥐면 어쩔지 놓고싶지 않더군요.》

중편소설 《세대》를 읽은 독자와 마주앉으면 흔히 이러한 말을 듣게 된다.

이 소설에는 두드러지게 형성된 큰 생활도 요란한 사건선을 타고 일관하게 발전해나가는 인물관계도 없다. 어데 가나 만날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과 누구에게나 친숙한 농촌생활과 자연이 그려지고있을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원인은 어데 있는가?

그것은 이 소설이 아름다운 한송이의 꽃처럼 자기의 독특한 정서적향기를 진하게 풍기고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소설은 밝고 산뜻하면서도 발랄하고 다감한 심리정서적양상을 띠고있다.

작품에 정서를 보장하는것은 시문학이 아닌 소설창작에서도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이 정서와 결합되는것은 예술형상의 본질적특성이다. 예술에서 정서적인것을 떠난 사상은 메마른 개념밖에 주지 못하며 추상성을 면할 수 없다.》

예술에서 사상은 감정의 흐름을 타고 정서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그럴 때에만 사상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다.

인류문학사에 남은 명작들은 그것이 시이건 소설이건 관계없이 거기에는 감정의 굴곡과 파동이 있으며 사상이 진한 정서적향기속에 밝혀지고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소설작품에서 정서문제를 옹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의의있는 사상을 밝히려고 해도 그것은 추상적이고 메마른 사상적도해에 그치고말것이다.

우리의 일부 소설들에서 나타나는 결함도 이와 관련되어있다. 말하자면 이런 작품에는 문제설정은 있으나 감정정서가 부족하다. 작품에 실려진 인물들은 눈, 코, 입 있을것은 다 있으나 피가 흐르지 않고 맥박이 뛰지 않는다. 이야기와 사건은 있지만 힘이 없고 향기가 풍기지 않는것이다. 이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미감에 맞을수 없다. 오늘 우리 인민들의 사상미학적요구는 대단히 높다. 예술의 본성으로 보나 우리 문학의 실태와 독자들의 시대적미감으로 보나 소설작품에 정서를 구현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절실하게 해결을 바라는 창작실천상문제이다.

중편소설 《세대》는 소설작품의 정서성을 담보

하기 위한 예술적탐구에서 일련의 긍정적경험을 보여주고있다.

이 작품은 1인칭소설의 특성에 맞게 사건의 론리가 아니라 주인공의 감정변화에 발을 붙이고 사상정신세계를 정서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여기에 주인공의 성격형상의 특징이 있고 인물들의 생활을 정서적으로 펼쳐보일수 있는 요인의 하나가 있다.

이 소설에서는 풀베기군들의 행복에 대한 론지에서 발언권이 없던 성철이가 후에는 발언권을 가지게 되는 생활의 대조를 통하여 그의 사상정신세계의 변화발전과정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의 첫부분에서 행복에 대한 발언권이 없는 성철이의 사상적준비정도는 친한 녀동무인 정혜에 대한 그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밝혀지고있다.

성철은 아침작업시간에 늦고도 풀베기도중 나리꽃에 정신을 팔면서 정혜를 생각하는가 하면 정혜와 함께 산에 올라가 꽃구경, 이야기바람에 작업시간이 지난줄도 모른다.

작품은 이 대목에서 보여주고있는 주인공의 부족점까지도 산뜻하고 깨끗하고 밝은 정서가 그윽하게 풍기도록 형상하고있다.

이것은 다음부분에서 자기의 결함을 두고 모대기는 주인공의 사상정신세계를 보여줌에 있어서 그 전제로 된다. 소설에서 정혜가 고향을 떠난다는 사실, 풀베기작업에 성실치 못한데 대한 아버지의 꾸중 등은 성철의 내면세계에 파문을 일으킨다. 그렇게도 즐겁고 밝은 기분에 잠겼던 성철은 아버지의 꾸중에 대한 반발과 서운한 감정, 정혜가 떠난다는 사실이 안겨주는 쓸쓸한 감정에 잠긴다. 이는 앞부분에서의 감정과 상반되는것이다. 그러나 이 상반되는 감정은 성철이로 하여금 학교를 졸업할 때 지냈던 고향땅을 꽃피워가려는 리상과 포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한다.

성철은 농장에 나와 일한 몇해동안을 돌이켜보면서 리상과 실천과의 차이를 두고 모대기는것이다. 이는 바로 성철의 사상정신세계의 변화발전과정을 구체적인 감정의 굴곡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보여주고있는 생동한 실태로 된다.

결국 소설의 앞부분에서의 밝은 감정은 그것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쓸쓸한 감정과 대조되어 주인공의 사상정신세계에 충격을 줄수 있는 감정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소설의 다음부분에서는 명서아바이에 대한 성철의 체험세계를 두드러지게 그리면서 삶에 대한 그의 내면세계의 변화발전과정을 펼쳐보이고있다.

명서아바이가 전쟁시기 고향땅을 지켜 용감히

싸웠으며 오늘도 그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해간다는 것을 알게 된 성철이, 그는 어쩌서 아버지가 풀베기전투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가를 깨닫게 된다.

생활속에서 체험된 참된 행복에 대한 견해가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대목은 성철의 사상정신적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앞생활과 사건적으로는 논리적연계가 없다. 하지만 성철의 사상정신세계의 끊임없는 변화발전과정으로 줄기차고 일관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앞부분에 아버지의 꾸중에 대한 반감,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깔아 놓고 이 대목에서는 그와 대조되는 아버지에 대한 동정과 존경의 감정을 추구하면서 성철의 내면심리의 변화과정을 펼쳐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아버지가 술과 오이로 더위먹은 자기를 치료해줄 때 뜨거운 눈물속에 새세대에 대한 로세대의 사랑과 깊은 관심을 절절히 느끼는 성철의 사상정신세계가 인상깊게 안겨오는 원인으로 여기에 있다.

고향땅을 지켜 피흘려 싸웠으며 한생을 묵묵히 고향을 꽃피워가는데 바친 아버지에 대한 성철의 새로운 감정은 그대로 그의 내면세계의 변화과정을 뚜렷이 보여주면서 길남에 대한 체험세계로 이어진다. 그는 새세대들이 대를 이어 고향땅을 튼튼히 지켜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고 고향을 뜨려는 길남의 행동에 격분한다.

소설에서는 길남에 대한 주인공 《나》의 절절한 정서적느낌을 통하여 그의 내면심리세계를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이 대목에서도 사건의 논리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감정과 아버지의 믿음을 저버린 길남의 행동에 대한 격분, 이 대조되는 감정이 곧 그의 성격발전을 뚜렷이 보여주는 내면심리개방의 디딤돌로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작품은 성철의 길남에 대한 격분의 감정을 소설의 뒤부분에서 고향땅에 뿌리를 내리겠다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정혜에 대한 애뜻한 마음과 대조시키면서 고향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주인공의 절절한 느낌을 펼쳐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소설에서는 사건의 논리나 인물들간의 갈등이 아니라 주인공의 감정정서를 깊이 추구하는데 형상의 초점을 두고 1인칭소설의 특성에 맞게 주로 내면심리묘사를 통하여 주인공의 사상정신세계의 변화발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매우 짧은 며칠동안의 생활이 취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 고향땅을 빛내어나가는 그 길에 새세대의 참된 행복이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체득해가는 주인공의 사상정신세계의 변화발전과정이 감명깊게 인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내면세계의 변화발전과정에 대한 이러한 형상으로 하여 이 소설은 장편소설 《새봄》이나 《대지의 아침》 등과 같이 극성으로 충만한 사건과 생활이 주는 충격적인 화폭과는 달리 차분하고 은근하면서도 발랄한 정서적공감과 여운을 독자들에게 안겨준다.

만일 이 소설을 보고 일관된 갈등선이 없거나 사건선이 약하다고 해서 주인공의 사상정신세계발전과정이 뻔드름하고 단순하다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작품에 대한 물리해로 될 것이다.

이 소설은 우리 창작가들이 주인공의 감정세계를 파고들어 그에 기초하여 내면세계의 변화발전과정을 그려내면 작품이 생활을 정서적으로 펼쳐보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소설은 묘사를 특색있게 함으로써 작품의 정서적색깔을 돋구고 있다.

소설은 묘사의 문학이다.

묘사는 소설작품의 정서성을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인공의 내면심리에 대한 묘사는 작품의 정서적양상을 살리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내면심리묘사는 주인공의 감정정서를 표현하는 직접적인 형상방법이다.

우리의 일부 소설들에서는 인물의 외적인 행동은 잘 그리는데 상대적으로 내면심리묘사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 내면심리묘사를 성격적특성과 생활에 맞게 그리면서도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묘사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이 경우 작품에 펼쳐진 생활은 무미건조하며 정서적색채가 뚜렷할 수 없다.

1인칭소설에서 주인공의 내면심리묘사에 형상의 각광을 돌리는 것은 옹당한 일이다. 이 소설은 주인공의 내면심리를 짙은 정서적향기가 풍기게 묘사하고 있다. 다감하고 발랄하면서도 내성적이고 사색적인 주인공 《나》의 성격적특징과 생활에 맞게 그의 내면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명서아버지와와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성철의 내면심리에 대한 묘사가 그 좋은 실례로 된다.

명서아버지와 성철이, 로세대와 새세대와의 관계에서 우려나오는 심리는 매우 딱딱하게 될 수도 있다. 나이상으로나 생활적으로 그들사이에는 많은 거리가 있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성철의 내면심리를 그의 성격적특징과 생활에 맞게 진지하게 추구하면서 감정정서가 흐르게 묘사하고 있다. 아버지의 상처자리를 두고 가슴아파하면서 자책에 잠기는 성철의 심리에 대한 묘사나 더위먹은 자기를 치료해주는 아버지의 웅심깊은 사랑에 대하여 절절히 느끼는 성철의 심리, 앓아누운 아버지를 걱정하는 성철의 심리에 대한 묘사들은 다정다감하고 내성적인 성철이의 성격적특징에 맞는 것들이다.

성철은 고향을 떠나는 길남에 대하여 본격해하면서 자기자신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아با이를 너무도 모르고있었다. 그가 입은 상처뿐아니라 마음의 피로움도 모르고 그를 도와드릴 대신에 오히려 그 아픈데를 찢러 그를 더욱 피롭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아바이는 그 모든것을 묵묵히 새겼고 몹시 편치 않을 때 쓰려고 두었던 술까지 나에게 먹이며 더 위먹은 나를 오히려 위로하지 않았던가!》

아바이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생각은 얼마나 깊은것인가.

이처럼 소설에서는 명서아바이와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내면심리를 성철의 성격적특징에 맞게 추구하여 진실하게 묘사하고있다.

때문에 성철의 아바이에 대한 내면심리묘사에서는 인간애와 인정미가 넘치는 감정정서가 흐르는것이다.

소설에서는 정혜에 대한 성철의 내면심리묘사에도 힘을 기울이였다.

정혜가 고향을 떠난다는 말을 듣고 함께 지낸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중학교때 눈물을 머금고 조국에 대한 시를 읊던 때를 돌이켜보는 성철의 심리, 정혜가 군고등농업전문학교로 떠날 때 그와 함께 흙냄새 구수한 땅을 갈고 씨를 뿌릴 앞날을 그려보는 성철의 심리 등은 주인공의 다감하면서도 문학적소질이 있고 꿈이 많은 성격적특징에 맞게 묘사된 심리들이며 밝고 낭만적인 정서가 흐르는 심리들이다.

소설에서는 마을사람들에 대한 성철의 심리를 향토적인 정서와 인간애로 충만된 정서가 흐르게 묘사하였다.

작품에서는 향토적인 체취가 풍기는 마을사람들의 성격을 주로 풀베는 로동속에서 묘사하였으며 달빛흐르는 산촌의 잔디밭우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정황에서 묘사하였다. 이는 정서적인 묘사를 할수 있는 전제로 되었다.

소설에서는 일도 잘하고 마음이 후더분한 택만 아저씨에 대한 성철의 내면심리도, 고향에 대한 애착을 지닌 동수에 대한 성철의 내면심리도 다 그들의 향토적인 성격적특징에 대한 묘사와 결부되어있는것이며 감정이 예민하고 다감한 성철의 성격에 맞는것이다.

소설의 마감부분에서는 하루일을 끝내고 개울가 잔디밭에서 행복에 대한 론의로 열을 올리는 마을사람들의 모습을 펼쳐보이면서 성철의 내면심리를 이렇게 묘사하고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내 고향사람들인가, ...지금도 저기서 낫을 갈고계시는 최명서아바이며 고향의 하늬처럼 맑은 눈을 가진 정혜며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마음 후한 택만아저씨며 향토적이고 성실한 동수며 까박을 붙이기 좋아해도 일에 들어가서는 양보를 하지 않는 익조동무며 유쾌한 프락프르분조장 창식이며 이번 풀베기

에 나와 어쩔수없이 자신을 단련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습강스러운 정호동무며... 이 풀베기군들, 우리 작업반원들이 사랑스럽지 않단말이나.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귀중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며 얼마나 좋은 계곡의 밤인가. 여기서 살며 일하는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데 있으랴.》

성철의 고향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짙은 향토적인 정서속에서 안겨오는 묘사이다. 이는 산촌의 정취에 어울리는 마을사람들의 성격적특징에 대한 묘사와 이어진것이며 다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철의 성격적특징에 맞는 묘사인것이다.

이처럼 주인공 성철의 성격적특징에 맞게 내면심리가 묘사됨으로써 고향에 대한 사랑을 깊이 간직해가는 성철의 성격이 진실하게 느껴지는것이며 소설에는 향토적인 정서가 진하게 풍기는것이다.

이 소설에서는 심리묘사뿐아니라 자연묘사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있다.

소설작품의 양상을 뚜렷이 살리는데서 자연묘사가 노는 역할은 무시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자연묘사를 적당히 빈구멍을 메꾸는 식으로 한다면 묘사대상이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일지라도 또 그것을 아무리 섬세하게 묘사한다 해도 작품의 정서성을 보장하는데 별로 의의가 없다.

창작가의 진지한 탐구를 거쳐 묘사된 자연만이 주인공의 성격형상에 복종될수 있으며 작품의 정서적향기를 돋구는데 이바지될수 있다.

이 소설에서 자연묘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소설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연묘사의 묘사대상들은 희귀한것이 아니며 농촌에 가면 누구나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산골짜기, 맑은 개울물, 우짖는 새소리 등이다.

또한 소설에서는 자연묘사의 대상들을 이것저것 잡다하게 끌어들이지 않고 비슷한 대상들을 반복묘사하고있다. 피팔새의 기묘한 휘파람소리, 붉게 타는 나리꽃, 쉬임없이 주절대는 개울물, 비온뒤의 활기띤 골짜기, 산촌의 새벽정경...

그러나 소설에서는 자연현상들이 반복되어 묘사된다는 느낌도, 따분한 감도 주지 않고 생신하고 산뜻한 맛을 주면서 정서적향기를 풍기는것이다.

그것은 주인공의 내면심리, 감정의 흐름과 밀착시켜 자연묘사를 한데 있다.

소설에서는 무엇보다도 주인공의 사상정신세계발전의 계기들을 옹게 탐구하여 자연묘사를 하였다.

소설에서는 풀베기전투에 성실치 못하다는 아바이의 꾸중을 두고 깊은 생각에 잠긴 성철을 보여주는 대목에서 산촌의 저녁묘사를 이렇게 하고있다.

《나는 개울물을 바라보고있었다. 계곡을 흘러

내리는 개울물은 비가 내릴 때보다 더 불어나 잡디밭에까지 넘실넘실 차고넘쳐 소리치며 흐르고 있었다. 어둠속에서 그 개울물은 검은 룡이 꿈틀거리는것처럼 보였다. 하늘은 여전히 구름으로 덮여있어서 해저문 골짜기는 지금 내 마음처럼 침침하고 짙은 어둠속에 잠겨있었다.》

자연묘사는 자기의 결합을 두고 지난날을 돌이켜보는 성철의 내면심리와 이어지고있다.

이 자연묘사는 성철의 복잡하고 심각한 내면심리를 보여주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되고있다. 뿐만아니라 풀베기에 성실치 못한 자기 결합을 심각히 돌이키면서 새 결심을 안고 새벽을 맞았을 때인 비온뒤의 산골묘사, 길남이를 찾으러 나섰을 때 비내리는 산골짜기에 대한 묘사, 정혜가 떠날 때 비내린뒤의 해변에 대한 묘사 등은 잘된 묘사들이다. 이 대목들에서 자연묘사는 그 계기의 적중성으로 하여 자연묘사인것이 아니라 마치도 심리묘사인듯싶다. 성격형상에 효과적으로 이바지되고있는 이러한 자연묘사들은 소설작품의 정서성을 보장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내면심리에 맞는 자연현상들을 묘사대상으로 취사선택하여 묘사하고있는것이다.

소설의 마감부분에 성철이가 고향마을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있다.

여기서는 산비둘기들이 나는 골짜기, 어린시절을 보낸 영친강, 벼바다, 강냉이바다의 설레임, 저멀리 오가는 트랙터들... 이처럼 향토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자연현상들을 선택하여 성철의 내면심리와와의 부단한 교차속에서 자연묘사를 하고있다. 어데서부터 자연묘사이고 어데서부터 심리묘사인지 가려보기 힘들다.

성철의 성격과 내면심리적특징에 맞는 자연현상들이 묘사대상으로 선택되었기때문에 자연묘사가 안받침된 심리묘사는 매우 진실하게 느껴지며 향토적정서가 진하게 풍긴다.

성철의 성격과 내면심리적특징에 맞는 자연현상들이 묘사대상으로 선택되었기때문에 자연묘사가 안받침된 심리묘사는 매우 진실하게 느껴지며 향토적정서가 진하게 풍긴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자연묘사를 적중한 계기에서 하고있으며 성격적특징에 맞는 자연현상을 옮겨 선택하여 묘사하고있다. 이는 작가의 높은 묘사정신을 보여준다. 이 소설에서 자연묘사와 심리묘사는 작가의 높은 묘사정신과 진지한 탐구로 하여 작품의 정서적향기를 풍기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지나칠수 없는것을 언어구사에 관한 문제이다.

묘사의 기본수단은 언어이다.

소설에서는 수사학적질문과 감탄, 생략과 병렬법 등 시문장에서 많이 쓰이는 문장론적표현수법들을 적극 활용하고있다. 소설의 문장이 시문장처럼 음악적률조가 느껴지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또한 소설에서는 사색적인 은유보다는 감성적

인 직유나 의인법을 비롯한 형상적비유들을 능숙하게 활용함으로써 묘사의 간결성과 함축성, 정서성을 보장하고있다.

소설에서는 묘사에서 많은 형상적비유나 표현수법들을 활용하였지만 그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또 주인공의 내면심리의 많은 부분이 수산학적 질문과 감탄으로 되어있지만 조금도 그것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는 형상적비유와 표현수법들을 능숙하게 활용하였다는것을 말한다.

이상과 같이 중편소설 《세대》에서는 주인공의 감정변화에 기초하여 사상정신세계를 정서적으로 펼쳐보이고있는것으로 하여, 또한 주인공의 내면심리와 자연에 대한 진지한 묘사로 하여 작품의 정서성을 보장할수 있었다.

이 소설에서 풍기는 정서적향기, 그것은 부모들의 뒤를 이어 고향땅을 꽃피우려는 애국주의사상,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받들어나가려는 새세대의 고상한 사상정신세계와 결부된것이다. 이로 하여 이 소설은 독자들의 사상미학적공감을 받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쉬운 심정으로 이 소설의 결합과 부족점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수 없다.

소설에서 길남이는 성철이에게 심각한 내적충격을 일으키는 인물이다. 소설에서는 성철이가 그렇게 본격해하던 길남이를 아무런 심각한 계기도 없이 《정작 떠나고보니 그리워》서 스스로 돌아오게함으로써 길남이가 결합을 저절로 다 뉘우친듯한 인상을 가지게 한다. 그리하여 고향을 떠러는 길남이의 사상적결함을 두고 고조에 올랐던 성철의 감정은 여기 와서 단꺼번에 허물어지는것이다.

또한 아들의 그릇된 처사에 대한 명서아버이의 격정과 근심, 고충도 필요없는것이였다는감을 준다.

이 대목에 와서 독자들은 《별게 아닌걸 가지고 그랬군.》 하고 싱거운 웃음을 짓게 된다.

정혜의 경우도 그렇다. 정혜는 왜 고향을 떠러하는가? 정혜의 사상적결함은 무엇인가? 소설에서는 이 문제를 어물쩍 스쳐버렸다. 정혜의 사상적결함을 날이 서게 강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성철의 내면세계에 감정의 굴곡을 보다 깊이있게 지어줄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러한 결합들로 하여 소설은 웅당한 수준에서 그 철학적심오성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소설은 작가의 얼굴이 보이고 독특한 심리정서적양상을 띤것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읽히우고있는것이다.

특히 독특한 심리정서적양상을 띤 소설을 창작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와 탐구경험은 매우 귀중한것으로서 적극 장려되어야 할것이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원산수산사업소에서-

김형운

생어기를 맞이한 부두는 어디라없이 들끓는다.
나가는 배 들어오는 배, 바다에선 계주를 하듯
고기배들이 꼬리를 물었다.

부드러운 배 고동소리가 귀맛 좋게 울려온다. 큰
배는 《붕-붕-붕-》 작은배는 《보-보》

어린 소년단원들이 어로공들에게 꽃다발을 안
겨준다.

《뽕뽕뽕뽕》 나팔소리, 선동원의 야무진 목소
리...

하얗게 뒤덮인 갈매기들이 성사가 났다고 끼룩
끼룩 춤추며 날아돈다. 아마도 온 바다의 갈매기
들이 여기에 다 모여든것 같다.

배들이 고기 부릴 자리를 잡느라고 뽐빈다. 그
것들은 마치 《어서 자리를 내라. 왜 그리 늦으
냐?》 하는것만 같다.

풍어의 소식을 듣고 여기 원산수산사업소를 찾
은 우리는 쏟아지는 물고기폭포를 보니 마음이
흐뭇하다.

(저 많은 물고기를 어떻게 다 처리할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 고기부림장으로 가보
았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였다. 물고기들은
부리위지는 족족 수차를 타고 랭동실로 가공실
로 실려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물고기가공사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이 수산부문앞에 내세운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잡은 물고
기를 제때에 가공처리하는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
요하다.

우리는 먼저 랭동직장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뜨거운 열로 랭을 다룬다

사람들은 거의가 추위를 싫어한다. 그러나 랭
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열관리에 대하여 늘 신경을 써왔다.
하지만 랭관리에 대하여 더 머리를 쓰는 사람들
이 이곳에 있다.

우리는 물고기랭동에서 첫 공정을 담당한 압축
기작업반으로 들어갔다.

《원-》

기계동음소리가 나고 찬기운이 확 뿜졌다. 새
파랗게 도색을 한 압축기들이 넓은 공장안에 짙
들어찼다.

저압압축기, 고압압축기, 기름분리기, 어느 기
대나 흠집 하나없이 그쫌하다.

《잘 오셨습니다. 저 많은 물고기를 랭동하는데
서 우리 압축기작업반이 한몫하지요.》

작업반 세포비서 박호동동무가 반가이 맞아주
었다.

우리는 압축기운전공들의 작업모습을 바라보기
도 하고 생산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랭관리를 잘하는 모범적인 동무를 만
나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우리 압축기수리공 한문환동무를 자랑하고실
습니다. 언제나 부속품을 미리미리 마련해놓고
암모니아가스가 조금이라도 새나갈세라 압축기와
배관수리를 아주 신속정확히 하는 동무이지요.》

《그래요. 어서 만나봅시다.》

우리는 그가 누구일가 하고 한창 일손을 다그
치고있는 노동자들을 둘러 보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동무가 지금은 없습니
다.》

한문환동무는 랭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창
안을 하고 그 설비를 평북도에 있는 어느 한 기
계공장에 의뢰했었는데 며칠전 그것을 가지러 떠
났다는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곧 기계를 자동차에 싣고 돌아
섰다. 그런데 오는도중 자동차의 기관이 고장이
났다. 웬만한 수리소에서는 고치기 어려운 고장
이였다.

운전사는 어제 전화를 걸어 이곳 수산사업소에
서 수리차를 보내달라고 우는소리를 했다는것이
다.

그렇게 되면 일주일이 잘 걸릴것이다....

나는 그만 실망하고말았다. 그를 기다려 여기
서 일주일 이상 머물러있을수 없었다.

세포비서동무는 알른알른 윤기가 도는 압축기
를 가리키며 그것은 한문환동무가 못쓰게 된것을
원래대로 고쳐서 이렇게 새것처럼 만들어놓았다
고 했다. 그가 얼마나 기대들을 소중히 다루는지
기대를 망탕 다루던 동무들도 스스로 랭심의 가
책을 느끼고 모두 책임적으로 하게 되었다는것이
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압축기운전공들도 문환동지의 간진 일습씨를 배워서 이젠 돌발적으로 제기되는 수리를 자체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환동지는 말없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입니다.》

스물일여덟 나보이는 압축기운전공 김광모동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를 만나보면 이야기가 많을텐데...》

세포비서동무는 좀 섭섭하게 됐다는듯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때였다.

작업실문이 열리며 두사람이 동시에 들어왔다.

《문환동지가 오셨어요!》

김광모동무가 소리쳤다.

《아니, 일주일후에야 올거라더니?》

우리는 문쪽을 바라보며 병병해있었다.

한 사람은 한문환동무였고 다른 사람은 자동차운전사였다.

《어떻게 된일이요?》

세포비서동무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떻게 되긴요? 설비를 싣고왔지요.》

한문환동무는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수줍어하는 아낙네처럼 빙그레 웃고있었다.

운전사가 사연을 이야기했다.

그때 운전사는 머나먼 자기네 사업소에서 수리차가 올 때를 기다리면서 한숨만 쉬고있었다.

한문환동무는 앉지도 서지도 못하며 안타까와하더니 그곳 군소재지를 찾아갔다.

군자동차사업소에서는 타곳에서 온 차라는것을 알자 《길바닥에 지나다니는 차들을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맡아서 수리해 주겠소?》라고 말하며 자기네는 바빠서 못하겠다고 거절했다.

(저 사람들은 심장이 저리도 찰가.)

한문환동무는 마음을 다잡고 그들을 설복했다.

《여러분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눈내리는 겨울날 비오는 여름날을 가리지 않으시고 머나먼 동해기슭의 수산사업소를 찾으신 이야기를 알고있습니까?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한마리도 썩이지 말고 제때에 가공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었다는걸 아시는지요?》

알고있다면 어찌 이것을 남의 일로 보십니까?》

그러자 그곳 자동차사업소 수리공들이 호응해나섰다.

《어서 그 자동차부터 수리해줍시다!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네일 내일이 따로 있겠나요.》

그길로 수리차가 달려오고 기술자들이 달려왔

다.

《이렇게 해서 우리 차는 인차 올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에 한문환동무에게서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운전사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에겐 한문환동무가 더욱 돋보였다.

해벌에 그을은 철색의 얼굴에 기름묻은 작업복, 그의 모습은 별로 특별한데가 없는데 왜 그토록 돋보이는것일까!

한문환동무야말로 자기의 뜨거운 열로 랭을 다루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에게 묻지는 않았어도 그의 심장속에 깃들어있는 많은 이야기를 읽을수 있었다.

《우리모두를 소개해주시우!》

런속 투입! 런속 회동!

한쪽에서는 물고기들이 수차를 따라 들어오고 다른쪽에선 네모 번듯한 얼음짜이 되어 실려나간다.

랭동2작업반에 들어선 나는 노동자들의 일손이 몹시 빠르는데 놀랐다.

상하판이 절걱절걱 순식간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랭동판에 련이어 물고기들이 그득그득 담긴다. 운전공치너가 랭대발브 온대발브를 꾹싸게 돌린다. 규격화된 물고기작들이 콘베아를 타고 쉬임없이 흘러나간다. 지게차가 팔을 오르내리며 하나가득 담겨진 랭동물고기를 싣고 저장고로 급히 달려간다.

빠를수록 좋다! 고기의 질보장!

시간이 흐를수록 작업장에 신바람이 난다.

돌아가는 기계소리는 노래처럼 울리고 노동자들의 일손은 춤이런가싶다.

우리는 그들의 작업모습을 황홀하게 바라보다가 작업반장에게 말했다.

《모범적인 몇동무 소개해주시시오.》

최참남반장은 작업장을 둘러보았다. 기계운전공을 보기도 하고 수리공을 보기도 한다. 지게차를 보기도 하고 저장고쪽으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아느 한사람도 떼놓고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한참이나 작업장을 둘러보다가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고 빙그레 웃었다.

《우리모두를 소개해주시우!》

그는 기사였다

《여기에 들어가보지 않겠습니까?》

함께 다니던 사업소 기사동무가 우리를 멈춰세

왔다.

나들문꼭대기에 《3대혁명붉은기 첫갈작업반》이라고 쓴 간판이 걸려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눈앞에는 들어가보기도전에 벌써 식료상점매대에 소담스레 놓여있는 첫갈품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예로부터 우리 나라 아낙네들이 정성스레 김치를 담그고 고추장을 담그던 솜씨로 멸치나 새우 같은것을 차곡차곡 통에 담으며 빨간 고추가루를 치기도 하고, 파, 마늘 양념을 다져넣는 모습이 얼른거렸다.

그러나 여기야 뭐 특별히 볼게 있으랴 하는 생각으로 별로 호감이 가지 않았다.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알아챘는지 기사동무가 인차 말을 덧붙였다.

《사실 우리는 첫갈작업반을 더 자랑하고싶은데요. 이 작업반에선 지난 5월 20일에 벌써 연간계획을 끝냈답니다.》

우리는 작업장으로 들어갔다.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다는것을 깨달았다.

거기선 여러대의 첫갈기계흐름선이 사르릉사르릉 돌아가고있었다. 꽃타일을 붙인 바닥엔 티하나 떨어진것이 없는데 늘 깨끗하게 물로 닦아 무늬가 말끔하게 보였다.

하얀 위생복을 입은 녀성로동자들이 일손을 다치고있었다.

《겨울이면 우리는 명란젓, 창란젓을 많이 만들고 여름에는 멸치젓, 정어리젓임, 낙지젓, 게젓을 만든답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첫갈기계흐름선의 작업모습을 눈여겨보았다.

물고기들이 콘베아를 타고 들어와 세척기에 떨어진다. 깨끗하게 씻겨진 물고기들이 다시 수질인상콘베아를 타고 오르내리다가 양념혼합기속으로 들어간다. 먹음직스럽게 양념이 된 첫갈품이 수지통에 차곡차곡 담겨진다. 그러자 자동계량기가 정확히 무게를 달아내보낸다.

모든 공정을 다 기계로 한다.

거기엔 명란가공흐름선도 있고 창란가공흐름선도 있다.

《이 기계를 새로 도입하니 생산도 빨라지고 식료품의 위생도 잘 보장됩니다.》

우리는 기계수리공 김순삼, 김창호동무들과도 이야기해보고 가공에서 모범인 김애련, 신정순동무들과도 말해보았다.

《어떻게 올해 계획을 앞당겨 끝낼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물음에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똑같은 대답을 했다.

《그건 우리 작업반장동무한테서 들어보십시오.》

반장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공장안을 둘러보고있는데 저쪽에서 한 남동무가 분주히 오가며 나사를 조이기도 하고 기계에 기름을 주기도 하였다.

《저 동무도 수리공인게군요?》

우리가 기사동무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저 동무가 바로 작업반장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시금 기계를 다루는 작업반장동무를 눈여겨보았다.

《저 강석봉동무가 작업반장으로 배치된후 많은 기술혁신을 했습니다.》

기사동무의 말에 의하면 강석봉동무는 처음부터 작업의 자동화와 생산문화를 첫째 목표로 결고 일해왔다는것이다.

이미 못쓰겠다고 내버려두었던 기계들을 고쳐서 첫갈가공흐름선을 완성해놓았고 양념혼합기도 반장동무가 로동자들과 협력하여 만든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고기세척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30립방짜리 물통을 자체로 만들었다는것이다.

그가 작업반원들과 한 일은 많았다.

그런 일을 해내느라니 곤난인들 얼마나 겪었으랴.

우리는 강석봉작업반장동무를 만나 물었다.

《반장동무는 어떻게 이런 일을 다할수 있었습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알지 못하구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할수 있나요. 나는 작업반장일을 맡아하려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잠시간이면 수산대학 교재를 들여다보군했습니다.》

자기가 기술을 좀 알게 되니 확신을 가지고 내밀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오늘 우리 일꾼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은 이런것이다.

나는 강석봉동무에 대하여 잊지 않으려고 취재수첩에 이렇게 써넣었다.

《작업반장, 바로 그는 기사였다!》

포구를 떠날 때

김정곤

포구를 떠날 때는
빈배우에 몸을 실었어도
가슴엔 가득히
안고가노라

저 사업소유치원 디딤대우에
손을 짓는 아이들
그 애어린 손들이 바라는
천진스러운 부탁을

첫물오이를 따서 갑판에 보내준
순박한 녀인들과
그물코를 하나하나 세이며
전투장구인듯 어구를 갖춰준
그 후더운 마음들을

안고가노라
멀리 산굽이너머 사라지는 기적소리도
이 가슴을 흔드는 그 무슨 당부인듯
아득히 멀어지는 푸른 논벌도
뜨거운 속삭임소리로 내 마음에 물결쳐오고...

아, 파도 높아갈수록
흔들리는 배전에
가까이 따라오는 그 손들과
조국이 뿜는 그 숨결이
파도보다 더 높이 이 가슴에 뛰나니

빈배로야 어찌 돌아가라
억만고기때 안아올릴 팔뚝은
물결에 부서지는 해빛에 번쩍이고
사나이 가슴들엔 벌써
온 바다가 설레인다

포구를 떠날 때는
물에서 불어오는 한줄기 바람도
따라서며 날 바라는
그 무슨 정깊은 숨결인듯
내 누구와 딱히
기약한 일 없어도
누구라없이 맺은 언약이
내 온몸에 벅차게도 실리여라
포구를 떠날 때는...

어로공의 마음

전찬기

간물에 절고, 장알 크게 박힌 두손
그 손이 신다면
쉬는만큼 잡은 물고기 적어질것이고
그러면 바다사람 의리를 어찌 지키라고

자나깨나
그 한생각으로 산다
갑판장 최아바이
수령님을 짧은날에 만나뵈온 그

만나뵈온 그날에
수령님 쓸어만겨주시던 그 두손
그 손을 내 어루만져볼 때면
그날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러왔어도
어제이런듯 가슴속에 넘쳐나는 걱정으로
바다를 통채로 걷어안는다는 그

사날만 땅을 밟아도

멀미가 일어
물사품 사나와도 바다가 좋고
담배맛도 바다에서만 좋다는 그 성미

망망한 물결우에
몇백발 후리줄 늘이면서도
온 바다를 통채로 후려냈으면
그 직성이 풀리겠다고...

키는 크지 않아도
한뼘 바다에 살아
생각도 바다처럼 커졌던가
어장이 넘쳐나야만 웃는 그 마음
그 마음 사철 바다에 산다
인민의 식탁을 맡겨주시던
그날의 그 영광, 그 믿음에
의리를 지켜 보답을 하려는
그 한생을 간물에 잠그고 바다에 산다

취재길에서 만난 녀인

김귀선

내가 열차에 오르자마자 기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자리를 잡자 이내 창탁우에 원고지를 펴 놓았다. 방금 헤어진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이 북부철길공사에서 이룩하고있는 험격한 성과에 대한 기사를 일른 쓰고싶었기때문이다. 래일아침 도착하면 편집에 넘겨야 할 기사이니말이다. 그런데 어찌하랴, 한자도 쓸수가 없으니.

이번 출장길에서 만났던 그 녀인의 모습이 이렇게 나를 사로잡을줄이야...

그제였다.

북부철길공사장으로 취재길을 떠난 나는 어둑 새벽 금구역에 도착했다. 그런데 동안리행 배스가 떠나지 못한다는것이였다. 간밤에 차창을 때리며 불어대던 눈보라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있었던것이다.

나는 생각하던끝에 동안리로 향하는 고개길을 물어서 걷기 시작했다. 질려간다는 돌고개어구까지는 퍼그나 걸어서야 들어서게 되였다. 새벽길을 시작할때문인지 나는 얼마 걸지 못하고 헉헉 가쁜숨을 쉬며 허덕거렸다. 하긴 한참 눈보라를 뒤집어쓰고나면 제발자국도 간데없이 사라지고 가야 할 방향이 어느쪽인지조차 분간할수 없어 그냥 제자리를 돌아치다나니 진맥이 빠질수밖에 없었다.

나는 더러 무섭증까지 났다. 우중충한 밀림은 아직 저만치 멀리 있고 말그대로 반반한 돌고개이긴 하지만 온통 하얀눈무지속에서 꾸물꾸물 움직여가는건 나 하나뿐이였기때문이다. 그러니 이젠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어쩔수 없어 나는 그만 멍하니 서서 뒤를 휘둘러보기도 하고 또 넘어야 할 고개길을 가늠해보기도 했다.

그런데 저앞에 아직 해뜨기전 푸릿한 새벽빛속에 검스레한 그 무엇이 고개턱을 향해 움직여가는것이 눈에 띄였다. 눈을 비비며 아무리 봐야 무슨 짐승 같지는 않고 규칙적으로 움직여가는 모양이 분명 사람인것 같았다.

나는 무척 반가왔다.

어떻든 따라잡고싶은 충동에 나는 생눈을 마구 헤치며 고개턱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생각

보다 빨리 따라잡게 되는것이 또 이상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아닌게아니라 그 사람도 뒤쫓아 오는 나를 기다리느라 그자리에 주저앉아있었던 것이다. 그도 아마 나와 같은 심정에서 그런것 같았다.

뜻밖에도 그는 목도리를 감은 녀인이였다. 얼마나 기쁜지 순간에 우린 벌써 구면친구가 된것 같았다.

《비는 그어가고 눈은 맞으며 가렸다고 눈길엔 앓지 말아야 해요. 어서 일어나세요.》하고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내 손에 매달려 일어나는 그 녀인은 등에 나무짐을 져고 또 랑손에는 커다란 보통이를 하나씩 들고있었다.

《아니, 산골로 오시면서 나무는 왜 지고 오십니까? 이렇게 보따리가 클 땐 딸네 집에 다녀오시는 모양이군요. 딸이 꾸려준 보따린 며느리가 꾸려준 보따리하군 다르다면서요?》

내가 장갑을 벗어들고 그의 몸에서 눈을 털어 주는데 물색고운 등색외투에 연한 하늘빛 목도리가 선명히 나타나면서 둥실하고 혈색좋은 중년부인이 어쭙게 웃고있었다. 흰 눈몽치가 돼버린데다가 보따리 차림새가 그러니 늙은이일것이라고 속단했던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이! 어찌면...》

가방으로는 당초에 안되겠기에 이렇게 보따리를 싣더니...》

그 녀인은 벌써 자기가 늙은이로 보였다는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변명하는것이였다.

《호호호... 정말 그 모습에 그 보따리가 어울리지않는군요.》

《호호호...》

우리는 한참이나 웃어댔다.

어느새 아침해가 퍼져 그 을씨년스럽던 차거운 눈무지우에 분홍빛 노을이 곱게 물들어가고있었다. 바람도 한결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뭘니까? 나무는 왜?...》

《네- 저- 이건, 삽자루가 되겠는지 해서...》

《그럼 어디로 가시는?... 어디서 오시는길인데?...》

나는 알고싶은게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전 저 강원도에서 옵니다. 여기 고개너머 철

길공사장에 딸이 속도전돌격대에 있습니다.》

《아이 그래요? 저도 그리로 가는데...》

《그래요?》

우린 서로 통성을 하며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나는 억지로 그의 보따리 하나를 빼앗아들었다.

고개를 톳아 얼마쯤 올라간 우리들앞에 두갈래 길이 나타났다.

《어찌나? 이렇게 갈림길이 있을줄은 모르고 자세히 물어보지 못해서...》

내가 걱정을 하자

《저, 금구리아래 동안리쪽으로 뻗어가는 철길이니 공사장으로 가자면 이 아래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는 자신있게 왼쪽으로 갈라지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었다.

《이 근방에 와본 일이 있습니까?》

《네, 작년에 왔었어요.》

《작년에 오시고 또 이렇게...》

《네, 꼭 1년이 됐군요. 그때도 설밭이어서 눈이 강산같이 쌓였더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제일 추운 때마다 힘든 걸음을 하십니까? 좀 따뜻하면 다녀가시지요.》

《자식일이란 그렇지 않은가봐요.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지내는지 해서 일부터 이맘때를 택해서 휴가를 받은걸요.》

《...》

나는 풀수 없는 의문으로 점점 호기심이 났다.

《미안하지만 무슨 일을 하시는가요? 참 전 정순임이에요. 금성청년출판사 기자랍니다. 북부철길공사장에 취재길로 가지요.》

《그래요! 전 림경숙이에요, 시병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통성을 다시 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는 또 그의 등에 진 나무를 가리켰다. 어쩔지 그 나무집엔 무슨 사연이 있을듯싶었기때문이었다.

《제가 작년에 와보니 삽자루가 하루에도 몇개씩 부러져나가더군요. 그래 이번엔 좀 아예 마련해가지고 떠났습니다. 하긴 큰 전설장에 삽자루가 모자라진 않겠지만... 그리구 이진 장갑이랑 두루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는걸 꾸렸더니 이렇게 부피가 굉장하군요. 이젠 주세요, 제가...》

《일없어요. 그 값으로 딸에 대해서 그저 생활

애기나 들려주세요. 직업이 돼서 그런지 무척 남의 얘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짐은 벌써 말렸으니 그 값은 무조건 물어야겠군요. 그런데 그 값은 별나군요. 이야기로 물다니요. 호호호.》

《그건 아주 특별한 값이지요.》

우리는 어느새 고개턱에 올라섰다. 이제부터는 우중충한 밀림이 시작되었다. 아침해가 벌써 퍼그나 떠올라 온 천지를 비쳐주고있어 양지쪽의 눈을 녹이기 시작했다. 이름모를 새들이 그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지 끝없이 조잘댔다. 이따금 나무아지들이 녹아내리는 눈무게를 이기지 못해 꺾어지는 소리가 딱 하고 들려오기도 했다.

우리는 눈이 녹아버려 거뭇하게 드러나는 너럭바위우에 기여올라가 쉴 차비를 했다.

여전히 호기심에 동해있던 나는 그에게서 얘기를 끌어내고싶은 충동으로 또 묻기 시작했다.

《돌격대원인 딸은 만팔인가요?》

《네, 만이도 되고 막내도 되지요. 외동딸인걸요, 재작년에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왔어요.》

《그래요?!... 외동딸을 남다르게 키울 땐 무슨 깊은 사연이라도 있는게지요?》

림경숙은 나를 이윽히 지켜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기자선생님, 전 그 애를 키우면서 어머니로서 내가 할 일에 대해 별로 생각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커가는 그 재롱에 웃음으로 언제 세월이 흘러가버리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다 키워놓은 땀 정말이지 한꺼번에 천만가지 생각을 하느라구 갈피를 잡지 못하겠더군요. 하나밖에 마련하지 못한 기동감이니 어데다 세우면 좋을가? 쓰지 못할 기동은 아니겠나? 해서말이에요. 딸이 돼서 그런지 뉘집 아들 못지않게 세우고싶은 욕심이 나더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정말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밖엔 몰랐어요. 의사가 돼서 그런지 그저 진찰을 하고 신체에 이상이 생긴데만 신경을 쓰는것밖에는 아무 관심도 가질줄 모르는 녀자였어요. 더욱 사회적 관심에선 그랬답니다. 그래서 애아버지는 나를 우물안의 고기도 못되고 어항속의 고기라나요. 늘 <우리 집 금붕어>라고 하시곤했어요. 그러면 예봉인 손뼉을 치며 좋아했답니다. 자긴 새끼 금붕어라구요. 그 애 아버지인 하 어이없어 한잠이나 웃더니 <넌 제발 어항속의 금붕어가 되지 말

고 바다속의 큰 고기가 되여라.> 하시더군요. 우린 둘이 입을 모아 어항속의 금붕어가 더 좋다고 주인에게 응석을 부렸지요.

우리 집 주인은 건설기사였어요. 가끔 나가계셨지요. 그때마다 전 투정을 했답니다. 제가 응석 꾸러기여서 주인은 몹시 애가 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별명을… 참 생각하면 철이 없었다고 해야 할지 그런데 남편은 심장마비로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그는 나직이 한숨을 쉬며 지난날에 대한 자책으로 두눈을 가늘게 찌프린채 먼 하늘가를 바라보고있었다.

한참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한 그의 목소리는 더욱 가라앉았다.

《혼자 그 애를 키워가면서도 별다른 생각이었지요. 살아가는거야 뭐 남편이 있든없든 우리 제도에서야 별 타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애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게 될 때 정말 그 애의 진장문제를 놓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애아버지가 몹시 그러더군요.》

그때의 가지가지 일들을 더듬는것이 피로운듯 멀리로 향한 그의 눈가엔 이직 보이지 않던 잔주름이 초름히 잡히는것이였다.

《…소년회관에서는 그 애를 무조건 예술부문학교에 보내자고 하고 학교사로청지도원들이랑 많은 선생님들은 그 애가 탐구심도 많고 공부를 잘하니 대학으로 보내서 과학자로 만들자고 하더군요. 또 사람들은 어머니의 좋은 직업을 왜 물려주지 않겠느냐고들 하구… 그런데 나에겐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은 일이 있었답니다. 예봉이가 중학교에 갓 입학해서였어요. 하루는 문득 이렇게 말하는것이였어요.

<어머니, 우리 아버지진 왜 건설기사가 되였됐나?>

<아니, 왜?>

<우리 아버지도 남순이 아버지처럼 배우가 좀 될것이지.>

<예봉아, 그렇게 생각하면 못써! 아버지진 제일 훌륭한 일을 하셨더랬다.>

<음- 맨날 출장만 가셨는거, 그래서 엄마두 싫다구 하구선. 남순이 아버지가 예술학교에 미리 다 말해놓았대요. 그렇지만 난 혼자서두 불을 자신이 있어요.>

아! 내 무슨 일을… 나는 그 무엇이 가슴에 맺혀와 그만 억이 막혔습니다. <난 진짜 남순이 아

버지가 부러워요.> 예봉인 한마디 더 하더군요. 머리꼭대기에 부은 물이 어디 가겠어요. 발뒤꿈치까지 흐르게 마련이 아니겠나요. 일박에 모르시던 것처럼 성실하시던 그이앞에서 늘 불평만 부렸던 내 죄가 그렇게 예봉을 불효자식으로 만들게 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생각할수록 내자신에 대해 원망스러웠어요. 나는 그때부터 돌아가신 남편앞에 그리고 조국앞에 나라는 인간을 다시 세워보게 되더군요. 기자선생님, 우습지요? 글썄 남편에 대한 그 죄스러움이 조국이라는 그 엄청나게 큰 의미로 번져갔으니말이에요. 그 후부터 전 텔레비존을 볼 때도 화보를 한장 뒤질 때도 째미 있는대로 그 애한테 얘기해줬지요. 아버지가 하시던 일에 대해서, 날로 웅장하게 일떠서는 조국의 모습에 대해서…그랬건만 정작 졸업을 앞두고 진장문제를 놓고 토론하면서도 그 애 입에선 건설부문학교로 가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지 않겠나요. 하긴 그 애가 가지고있는 천성적인 재간은 너무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와 난 처음 그 애 이름을 지을 때도 싱갱이를 했답니다. 아버지는 첫 자식이니 건설자인 자기뒤했을 잇게 하시겠다면서 거기에 맞게 이름을 고르더군요. 나는 또 지지 않고 주체예술의 상상봉에 오르라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 예봉이라고 짓자 했지요. 그 애 생김새가 남다르니 꼭 배우감이 틀림없다고 인정한 주인도 할수없이 그날 내 의견에 동의하시더군요. 그대신 건설자인 자기뒤했을 이을 예봉이동생은 꼭 날겠다는 약속을 하는 조건에서 승인하는것이러나요. 그래서 그런지 그 앤 노래와 춤을 떠난 그 어떤 자기 희망을 생각조차 해보려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해가 흘렀어요.

어느 쉬는 날이였어요. 그날까지 학교에서 최종희망을 써오랬다기에 나는 나무를 꽤다 말고 곁에 다가온 그 애에게 물었어요.

<그래 예봉인 꼭 어디 가고싶으냐? 네가 어디 결심을 해보렴.>

<난 음악무용대학에 갈래요.>

<그래-? 어머니가 그만큼 애길 해줬는데도 너는…>

그러지않아도 아침부터 별로 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마음이 별스러웠던 나는 예봉이가 자기 진장에 대해 결심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것을 보자 내 자신을 지탱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괴롭더

군요. 어느새 쳐들었던 도끼를 정신없이 내리쳤습니다. 발등이 뜨끔하더군요. 예봉이가 소리치는 바람에 정신이 들었으나 갈라진 발등에선 벌써 선지피가 솟았지요.

진료소에서 달려와 치료를 하고 갔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방안에 불을 밝혔으나 마음속에 스미는 아픔은 덜어내지 못했어요. 예봉이가 곁에 앉아있었지만 나는 왜선지 인적없는곳에 홀로 버려진것처럼 외롭고 쓸쓸했어요.

남편이 못견디게 그리워지면서 눈물이 솟구치는것을 어찌지 못하겠더군요. 아마 상처가 심하지만 않았다면 그 밤으로 남편의 봉분을 찾아가 그우에 쓰러져서 실컷 울었을거예요.

<어머니, 발이 몹시 아프나?>

예봉이가 조심히 보더군요.

<아니... 아픈걸 모르겠구나.>

<상처가 이렇게 큰데두?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생각을 하지요?>

<그래, 아버지 생각을 했다. 마지막 떠나시기 전날 아버지 나무를 패주고 가지지 않았니...>

몇해전 그날, 내가 또 집을 떠난다고 불평을 했더니 애아버진 온 나라 인민들을 온수난방아파트에서 가스콘로를 쓰며 살게 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구상을 꺾어워가는 영예로운 일을 맡아하는 남편을 둔게 얼마나 좋으냐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 예봉일 보고 말하더군요.

<예봉아, 아버지가 또 출장을 간다고 네 엄마 얼굴에 뿔이 또 뿔어갔구나.>

<해해해, 뿔? 뿔이면 쳐야지.>

예봉이까지 맞장구를 쳤어요.

<아니다. 어머니<뿔>은 웃겨서 터뜨려야 하는 거다. 아버지가 이번 출장을 갔다와선 바다에 놀러가자, 배두 타구 좋지?>

<야! 좋다, 정말?>

<그럼 정말이지. 그때 우리가 어머니 저 <뿔>을 터뜨리자.>

<광하구 터지나?>

<그래 광 터뜨려놓자.>

<싫어 싫어, 그럼 엄마 죽는데...> 예봉이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인 애를 달래시느라고 한참이나 찼찼 매시더군요. 예봉이를 겨우 얼려서 밖으로 내보내시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씀했어요.

<저 애 눈에 당신이 그대로 비칠가봐 정말 큰

심스럽소.>

나는 더 앵돌아졌어요.

덤덤히 앉아계시던 주인은 창고에 나가 나무를 패기 시작하시였어요. 나는 그 나무를 다 펴 때까지 한번 내다보지도 않았답니다.

<어데다 쌓아놓을가?>

<...>

<자, 어데다 놓으면 편리하겠는지 빨리 지령을 내리우.>

나는 그래도 대답 한번 안해줬답니다.

이튿날 떠나실 땐 또 어찌겠어요. 예봉이가 재잘대겠지요.

<엄마 광하구 터뜨리자구 하는거 난 아버지편 안할래, 엄마편할래요.>

<허허허... 안되겠는걸. 빨리 예봉이 동생을...>

<내 동생?>

<오, 네 동생이다. 아버지편이지.>

<야, 그런데 어데 있나?>

<이제 돈을 주고 사오지.>

<빨리 사오자!>

<그래, 아버지 출장갔다 꼭 사올게.>

그러시면서 저를 보고 눈을 끔뻑해보이시던 모습이 지금도 전해요. 그렇게 떠난 사람이 어찌면...

지난 일을 되새기며 예봉이를 지켜보던 나는 그애한테 이렇게 말했지요.

<예봉아, 네가 정말 다 자라가지구두 진짜 아버지편이 못되는구나. 아버지가 아시면 얼마나 섭섭해하시겠니.>

예봉인 내가 더 말을 못하게 얼른 제손으로 내 입을 막아놓더군요. 하지만 나는 그 애손을 꼭 잡고 말을 했어요.

<언젠가 넌 아버지가 배우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했지. 그 어데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당의 뜻을 진심으로 받드는 길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칠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것을 어머니도 늦게야 알았구나. 아버지 이 시대에 떳떳하구... 정말 훌륭한 사람이였다.>

그 애의 두눈엔 눈물이 펑 돌더군요.

<하긴 나도 니에게 이런 말을 해줄 자격이 없다. 예봉아- 어머니 정말 아버지를 한번만이라도 다시 볼수 있었으면... 정말이지 용서를 빌고싶다...> 그건 내 진심이였지요.

예봉은 내 목을 끌어안더니 흐느껴울더군요.

나도 참았던 울음을 실컷 울었어요.

그후 며칠이 지나서였어요. 저녁녘에 예봉이가 병원으로 왔더군요.

<어떻게 왔니?>

나는 눈이 둥그래서 물었답니다. 유치원때 따라다니고는 별로 찾아온 일이 없었던 애였으니까요.

<퇴근하는 어머니하고 같이 가려구요.>

이렇게 대답하는 그 애의 기색은 레사롭지 않더군요. 그 애한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걸 느꼈어요. 서둘러 병원문을 나서며 물었지요.

<어떻게 된 일이나?>

<어머니... 난 속도전돌격대에 가겠다고 지망했어요. 학교사로청에서도 지지해주었어요. 전...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랑...>

그 애는 말끝을 채 맺지 못하고 울먹이더군요.

<아니? 네가 돌격대를 말이나?>

나는 멍청히 가던길을 멈춰선채 물었지요. 다리가 후들거려 다음말이 나가지 않더군요. 나는 얼마동안을 그러고 서있다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게 정말이나?... 꽤 해낼만 하겠니?>

<...>

<네가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어? 난 그저 네가 건설부문학교에라도 갔으면 했던건데. 네 희망대로 예술부문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어느 부문에 가든 그곳에서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달린거지. 내가 전번에 너를 타이른건 그저 당에 충실했던 아버지의 그 뜻을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하겠기에 그랬던거다.>

기자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그때의 심정을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지 모르겠군요. 내판엔 그렇게도 예봉이한테 애타게 호소하던 일이었지만 정작 당하고보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 순간 저는 지난 전쟁시기에 돌아온다고 기약할수 없는 길로 자식들을 떠나보내면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은 이 땅의 그 많은 어머니들을 생각했어요. 기자선생님은 그 순간을 어떻게 상상해보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마음을 굳게 가지느라고 무척 애를 썼답니다.

예봉이가 오히려 내 두손을 꼭 쥐더니 나에게 힘을 주는게 아니겠어요.

<엄마, 내가 꼭 해낼게요... 엄마두 마음을 굳게 가지셔야지 뭐.>

정말 고맙더군요.

<엄마, 물론 예술부문도 좋아요. 하지만 난 이 전처럼 철없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예술에서도 성공할수 없다는것을 알았어요. 난 요사이 아버지에게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돼요. 아마 이제부터 철이 드는가봐요. 오늘로 화보에서 김철확장공사 건설장이랑 태천발전소랑... 웅장하게 일떠서는 그 모든걸 보니 아버지를 만난것 같은게 마음이 막 별렸어요. 그러구 이런 생각이 났어요. 당에서 그 모든걸 계획할 때 먼저 우리 청년들을 생각했을거라고요. 그러니 응당 어깨를 들이밀어야지요. 그렇지요? 어머니!>

<우리 예봉이가 정말 용쿠나!>

나는 정말 그때 온 세상에 대고 내딸이 이런 딸이라고 소리쳐 자랑하고싶었답니다.》

림경숙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는 풀어놓았던 목도리를 털어서 다시 쓰며 서둘러 일어섰다.

나도 하는수 없어 그를 뒤따라 일어나며 말했다.

《자식을 위해서도 조국앞에 성실해야 한다는것은 정말 귀중한 진리지요. 예봉이 아버지인 경숙동무의 가슴에 참으로 귀중한걸 남기고 가셨습나다.》

《그런데 남편의 념원이 헛되게 될가봐 겁이 나요.》

《아니, 왜요? 예봉이가 이젠 당당히 체구실을 하지 않나요.》

림경숙은 앞서가던 걸음을 늦추고 나란히 서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떠나던 날이었지요. 예봉이가 이웃층 집집마다 다니며 인사를 하고 내려오기에 내가 준비했던 배낭을 들고 복도문을 열러는데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어요.

<별일이 다 있지, 자식이라고는 그 하난데 어찌자고 부디 그 힘든 일판으로 보낸다우?>

<그러게말이요. 그 집이야 도와주는 사람 많겠다 또 그 애가 공부룰 못하우, 재간이 없소. 그 아까운 인물에 쫓쫓쫓... 무슨 일인지 모르겠수.>

<듣자니 예봉이 아버지의 부서사람들까지 무척 애를 썼다나봅디다. 그래두 제 에미가 한사코 저런다질 않수... 원 알다가두 모르겠수다.>

우리 집 애기더군요. 나는 터져오는 가슴을 누르며 문가에 나섰어요.

복도에는 아주머니들 몇이 모여있더군요. 그런데 이때 인민반장을 하시는 첫째네 할머니가 나서질 않겠나요.

할머닌 목이 메어 말씀하시더군요.

<아니네, 예봉 예미! 이야는 못내놓겠네. 내가 사정을 하자구 응? 어릴적부터 탁아소,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내 이 손에서 큰 애가 아닌가. 정말 어쩌면 예미숙은 그렇게도 매정스레 생겨먹었다 말인가.>

나는 할머니의 어깨를 쓸어안고 사정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왜 그 신세를 모르겠어요. 우리 예봉인 그 값을 하려고 이렇게 장한 걸음을 간담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쉽고 좋은 일자리만 고르면 힘든곳에는 누가 서겠나요. 우리 당이 내세운 웅대한 건설계획은 누가 실행하구요. 애아버진 일생 성실하게 당의 뜻을 받들고 살았는데 그 정신을 이어줘야지요. 그렇게 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런답니다.>

할머닌 내 말에 치마꼬리로 눈굽을 찍더군요.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우릴 떠밀어주세요. 그러지않아도 전 자꾸 마음이 약해지려구 해요. 할머니!>

반장할머닌 눈물을 닦으시더니 아무 말씀도 없이 내게서 배낭을 빼앗아드시고 앞서시더군요. 전 정말 그러시는 반장할머니가 얼마나 고맙던지 제게 큰 힘을 주시였어요. 복도에서 떠들던 아주머니들은 어느새 슬그머니 다 없어지고말았더군요....

나는 끝없는 존경과 감격어린 눈길로 나의 동행자인 그 어리무던한 녀인의 모습을 흘린듯 지켜보았다.

《정말 훌륭한 애기군요. 그렇게 키워놓은 예봉이야말로 그 어데 갖다놓아도 손색없는 나라의 기둥감이겠지요?》

나는 벌써 속으로 이번 취재대상을 예봉으로 정하고 이렇게 물었다.

《웬걸요. 그렇지 못해요.》

《예?...》

《내 힘이 모자라서 그러겠지요.》

그는 쓸쓸히 웃고나서 가벼운 한숨을 지울뿐 더 말이 없었다. 틀림없이 그를 피로하는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그가 측은해보였다.

이때 포르릉 산까지 한마리가 흰눈을 뒤집어쓰며 푸른 솔가지끝에 앉아 짹짹 울어댔다.

《저 까치란놈은 신통히도 반가운 사람을 알아본답니다. 아마 예봉이한테 어머니가 온다는 기쁜 소식을 벌써 전하고 날아왔을지도 몰라요.》

나는 일부러 어린애들처럼 떠들어댔다. 내가 웃으며 것처럼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의 둥그런 얼굴에선 그 어쭙은 웃음마저 피어나지 않았다. 나는 하다못해 잠깐 다시 쉬기라도 하면서 그에게 안정을 주고싶었다.

《경숙동무, 여기서 잠깐만 더 쉬어서 가자요. 이젠 얼마 안남은것 같은데.》

나는 먼저 나무를 베낸 밑둥아리의 눈을 털어내고 끼였던 장갑을 벗어서 갈아주었다. 그러자 그는 장갑을 나에게 돌려주며 보따리속에서 큼직하게 숨을 두고 누빈 숨장갑 두개를 꺼내여 하나를 내게 주고 하나는 제가 깔고앉았다.

《이런걸 다... 얼마나 기뻐들 하겠어요. 경숙동문 작년에도 이맘때 왔었다지요?》

《네, 작년엔 글썽 모르고 밤에 내리는 차를 타서 고생을 좀 했어요. 모두들 려관에 들었지만 난 그애를 지척에 두고 잠도 올것 같지 않고 해서 내쳐 걸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글썽 눈길에 방향을 찾을수가 있어야지요. 눈길을 쉽게 헛갈린다는 말을 듣기는 했었지만 그런 변이라구야! 사방이 흰해서 얼마든지 같것 같아서 시작한 걸음인데 정작 길도 희고 눈무지도 희다보니 어느쪽으로 뻗은 길인지 정말 분간을 못하겠더군요. 한참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겨우 도로 넓이를 건넜단말입니다. 산락에선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오지, 할수없이 장님이 하는 방법을 썼답니다.》

《아니 어떻게요?》

《이렇게 길 한쪽에 아예 붙어서서 손더듬을 하며 게처럼 옆으로 걸었답니다. 밤새껏 심리가 넘는 길을 그러며 가느라니 이 손이 장작개비처럼 돼버렸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더군요. 그저 이 밤으로 딸애한테 가닿는다고 생각하니 기쁘기만 했어요. 참 모성애란 그렇게 무서운것이더군요. 그런데 아침 늦게 려대에 도착하게 된 내 눈앞에 그애가 어떤 꼴로 나타난줄 압니까?》

그는 한참이나 말을 끊고 모두숨을 내쉬더니 힘없이 중얼댔다.

《아프다고 자리에 누워있었어요, 모두들 일하러 나갔는데말입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지 않을 모양으로 계속 걸기만 했다.

나는 궁금중이 나서 참을수가 없었다.

《감기라도 걸린게지요?》

《뭐 별로 아픈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뻔하더군요. 난 기가 막혀서 그 애를 붙잡고 내 먼저 울

어버렸습니다. 내 설움에 실컷 울다가 일어섰지요.

<배낭을 꾸려라. 차라리 가고말자꾸나. 네가 어떤 몫으로 왔기에 이렇게 산단말이나?>

그 애가 내 치마폭에 매달려 사정함디다.

<엄마, 다시는 안그래요. 엄마가 너무 보고싶으니까 눈물만 나서 그랬어... 이젠 엄마를 봐서 일 없어.>

그 앤 몫시도 흐느껴울더군요. 그때 정말 내 가슴은 찢어지는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모질어야 하나? 정말 홀 데리고 떠나고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사흘가는 흥이 없다구 난처하긴 해두 데리고 가서 좋은 직장이나 구해주자고 마음을 먹었더랬지요. 애초에 약하게 키운 종자는 큰 재목이 될수 없는게라구요. 그런데 그 애가 한사코 안떠나겠다고 오히려 나를 위로함디다.

<내디딘 걸음을 이제 물려서다니요. 그렇게 할순 없어요. 어머니, 이제 보세요. 정말 모든걸 이겨내겠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애가 얼마나 애원하던지... 그래 휴가기일을 다 묵으면서 나도 같이 건설장의 일손을 거들었어요...

기자선생님, 그런데 이번엔 어떤 딸을 만나게 될가요? 제발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고있는 그 애를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웃고있는 그 애를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가 먼저 일어나 걸음을 떼는바람에 나도 따라섰다.

나는 그가 왜 대소환을 낀 설밀을 택해서 딸을 만나러 오군하는지 그 심정이 심분 이해되었다.

그는 걸음을 떼다 말고 이렇게 말했다.

《런대장한테서 한번 편지가 왔었어요. 뭐 예봉이가 런대의 사랑동으로 자란다나요. 로동계급의 체모가 제법 잡혀간다고 했습디다. 날 위로하는 말이겠지요. 이젠 점점 길이 가까와지니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다리가 떨려요. 기자선생님, 이번엔 정말 어떤 딸을 만나게 될가요?》

그는 또 같은 말을 하며 안절부절했다. 그런데 이때 길도 없는 산등성으로 웬 젊은이가 성큼성큼 올라서더니 우리걸을 지나려 했다. 그는 누런 솜옷에 발에는 가쁜히 행전까지 들렀는데 머리에 쓴 털모자속에서 빨간 오각별이 빛나고있었다.

《아이, 돌격대동무군요. 같이 가요.》

《네, 전 몫시 바쁜 걸음을 걸어야 할 사람이랍

니다. 제 걸음을 따를만 하십니까?》

《그래요? 하여튼 따라서 보겠어요..》

《어데까지 가시는 아주머니들인데...》

《우린 8려단동무들을 찾아가요.》

《예?! 우리 려단을 말입니까?》

그 청년은 의아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고있었다.

《전 금성청년출판사 기자예요.》

《예?! 야, 이거 기자선생님을 이렇게 고생시켜서 정말 안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마침 방향을 잡았습니까? 우린 어제밤에 여기로 옮겨왔는데.》

《그래요?!》

《정말. 그럼, 모르고 떠났는데... 이렇게 만났으니 거 일이 멋있게 됐습니다.》

그는 신통한듯 또 외웠다

앞서서 가던 그 청년은 갑자기 돌아서서 뒤걸음을 치며 정색해서 묻는것이였다.

《이번에 어떤 기사를 쓰시렵니까?》

《글쎄요. 영웅적이며 기적적인것도 좋고 동무들생활에서 있는 아주 서정적인것도 다 좋지요 뭐.》

《저, 선동사업을 보장하느라고 어제밤 같은 눈보라를 혼자서 뚫고 이 령을 넘은 한 녀성동무에 대해 쓰십시오.》

《녀성동무요?》

《안됩니다! 그 동문 녀자지만 남자들 못지않답니다. 선동사업뿐이 아니지요. 언제나 힘든 일이 생긴곳에 먼저 서있답니다.》

《왜 안되기가 하겠어요.》

《이제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그 동문 꽃발에 핀 란초같이 매칠하게 생기긴 했어두 정말 괜찮답니다.》

《호호호... 란초꽃이면 뿌리박는 힘이 얼마나 강하단구요.》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썩 잘 비유했는데요.》

계속 뒤걸음치기가 힘들었던지 몸을 돌려 앞으로 몇걸음 떼던 그는 또 뒤걸음을 치며 그 녀동무에 대한 자랑을 하는것이였다.

《그뿐이 아니랍니다. 우리 런대의 피꿀새이고 봄을 불러오는 나비랍니다. 군중무용보급원이거든요. 이젠 거의다 왔습니다. 이 고개턱에만 올라서면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은 빠르지요.》

《동무의 그 칭찬만으로도 그 녀동무는 대단한 값을 가지게 되겠군요. 호호호.》

씨원한 대답을 주지 못해 미안한 나는 이렇게 적당히 얼버무렸다. 취재대상에 서둘러 너무 큰 기대를 가졌다가 종종 따분한 경우에 맞다들게 되는 때가 있기때문이다.

《동문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예, 전 8려단 정치지도원 강철구입니다.》

《아, 그래서 그 선동원처녀를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 예봉동부를 신문에 소개했다고 나무랄 사람은 하나도 없을겁니다. 이제 만나 보시면 대번에 마음에 드실겁니다.》

《예봉이요?!》

《예, 이름도 아름답지요 홍예봉, 그러고보니 란 초췌한 좀 이름에 맞지 않는데요, 하긴 홍초꽃도 있지만, 아니 그 뿌리깊은것이 더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강철구는 머리를 기웃거리가며 꼭 맞는 비유의 꽃이름을 고르느라 애를 썼다. 나는 그의 말에 대답할 여지가 없었다. 아까부터 주저하며 뒤떨어져 걸음을 늦추는 림경숙을 느꼈지만 그의 심점이 이해되어 구태여 소개를 서두르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 무슨 꿈같은 일인지 나도 어리둥절했다.

《예봉이가 홍가예요?》

내가 뒤를 돌아보는데 그 어머니도 분명 어떤 충격을 받은듯 그자리에 우뚝 서서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뜨기가 돼버린듯했다.

《홍예봉인가말이에요?》

《예, 홍예봉이지요.》

《예봉 어머니! 이 동무가 뭐랬는지 들었습니까?》

《아니 예봉 어머니라니요?!》

더욱 놀라는건 강철구였다.

《이분이 예봉이 어머니랍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거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강철구는 달려와 새삼스럽게 모자를 벗고 굽적 인사를 했다.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오셔서 우리 동무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다더니... 그런데 이진, 뭘니까?》

그제야 그는 림경숙이 등에 걸머진것을 발견한 것이다.

《글쎄 삽자루까지 그 천리길에서 지고오신답니까.》

《예? 어머니도 참, 그러지않아도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우린 멀리서 돕지 못하고있는데 피가 한동이씩 뚫고있는 우리가 어머니등에 이런 짐을 지우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진정 예봉 어머니를 나무람하는 강철구의 부리부리한 그 눈에 물기가 젖었다.

강철구는 무작정 림경숙의 등에서 나무짐을 벗겨내며 자기가 걸머지는것이였다.

《그런데 저, 기자선생님, 어머니를 모시고 좀 천천히 뒤로 오십시오 사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예, 좀...》

이상했다. 그는 먼저 가려던 걸음을 멈칫하고 한참이나 머뭇거리고나서야 할수없이 말하는것이였다.

《어제 런대를 먼저 철수시켜 떠나보내고 지휘부에선 초급선동원들까지 다 모여서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어두워셔야 끝났지요. 그래 모두들 밤을 자구 아침에 떠나기로 하고 눌러앉았던말입니다. 그런데 글쎄 오늘아침에 어느 한 선동원동무가 남긴 글썩지를 하나 발견했는데 작업을 시작하게 될 공사장에 속보가 나붙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혼자서 밤에 떠난다구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급히 전화를 걸어보니 글쎄 눈속에 쓰러진 사람을 금시 들여다 놓혔다지 않습니다. 그때가 새벽 6시경인데 어제저녁부터 어떻게 됩니까.》

공사장엔 속보가 쪽 나붙었다고 런대장은 목이 메서 말하다가 하여튼 약을 구해가지고 빨리 오라더군요. 그래 이렇게 제 먼저 고개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예봉이애긴가요?》

《예? 예, 저 어머니 뭐 별일 없겠지요. 제가 먼저 좀... 그럼 천천히 오십시오.》

이 말을 남긴 강철구는 어느새 내리막을 쏜살같이 내리달리기 시작했다.

《아니?!》

그자리에 주저앉으려던 림경숙은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강철구를 따라서 내리뛰는것이였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야 겨우 그들을 따라갈수 있었다. 어느새 내리막을 다 뛰어내린 강철구는 벌써 굽이길을 예돌아 보이지 않았다. 림경숙은 몇번이나 눈속에 꼬꾸라지는바람에 그만 아득히 멀어졌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쫓아가 팔을 잡아 주었다.

우린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솔직히 나는 림경숙이 또 무슨 일을 당하게 되려나 하는 생각에 느닷없이 예봉이가 떠나던 그날 혀를 찼던 아빠트아주머니들이 떠오르기까지 했다.

우리가 굵인돌이를 예돌자 긴 유개차 여섯칸이 새로 놓아가는 철길끝에 나란히 서있는것이 보였다. 칸칸에 세워진 굴뚝에선 제법 연기가 피어오르고있었다.

우리가 다가갔을 때 맨끝에 있는 차칸 문이 열리더니 강철구가 나왔다.

《어머니, 놀라시게 해서 안됐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것 같습니다. 전 꼭 무슨 일이 생긴것만 같아서…》

강철구는 미안해서 어쩔줄 모르며 예봉 어머니와 나를 이동식숙소로 안내하였다. 방인은 텅 비어있었다. 알른거리리는 노란 장판방에 예봉이때문에 가져다놓은 물사발이며 수건들이 아직 그대로 있었다. 방은 얼마나 정가로운지 몰랐다.

《이 동무가 어디로 갔을가? 아무튼 무사하니 다행이기는 한데…》

강철구는 혼자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가려다 다시들어와 랑쪽 바지주머니에서 주먹같은 사과 몇알을 꺼내놓더니 또 종이뭉치를 꺼냈다.

《이건 웅담이고 이건 뱀라든지? 하여튼 하난 곰열이구 하난 산돼지열이랍니다.》

철구는 씹긋 웃으며 또 주머니에서 종이로 싸맨 병을 꺼내놓았다.

《그 주머니가 요술주머니 아니예요?》나는 신기해서 강철구를 지켜보며 물었다.

《이젠 밑천이 드러났답니다. 하하하… 산꿀입니다. 이걸 먹고 땀을 쭉 뿜으면 웬만한 한기는 다 달아나고만답니다. 그럼, 여 기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예봉동무를 찾아오겠습니다. 련대장동지도 데려오구요.》

강철구는 나갔다.

예봉에게 아무 일도 없다니 안도의 숨이 나왔다. 내가 긴숨을 후 내쉬며 림경숙을 돌아보는데 그는 산꿀이며 약봉지들을 모아진 그 손에 방울방울 눈물을 떨구고있었다. 나는 자꾸만 솟구쳐오르는 눈물을 훔치며 물사발을 들어 옮기려는데 겹쳐진 종이가 그결에 개여놓은 요밑에 절반쯤 찢려져있는게 눈에 띄었다.

예봉이 쓰다 만 편지였다.

《보고싶은 어머니!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싶은지… 이 마음을 어머니 다는 리해하지 못하실거

예요. 하긴 이런 말을 할 렴치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머니, 이제 오시면 놀라게 자란 이 딸을 보시게 될텐데… 전 아마 이 편지를 보내지 않을거예요. 어머니 이 눈속을 헤치며 또 오실테니까요. 그저 편지나 더 자주 해주세요.

어머니의 편지는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큰 힘이랍니다. 어머니의 편지는 전련대가 기다린답니다. 어머니는 어느새 우리 련대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동무들은 저를 보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들 한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어머니! 이젠 제 근심을 마시고 웃으시면서 기쁘게 사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어머니를 더 그리워하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전 그 눈길을 걸으면서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시던 그날의 눈길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글썽 큰 웅덩이에 눈사태가 쌓여있는걸 모르고 들어섰어요.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깊이깊이 빠져들었어요. 정말이지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게 되는줄만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어쨌는지 아세요. 그 위급한 순간에 노래를 불렀답니다. 혁명가들요. 왜서인지 그렇게 되더군요. 마음속으로 부르던 노래는 어느덧 소리높이 울리게 했어요. 항일의 나날에 유격대가 저씨들이 어려운 때면 왜 노래를 불렀는가를 전 심장으로 체험했습니다. 전 울면서 불렀어요. 추워서 운게 아니랍니다. 무서워서도 아니였어요. 혁명가를 부르니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 눈속에서 헤쳐나올 기적같은 힘이 솟구쳤습니다. 그 순간 전 항일혁명투사들이 나를 이끌어주고있다는 생각에 저절로 눈물이 나왔어요. 그러니 저도 그대오에 당당히 서있는게 아니겠어요. 저의 눈앞에 떠오른 그 투사들의 뒤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이 이야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편지는 아쉽게도 더 이어지지 못했다.

림경숙은 그 어떤 보물이거나 한것처럼 둘이 함께 다 읽고난 그 편지를 그냥 들여다보고있었다. 그러던 림경숙은 아무 말도 없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것이였다. 나도 그를 따라 나갔다.

건설향의 기계화군단의 동음이 요란하게 들려왔다.

얼마가지 않아서 예봉이가 어제저녁 그 눈보라를 뚫고와서 불었다는 속보들이 나타났다. 림경숙은 허둥지둥 달려가더니 그 하나하나를 쓸어보

고있었다.

이때였다. 저쪽에서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무! 정신이 있소? 일을 며칠하고 그만둘셈이요?》

강철구였다.

그앞에 류달리 해맑고 날렵한 처녀가 적재함에 자갈을 가득 퍼담다가 문득 멈춰서며 동그란 눈을 크게 뜨고 되묻는것이였다.

《왜 그러시나요?》

예봉이였다.

《왜가 뭐요. 동무가 다른 사람들을 다 어떻게 만드느가말이요. 혼자서 눈보라치는 밤에 길을 떠나지 않나, 또 가만 누워있지 못하고 이게 뭐가말이요!》

강철구의 그 천진하던 얼굴엔 범접하지 못할 엄한 빛이 어리였다.

그러나 예봉은 무릅없이 생긋 웃더니 삽질을 계속하였다.

강철구는 무작정 그에게서 삽자루를 빼앗으며 이 편을 가리켰다.

《어머니가 오셨소.》

《네?!...》

두리번거려던 예봉이는 어느새 어머니를 알아보고 달려와 불안고 돌아갔다.

림경숙은 아무 감각이 없는듯 물기어린 눈으로 그저 멍히 딸을 지켜보더니 속보판 저쪽에 놓여있는 삽자루를 손에 잡았다. 그리고 강철구에게 부락하듯 말했다.

《그걸 예봉이한테 도루 주게나, 같이 좀 일하고싶네.》

강철구는 뿔어오르는 걱정을 참느라고 입을 꼭 다문채 삽자루를 넘겨주었다.

나와 강철구도 모녀와 함께 삽질을 시작하였다.

뜻밖의 이 광경은 전체 작업장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실을 알리는 방송원의 목소리도 흥분에 떨고있었다. 그 누구도 룡담을 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어떤 준엄한 시각처럼 온 작업장은 침묵속에 잠겨 들끓었다.

림경숙의 뒤를 따라 질통을 지고 달리는 나의 가슴속엔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림경숙의 뜨거운 심장이 그대로 침묵이 되고 레루가 되며 그 작은 심장의 박동이 온 조국땅의 거대한 숨결속에 싸여 이렇듯 큰 힘을 불러일으키다니... 무엇

이 저 녀자를 저렇게 억세게 만들수 있었단말인가? 어리무던하고 연약해보이는, 가정밖에 모르던 저 녀자를...

림경숙이 어느새 내옆에 다가와 속삭이는것이였다.

《기자선생님, 지금 제 눈엔 힘있게 전진하는 조국이 똑똑히 보이는것 같아요. 정말 다행한 일이에요. 제가 이런걸 느낄수 있으니말이에요... - 이젠 우리 예봉이 아버지앞에서 면목이 좀 설가요?》

《그럼요, 왜 면목만 서겠어요. 주인의 그 위치에 당당히 들어섰지요.》

나는 그대로 치밀어오르는 뜨거움을 삼키며 대답했다.

《나도 그 애하고 내내 함께야 못살게 아닌가요. 언젠든 이 세상을 내가 먼저 가게 될테니까요.》

그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의아해서 나는 그의 얼굴을 뚫히 쳐다보기만 했다. 림경숙은 그 복스러운 얼굴에 새롭게 피어나는 환한 웃음을 담으며 말했다.

《그 애가 먼 후날 미래에 살게 될 그때에 가서도 뗏뗏이 자기 세대의 인간값을 가지게 하고싶었어요. 오늘 우리 사회야 부모구실을 한다는게 재산을 물려주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애 아버지가 내 가슴에 남기신것이 그 뜻이 아니겠나요.》

바로 그것이였구나! 가슴속에 간직된 값비싼 그 소원이 저 녀자를 저렇듯 무한히 성실한 인간이 되게 한것이다. 그 소원, 그것은 조국에 바치는 우리 세대 인간들의 가장 값있는 사랑이며 그것은 이 자랑찬 시대가 낳은 정신적재부가 아닌가!

림경숙이 바로 그것을 자각하였기에 하나밖에 없는 딸자식을 스스로 가장 어려운곳에 세울수 있는것이다.

차창밖에 흐르는 밤하늘에선 무수한 별들이 깜빡인다. 예봉이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무엇인가 귀뜸이라도 하는듯...

그러자 저 별처럼 살고있는 이 시대 인간들에 대해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해야 할 기자로서의 자각과 충동이 새롭게 북받쳐올라 나는 다시 만년필을 쥐었다.

말해다오, 창가의 불빛이여

엄형조

서늘한 바람에 옷깃 헤치고
발가는대로 걷는게 멋이다
주머니에 두손 찌르고 걸다가
행복한 한쌍과 어기며
웃음을 지음도 또한 멋이다

내 넋잃은듯
불빛 호화로운 거리를 거닐며
무수한 아빠트창가의
행복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크나큰 기쁨에 젖어보는
밤거리의 산책길이여

그 어느 창가에서 울려오는
손풍금소리
창문을 열고 들여다보지 않은들 모르랴
아마도 새 가정의 탄생을 알리는
결혼식이리

그 어느 창가에서 들려오는
처녀의 노래소리
가까이 가 들어보지 않은들 어떠랴
아마도 행복에 젖은 처녀의 심장이
한껏 터친 자랑이리라

이런 날, 이런 밤이면

내 갈길을 잃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우뚝 서서
저 창가의 불빛
하나하나의 사연을 모두 알고싶고

청춘들의 결혼식에 나도 한몫 끼워
흐늘어진 민요를 한곡 넘기고싶어라
나도 저 창가에 다가가
처녀의 노래소리에
삶이 그대로 기쁨인 저 하나하나의 창문에
내 뚝도 합치고싶거니

행복한 밤, 무수한 창가의 황홀한 불빛
복받은 인민이 사는 내 나라의 밤에
빠뜨릴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여
좋은 밤, 좋은 노래 저 창가마다 안겨주고
이 밤도 꺼지지 않을
당중앙창가의 밝은 불빛이여

아, 말해다오, 창가의 불빛들아
이 땅 수천만 강가의 행복의 불빛은
이 밤도 꺼짐없는 당중앙창가의
그 불빛 있어 아름다움
아, 새겨다오, 강가의 불빛이여
당중앙창가의 꺼짐없는 불빛을
내 가슴에 영원히 새기여다오.

내고향

어영수

한그루 잣나무에도
정을 다해 키우던 추억이 깃들고
징검돌 딛고 건느던 내가의 여울목
높이 선 다리의 교각에도 내 땀이 스며있어

콩이 잘 여문 논두렁조차 자꾸 걷고싶고
읍으로 뻗은 긴 호박굴길이며
밤꽃 하얀 고향의 산언덕을 바라보아도
내가 사는 이 땅의 귀중함이
날마다 새로와져

저 련못가의 소담한 꽃송이처럼
내 기쁨의 망을 터쳐주고

무심히 뛰어오른 잉어의 푸들찍임에도
홍겨운 코노래 절로 나라

그때문인지
강기슭에 쌓아가는 돌각담 하나에도
사랑하는 땅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 마음을 고이고
창가에 비바람 휘뿌려져도

산기슭 애어린 잔디밭에 마음은 달려가고
그래서인지 몰라라
산새소리 유정한 숲속에 앉아
작은 수첩에 시를 써볼 때도

고향땅을 가꾸던 추억
이 고향을 자랑하고싶은 생각만
지꾸자꾸 떠오르는것은

그 또한 좋더라
딱따구리소리 정다운 숲속에
산열매 따는 처녀들의 청고운 노래소리
아이들조차 향토근위대휘장을 달고
길가의 나무밑에 웃음과 함께 남기는

그 하얀 자갈이

아, 그때문에
나날이 젊어지는 고향과 함께
내 가슴속에 부푸는 희망은
이 땅에 영원히 영원히
나의 땀, 나의 한생의 모든것
저 푸른 숲처럼 남기고싶은 생각뿐이여라

읍으로 가는 길

김창근

합숙집 나서
동구길에 오르니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말도 정답구려
농장원처녀는 어서 갔다 빨리 오라고
분조장아바이는 잘 다녀오라고...

군당을 떠나
내 처음 마을 찾아올 땐
언덕에 하얀 집들
만나는 사람들도 낮이 설었소

흰두루미 날아에는 저기
벼들이 알차게 영글어 고개숙인 저 벌에
밤색작업복 입고
농장원들과 함께 씨뿌리고 김을 매며
이 마을, 이 사람들에게 정이 들었소

설참마다 논둑에 앉아
우리 당이 밝혀준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알려여줄 때면
내 마음 기뻐고

뜨락또르운전수총각
도시처녀와 눈맞아 결혼했다는
농장원들의 웃음많은 이야기 들을 때면
내 가슴 흐뭇했다오

노을비낀 저녁에도

집집의 문을 두드리며
서로의 마음을 열어준 나날
농사일도 차근차근 의논하며
내 여기 사람들을 알았고

군중속으로 들어가
그들속에서 배우며 가르치라는
당의 의도를 깊이 알았다오
당일군의 보람을 느꼈다오

사과가 빨갭게 무르익는 동산
땅이 꺼지도록 흥치는 황금의 들은
근면한 여기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함께 꽃피운것이어서
가는 길 걸음걸음에 따라서오

주절대는 맑은 시내물소리
강냉이수확기우에서
흰수건 저어주는 사람들...
아, 배낭 메고 내려와 살지 않고서야
이런 정다움 어이 있겠소

읍으로 가오
군당으로 내 마음 다지려 가는 길
온 마을이 함께 가오
떠칠을 떠나도
정든 고향을 두고가는듯싶구려

가사

초소의 들국화

김영식

따뜻한 봄철에 필 날은 많아도
찬서리 맞으며 들국화 피었네
좋은 철만 피지 않는 아, 그 모습은
당중앙 받드는 아, 내 마음

아늑한 화원에 필 자리 많아도
덤불속 전호에 들국화 피었네

보아주기 원치 않는 아, 그 모습은
당중앙 지키는 아, 내 모습

피어서 언제나 태양을 받기며
그윽한 향기 풍겨 들국화 피었네
어디서나 변함없는 아, 그 모습은
당중앙 따르는 아, 내 충성

해당화 너처럼

림천삼

세찬 바람에
쓰러질듯 쓰러질듯
몸부림칠 땀
꺼이울줄 알았다오
해당화 해당화
휘뿌리는 모래불에
묻히울줄 알았다오

절벽도 부실듯
달려오는 파도
처절씩 기슭을 때리는 순간엔
참말이지 해당화
떠밀려갈줄 알았다오
뿌리채 영영

단숨에 삼키려던
해당화 삼키려던 집채같은 파도
저 멀리 산산이 부서져내릴 때
그만해야 알았다오

해당화 오히려
파도에 곱게 제 얼굴 씻은줄

솟는 해 반겨 반짝이는가
시련을 이겨낸 기쁨에 겨워
습벅이는 눈동자처럼
점점이 물 머금은 푸른 잎새
씻은듯 더 고와

한뼘
휘뿌리는 모래불에 터갈리고
세찬 바람에 파도에 씻기여
대갈던 줄기 가시로 모지라졌어도
송이송이 아름다운 붉은 꽃이여

너 어이 예 피고
너 어이 고운줄
파도 세찬 이 기슭에
와보고 알았으며...

평범한 걸음

리민탁

사람의 걸음새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급한 상황에서는 행동도 그만큼 빨라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걸음도 자연히 늦춰지는 법이다.

하지만 나는 요즈음 평화로운 시기에도 전쟁의 불비속을 걷듯 한걸음한걸음을 굳센 마음을 간직하고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얼마전이였다. 내가 군인들의 생활에 대한 글을 취재하려고 태천발전소 건설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우리가 탄 자동차는 북부고산지대의 수림속을 쉬임없이 달렸다. 이빨나무, 분비나무, 쇠스래나무들이 꼭 들어찬 끝없는 수림의 바다, 싱그러이 풍겨오는 숲의 특유한 향기, 멀리 발밑에서 흐르는 얇은 구름의 룬무... 어디를 보나 가슴후련한 고산지대의 고즈넉한 풍경이었다.

림산사업소를 찾아간다는 과학원의 연구사동무는 나의 곁에 앉아 바라보이는 산이며 골짜기 이름을 수시로 나에게 알려주곤했다. 아마도 연구사업때문에 자주 림산지구에 다니는 모양이었다.

그곳 지형에 생소하였던 나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다가 어느 한곳에 이르렀을 때 내가 그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그곳은 발전소건설공사장부근이었다. 보름전, 내가 그곳에서 취재를 했었기때문에 그 고장에 대해서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저 굽인돌이를 돌면 산이 하나 나지는데 그밑에 발전소건설공사에 동원된 군인들의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 시원한 물을 대접하지요. 참 좋은 샘물이 있더군요.》

이미 그곳 군인들과 친숙해졌던 나는 아까부터 목이 말라하는 연구사동무에게 시원한 샘물을 권할 생각을 하니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우리가 탄 풍을 친 화물자동차가 굽인돌이를 돌아 나는 그만 아연하여 자기 눈을 의심하였다. 분명 거기에는 산세도 순탄치 않은 큰 산이 놓여있었는데 그것이 온데간데 없어진것이 아닌가. 다만 여기저기 널려있는 작은 버럭덩이들과 언제 산이 있었느냐싶게 평평한 공지에 흙을 다스린 삽자리가 군데군데 나있을뿐이었다.

나는 무엇인가 가슴을 쿵! 하고 치는 충격을 느꼈다. 바로 그들이 언제공사를 위해 산을 떠

났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쳤다. 나는 내가 취재했던 군인들을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흠무지도 아닌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고 이 지대를 변모시키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 생각이 깊어졌다.

연구사동무가 내 얼굴을 흘깃 쳐다보며 무슨 말인가 하는것을 나는 듣지 못했다.

그때, 내가 발전소건설장에 왔을 때 만났던 한 상등병의 얼굴이 불쑥 떠올랐다. 길가에서 얼핏 지나치거나 깊은 생각 없이 만나다면 그저 어리다는 인상밖에 받지 못했을 그런 나이뜨래의 젊은 병사였다. 도도룩한 이마, 한쪽입가에만 얼핏 꽤 우군하는 보조개... 그러나 그 병사의 생활에 얼마나 뜨거운것이 숨배여있었던가.

어느날 작업장에서 착암기에 압축공기를 보내는 고무호스가 터졌다. 그때 관이 있는 맞은편 낭떠러지위에 서있던 병사의 뇌리에 쇠물처럼 뜨거운 생각이 물결쳤다.

물론 압축기가 새면 공사장에서 작업을 잠시 중지하는것은 흔히 있을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당의 명령지시를 한분한초의 어김도 없이 관철하는데서 앞장서나가는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아닌가. 얼마나 많은 전우들이 지금 명령받은 그 한초한초를 위해 조국해방전쟁시기 가렬한 격전장이었던 1,211고지의 용사들처럼 밤과 낮이 따로없이 결사전을 벌리고있는가. 작업을 중지해서는 안된다. 단 한초라도...!

낭떠러지사이에선 굵지 않은 길다란 나무 한대가 가로놓여있었다. 병사는 그때 휘친거리는 나무우에 성큼 올라섰다. 밑에는 아찔한 공간, 고무호스를 다시 잇기 위해 한발만 잘못 디디면 한몸이 나무잎처럼 공중에 휘뿌러질 그런곳으로 서슴없이 걸음을 내짚는 병사였다.

끊어진 통신선을 이어 부대의 전투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순간마다 삶과 죽음이 엇누비는 불비속으로 내달린 조국해방전쟁시기의 통신병들처럼...

바로 그런 걸음으로 순간순간을 내달리는 병사들이기에 단 며칠동안에 하늘높이 솟았던 거창한 신악도 종적없이 떠울길수 있었고 기적을 창조하고 위훈을 빛내어나가고있는것이 아닌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

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명령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고야 마는 인민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가장 큰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사회주의건설에 동원된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일하는 건설장을 찾아 일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포탄이 작렬하는 결전장에서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투를 벌리는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대규모의 발전소건설장에서도 순천비날론공장이나 새로 일떠서는 세멘트공장건설장... 그 어느 건설장에서도 우리 군인들이 있는곳이면 불굴의 투지와 영웅적위훈이 언제나 내려치고있다.

수십수백미터 높이의 대공에 올리는 대상물을 조립하기 위하여 한두시간도 아닌 며칠을 혁명가 요를 부르며 허공중에서 한걸음두걸음 옮기며 끝끝내 임무를 수행한 군인연공들이며 굴간에서 불의에 석수구멍이 뚫려 전반적공사가 지체될 위기 일발의 순간 한몸을 던져 공사의 운명을 구원한 한 애젊은 병사에 대한 이야기, 달려오는 비바람의 힘에 팔뚝같은 바줄이 탕! 하고 끊기며 공중에 놓인 구조물이 사정없이 밀려내리는 순간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몸을 날려 바줄을 몸에 감고 위험의 고비를 넘긴 어느 한 분대원들에 대한 이야기...

진정 오늘 사회주의건설에 동원된 우리 군인들의 모습을 어제 적의 불구멍을 가슴으로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놓은 영웅전사들의 모습과 달리 생각할수 있으랴.

이 땅에 포화가 멎은지 수십년 세월이 흘렀지만 단 한순간도 마음의 탕개를 늦추지 않고 변함없이 전화속을 걸어가던 그 발걸음으로 견고있는 우리 인민군군인들이다.

풍치 아름다운 거리와 마을에 꽃향기 풍기고 기쁨에 넘친 강반에 뽀뜨들이 줄지어다니건만 행복에 취해있기만을 바라지 않는 우리 군인들이기에 시대를 빛내여가는 크나큰 의무감을 가슴에 안고 이름없는 북변의 산골짜기에, 외진 날바다 우에 더운 땀을 뿌리며 청춘을 바쳐가고있는것이다.

당의 부름이라면 불구름 몰아치지 않는 날에도 결전장을 달리는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걷는 우

리 군인들.

정녕 그들이 옮기는 발걸음, 자욱자욱에는 당이 준 명령지시를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심장으로 감득한 사람만이 발휘할수 있는 불타는 충성심이 담겨져있으며 당을 받들고 조국을 받드는 우리 군인들의 힘과 열정과 창조적지혜가 스며있다. 바로 그러하기에 우리 군인들은 남들이 수십년을 걸렀다는 건축물도 단 몇해동안에 기적과 같이 일떠세우고 남들이 할수 없는것으로 알고있을 때에도 격랑처럼 일떠서서 끝까지 해내고 야마는것이 아닌가.

참으로 오늘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우리 군인들이 찍어가는 발걸음은 조국의 번영을 마련하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가는 성스럽고 숭고하고 보람찬 그런 걸음이 아닌가.

내가 이러한 생각에 잠기었는데 자동차는 어느덧 방대한 규모로 일떠서는 발전소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평퍼짐한 공지에 멎어섰다. 차에서 내린 우리는 멀지 않은 산비탈쪽으로 다가갔다. 거기서는 붉고푸른 기발이 휘날리고 끝짜기를 메우는 군인들의 작업이 한창이었다.

메질소리, 불도젤들이 용을 쓰는 소리, 선동원들의 힘찬 구호소리... 그들이 아마 산을 허물고 굴을 뚫고 이곳까지 달려온 바로 그 군인들인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중에서 인상깊었던 그 귀인성스러운 상등병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같이 끝끝한 군인들모두의 모습이 그의 모습으로 안겨왔다.

결국 한 병사의 걸음은 사회주의건설에 나선 수많은 병사들의 걸음으로, 어제도 오늘도 우리 모두가 걷는 평범한 걸음으로 된것이다.

군인들의 불꽃튀는 작업모습을 넋없이 바라보던 연구사동무가 문득 말했다.

《기자동무가 만났댔다는 군인들이 바로 이 동무들이 아닌가요. 정말 빨리두 달려왔군요. 이런 속도루 나간다면 기자동문 사진기렌즈를 들여댈 짬두 없겠군요.》

《아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연구사는 물을 마실 생각도 까맣게 잊고 흥분되어 서있었지만 나는 우리 군인들이 평범한 날에 걷는 걸음에 대한 새로운 글감을 찾은것으로 하여 가슴이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빛나는 그 시절

문기창

《청년돌격대》 그 이름은

내 지금도
그 시절을 못잊어
벗들과 함께 찍은 사진첩을 펼치면
눈앞에 삼삼히 안겨와라

번들거리는 삽과 팽이
그대로 찍혀진 모습에서
흰 런닝그에 새겨있는
《청년돌격대》 그 이름
못잊을 추억을 불러주누나

태어난 고향
떠나온곳 서로 달라도
우리 그 부름으로
한지붕아래 한형제가 되어
일떠세우는 만년대계의 기초같이
당을 받드는 청춘으로 자란 시절

그랬더라
아버지가 지어준 아들의 이름처럼
당이 지어준 《청년돌격대》
그 이름
얼마나 자랑스럽게 외웠던가

집채같은 바위에
저마다 어깨를 들이댈 때도
그 이름은 우리의 힘이었고
돌처럼 굳어진 언땅도

그 힘으로 갈라놓았노라

산인들 못웁졌던가
물인들 못막았던가
보이지 않는 맛굴을 뚫으며
굴길보다 깊이 이어진 가슴들에
산도 통채로 날렸노라

때로 폭포처럼 쏟아지는 석수를
앞을 다투어 몸으로 막으며
우리의 가슴가슴
불덩이처럼 뜨거워져
강철같이 억세어져

아, 《청년돌격대》
보람찬 청춘시절의 대명사
그 이름 지녔던 사람만이 알리
참다운 동지를
동지의 뜨거운 사랑을
진정한 청춘의 삶을

그때문이 아닌가
《청년돌격대》 그 이름 지니여
청춘시절은 빛나고
세월은 흘러가도
당이 지어준 그 이름은
한생토록 내 가슴에 새겨있으리

말아들이 떠나는 날에

안해여 어서 좀 보구려
말아들의 이 파견장을
얼마나 자랑스럽소
돌격대로 떠난다고
저렇듯 기뻐하는것을

우리 이 집에 들어
어느덧 밥상둘레가 좁아지는 나날
흘러가는 우리 청춘시절이

언제면 저 아들에게 이어지랴
그때가 멀게만 여겨지더니

보오
벌써 말이가 집을 떠나오
어쩌면 내 어제날 어머니에게
돌격대의 파견장을 내보이던
그날이 다시 온것만 같구려

그렇소
당신도 나도
우리 청춘시절의 첫걸음을
들끓는 건설장
돌격대의 전투장에서 시작하지 않았소

안해여 그 나날에
우리의 불타는 마음
떨어질수 없는 혁명동지로 맺어져
앞날의 꿈인들 얼마나 많았소

그렇소
돌격대의 마지막천막을 걷던 날
우리 서로 뜨겁게 나누던
그 많고많은 꿈이

이토록 또하나 이루어졌으니

떠나는 아들에게
우리 할 말이 따로 있겠소
《파견장》 그 세글자에
우리의 당부도
아들의 마음도 다 담겨진것 아니요

그렇소 안해여
당의 믿음이 새겨진
생활의 첫 파견장을 품고
우리의 말아들이
당신과 나와 또하나의 혁명동지로
조국의 지붕아래 들어섰소

사진만이 아는 사연

언제 내곁에 앉았던지
수많은 얼굴들이 새겨진
사진을 받고서야 알았더라
어이하여 그 처녀 나를 따랐던지
그날엔 내 알바 아니었던만

단정하게 둘러쓴 모자의 채양아래
그런듯한 검은 눈썹
내 돌격대의 그 첫날에
우연히도 한목고채를 잡았을 때
방긋이 열리던 그 입술

그 모습 옮겨진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름을 부르니
그 처녀
그날처럼 머리 다소곳이
내앞에 나와설듯...

알지 못했노라
그 처녀 배식당번 할 때면
내앞에 국 한그릇 더 놓고
살머시 돌아서던...

남달리 두개의 침목을 메고
내 산비탈을 내릴 때
언제 달려왔는지
침목의 한끝을
뒤에서 말없이 받쳐주던...

마지막관통의 화약을 안고
땅속깊은 굴길에 들어서던 아침
남먼저 꽃다발 안겨주며
나를 바라보던 그 마음, 그 눈빛

나도 몰라라
신문에 난 내 사진을 품고다니다가
동무들의 놀리움을 받던 그를 불러
모질게 꾸짖던 내앞에서
그 처녀 왜 그리도 서러워했던지

아니여라
우리 함께
실버들 늘어진 유보도 불빛아래
정답게 거닐며
즐거이 속삭인것은

고백하나니
그 언제이런가
돌격대의 수많은 얼굴이 아닌
단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서로의 가슴에 품고있었거니

아, 사랑이 피어나던 그 시절
하나로 이어진 우리 마음
반백이 넘은 오늘에도
그날처럼 속깊이 간직하고있어라

마음속 대답을 들어다오

지금은
두툼한 뚜껑에 색이 바랜
청년돌격대의 옛 중대
《전투기록장》

그 시절을 그리며
한장한장 번지느라니
이제는 다 쓴 책인가고
까만 눈 반짝이며 물어 보는
유치원 막내아들

그렇다고
무심결에 입을 열려는 순간
어인 일인지 바르지 못한 대답같아
침묵을 지키는 내 마음

생각도 새롭다
하루일 마치고 다 잠든
조용한 병실 한켠에서
한자한자
중대의 혁신을 적어가던 그 밤들

《병사참모부》의 결정으로 불리우던
《공훈발파공》들의 그 위훈도

비좁은 《오소리굴》 관통으로
산을 떠쫓긴 그 자량도
어제이런듯

한장 또 한장
말없이 번져가는 내 마음에
되새겨진다
벼랑을 오르내리던 그 발자욱들
메아리쳐 울려온다
산울림하는 발파의 폭음소리-

다 쓴것이면 자기에게 달라고
금시 재촉할듯
까만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아들이
아직은 너에게 줄수 없노라고
마음속 내 대답을 들어다오
끝맺지 않을 《전투기록장》이기에

내 청년돌격대의 나날은
어제였던만
오늘도 그날에 사는 이 마음
아, 흐르는 나날과 함께 하루 또 하루
마음의 부피를 두터이하며
《전투기록장》을 쓰고쓰리라

빛나는 시절

누구도 생각지 않았노라
청년돌격대의 그 나날엔
우리의 청춘시절이 지나가리라는것을

누구도 다른것을 타산하지 않았노라
다만 만년대계의 기념비를
더 좋게, 더 빨리 일떠세울 생각뿐

청춘시절이 끝날 계선과
그 무엇에 대한 타산을 생각하며 일했다면
돌격대의 나날을 이토록 못잊지 않으리

사람들 레사로이 하는 말이
인생의 봄시절은 한때라고

앞날의 타산도 해야 한다고

옳을수도 있으리
봄이 가면 여름과 가을이거니
한생의 리상의 씨앗도 봄에 심어야 하리

그 어떤 타산과 계선으로
생의 봄시절을 꽃피우자고
돌격대전투장의 눈비를 맞았던가

아마도 다 아는이들 없으리
우리처럼 청춘시절이 귀중했음을
우리처럼 리상이 그처럼 높았음을

영예로워라 대기념비를 일떠세워
당에 기쁨드린 그 리상 꽃피운
계선도 타산도 모르던 청춘시절이여

너는 한생의 한끝에서 바라보아도
언제나 잊지 못할

아름다움의 절정!

아, 당을 받들어 내 한생
뒤를 보아도 청춘시절
앞을 보아도 빛나는 그 시절에만 살리라

나의 초원

량덕모

세월이 흘러가면
지나온 모든것이 멀어지더라
그러나 눈감으면
삼삼히 떠오르는 고향의 초원아
너만은 나에게서 멀어짐이 없이
언제나 가깝구나!

산나리꽃 꺾으며
어린 날을 즐기면 그 시절처럼
잊을수 없어라
젊은 날 로동의 첫자욱을 찍은
네 풀밭의 푸르름을

아, 그 푸르름
내 청춘의 웃음이던기
그 웃음
빛나는 별과 함께
간직된 초원아

때로 안개속 멀리
마음 들뜰 때에도
양모는 풀밭모서리에서
말없이 나를 멈추어세우던
영웅전사들의 이슬에 젖은 분묘여
소박한 묘비의 붉은 별이여

비껴오누나!
떨어져 외로울세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반갑게 찾아주던
세포비서아바이 모습으로도

비껴오누나!
나의 첫시가 실린 신문을 쳐들고
등판길을 질러 오던
사양공처녀의 아릿다운 모습으로도

그때 너무 기뻐
향긋한 들꽃 한송이
그 처녀의 머리우에 얹어주면서도
그것이 첫사랑인줄 몰랐던 초원아

내 알리 없었더라
농장마을 영예게시판에
나의 사진이 나붙던 날
흰 눈발속으로 달려가면서도
그것이 청춘의 위훈인줄을

아, 나도 모르게 흘러간
깨끗한 첫사랑,
나도 모르게 늘어나던
양떼들의 정다운 울음소리...
내 진정을 바친
아름다운 추억의 별이여

초원아, 나의 초원아!
소문없이 피고지는 들꽃처럼
그렇게 한생을 산대도
너는 나의 조국!
이름없는 영웅전사들의
붉은 피가 별로 새겨진
어머니조국!
너만은 나에게서 리별이 없구나!

첫 발파 외 1편

리동후

구름도 중턱에서 흐르는
아아한 가지막령 호랑령을
어떻게 단숨에 넘었느냐
그대들은

어둠길은 산밭을
해불로 밝히며 수백리
어떻게 충만강기슭까지 당도했느냐
그밤으로

아, 그밤으로
전투배낭 강변에 벗어놓고
바줄을 타고 산정을 치달아
착암기 정날에 불꽃을 날린 수리개들

태고의 자연이 그대로 숨쉬는
적막강산의 고요를 뒤흔들며
그대들은
첫 발파를 터치였나니

장쾌한 그 메아리
그것은

대자연 정복을 거머쥔 군인건설자들이
언제건설의 착공을 세상에 알리는
첫 선언이었다

그것은
래일의 위훈을 담보하는
심장의 맹세였고
명령을 받아안은 친위전사들이
수령님께 올리는 충성의 첫 보고였다

그밤
발파의 메아리로 잠을 깼
하늘의 둥근달도 못별들도
환성의 꽃보라를 날리는듯
유난히 빛을 뿌리며 반겨맞을 때

건설자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 별을 안았다 가슴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을 별이 되리라
불타는 마음들이 별의 바다 해불의 바다 되어
충만강기슭에 타번지였다

지하의 100 리 물길

머리 들면
산벼랑 아슬하니 하늘에 잇닿은듯
사시절 중턱에 구름이 서려있는
아호비령 굽이굽이 그 몇백리

차를 타면 하루길
걸어서는 사흘길
여기 천년잠자던 암반을 뒤흔들며
산밭을 꿰질러 100리 물길이 열려졌나니

선뜻 들어설수 없구나
너무도 웅장하고
너무도 우람하여

푸릿한 용접의 섬광속에 드러나는
저 석벽엔 어려있구나
착암기를 불안고
불우뢰를 터치던
영웅전사들의 후더운 숨결이

쏟아지는 석수를 한몸으로 막아
굴진을 계속하라!
막장을 향해 다급히 소리치던
그 불같은 심장의 목소리

순간도 지체 말자!

돌격대기발아래 맹세다지고
 무너지는 봉락구간을
 결사의 각오로 내달리던 그 눈빛들

 나는 본다 여기서
 화선의 용사들이 부르던 결전의 노래높이
 천만시련의 고비고비를 뚫고 헤치며
 한치 또 한치 굴길을 열어간
 거인같은 그 불굴의 모습들을

 아, 우리 당의 친위전사들이 펼친
 수많은 영웅담과 숭고한 그 정신을
 걸음걸음 눈시울 뜨거이 새겨 산으니
 내 여기서 생의 첫길을 다시 걷는 마음
 땅속 가장 깊은곳에 있어도
 불타는 충성 하늘에 닿아
 막장의 봄빛따라 나아가는 그대들
 가슴벅찬 환희와 랑만에 넘쳐

찬란한 미래를 눈앞에 그려보나니

 심장의 맥박과 뜨거운 숨결
 물길에 흘리는 후더운 땀방울은
 이 땅에 흐르는 전류로 굵이쳐
 얼마나 무수한 불빛들이
 조국땅우에 펼쳐질것이나

 그 기쁨 그 자랑 그 긍지
 크나큰 영예와 슬기를 떨쳐
 천만 물줄기들이 하나로 굵이치며
 흘러 영원할 100리 물길이어!

 아, 진정 너야말로
 주체시대가 낳은
 또 하나 자랑높은 지하의 대수로
 인민의 행복 위해 열려진
 조국의 빛나는 기념비여라

수림속의 서정

정성환

손바닥만하게 열린 하늘이
 수림속에 파아란 정기를 줄줄이 박자
 기지개도 못켄 산새들의 지저귂소리
 이슬젖은 풀잎을 가담가담 뜯으며
 유람길에 오르는 사슴의 무리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이
 이 아침 또다시 나래를 펴는가
 그 어느 긍지로운 삶의 세계로
 이 몸을 또 실어가려는가

 한뼘밖에 안되던 어린 나무모들이
 나의 땀을 마시고 수림으로 되었으나
 환희에 찬 걸음에도
 마음 쓸 일은 많기도 하구나

 철없는 애기사슴들아

세상구경 처음 나온
 암전한 버섯을 밟지 말아라
 부지런한 벌들아
 너희네 친구들을 모두 불러오려마
 무던한 꽃들이 꿀을 안고부르는데
 그러다 꽃잎지면 꿀을 어이 다 뜯가

 사랑으로 펼쳐진 이 수림에
 마음 쓸 일은 적지 않아도
 그것 없이야 그것 없이야
 푸르청청 수림처럼
 내 마음 어찌 켜어살수 있으랴

 아, 조국의 드넓은 가슴에
 푸르른 재부를 가득히 안겨주고
 머리에 흰 서리
 쓸어보는 마음이어!

대동강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 조국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

-장편서사시 《대동강》에 대하여-

손승래

오늘 근로자들의 관심속에 널리 애독되고있는 장편서사시 《대동강》(오영재작)은 당의 력도밀에 최근 우리 주체적시문학이 달성한 또하나의 성과작이다.

작품이 거둔 중요한 성과는 무엇보다 대동강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할 조국의 부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서사시적화폭속에 감명깊게 노래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는데 있다.

조국,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더욱 빛내여주시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는것은 오늘 우리 문학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창작적과제의 하나이다.

장편서사시 《대동강》은 기슭을 따라 끝없이 펼쳐지는 대동강의 아름다움과 풍요함을 노래하면서 이 땅에 깃든 모든 사랑과 력도의 력사, 고귀한 재부의 원천을 높은 시적형상으로 폭넓게 일반화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조국에 대한 교양에서 중요한것은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그래야 이 땅에 흐르는 하나의 강, 이 땅에 솟아있는 하나의 산을 두고도 크나큰 민족적경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게 할수 있으며 더욱더 부강해질 조국의 래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바쳐나가게 할수 있다.

그런데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자면 조국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우리 나라는 경치도 아름답고 땅속에 자원도 많아 예로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있다.

장편서사시 《대동강》은 기행체서사시가 중요하게 추구하는 인식적기능을 수행하면서 당의 력도밀에 부강하는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대동강에 의탁하여 낚시군로인과 수옥, 로학자와 개천의 손동무며 그의 안해 옥녀 등으로 대표되

는 《대동강사람》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통하여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바로 여기에 장편서사시 《대동강》이 사람들을 조국애로 교양함에 있어서 가지는 자기의 뚜렷한 몫이 있다.

문학예술작품의 정서적감화력은 그 작품에서만 처음 대하게 되는 새로운 맛, 형상의 독창성에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은 언제나 독창적으로 해야 한다. 끝없이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생활을 반영하는 예술작품마다 특색이 있어야 사람들을 교양하는데서 예술만이 가질수 있는 정서적감화력을 더욱 높일수 있다.》

장편서사시 《대동강》은 우리 나라의 유구한 시가유산의 하나인 기행체서사시형식을 생활의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혁신하여 새로운 형상의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당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개화만발하는 우리의 서사시문학을 더욱 풍부히 하였다. 바로 여기에 서사시 《대동강》이 거둔 중요한 성과의 다른 하나가 있다. 종래의 기행체서사시에서는 주로 시인이 편담한 고장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폐찬하거나 그에 대한 시인의 느낌을 피력한것이 고작이였다.

장편서사시 《대동강》은 기슭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대동강의 아름다움과 풍요함을 노래하면서도 서사시본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인간성격을 통해 형상하고있다.

물론 이전에도 기행체서사시창작에서 성격창조를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대개 주인공의 이름을 설정했을뿐 시인자신의 주정이 위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며 열렬한 조국애를 키워주기 위한 견지에서 대동강의 수려한 풍치와 그 류역에 넘치는 풍만한 생활을 노래하고있다.

때문에 서사시에는 어느 대목에서나 인간들의 형상이 살아움직이고 있다.

실례로 물 좋고 공기 좋고 경치 좋은 풍곡양어장

의 칠색송어떼를 생각할때면 어린고기못가에 앉아 그 독특한 성대로 웅글고 정서깊은 노래를 부르는 구레나룻수령의 풍채좋은 기사장의 미소어린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것은 이 까닭이다.

기행하는 고장마다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것은 인간생활의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들이 창조하고 수호하는 생활의 진실을 이야기하게 하면 독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더 잘 납득하게 될것이다.

작품은 정당하게도 편답하는 고장의 성격과 목적하는 과제에 따르는 다양한 류형의 인간들을 설정하고 각이한 수법으로 천지개벽한 행복의 근본원천을 밝히는데 형상의 각광을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험준한 랑림산맥 깊은 골짜기의 어느 한 바위밑에 시원을 두고 연연수백리 바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류들을 한품에 걷어안고 도도히 굽이쳐흐르는 대동강과 그 기슭바다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정깊은 사랑과 그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인민들의 순결한 마음을 가슴뜨겁게 감득하게 되는것이다.

《…

이번의 편답을 마치며
나에게 하나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이 강을 패수라고 불렀고
대동강이라는 이름은
많은 강들이 보여 흐른다는 뜻으로
근대에 와서 붙인 이름이지요
시대와 인민의 요구에 따라
강의 이름도 달라질수 있지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차넘치는
이 강의 이름을
그이의 존함으로 부르며
또 그렇게 새 지도에 새겨넣고 싶습니다.》

한생을 총화하는 이 교수의
잠언파도 같은 이 말을
나는 감동에 넘쳐 듣고있었다

그이께서 탄생하신 생가가 있고
혁명일가분들의
투쟁의 력사가 새겨진 강
세상에 제일 아름답고 풍만한 강으로
그이 한평생을 바쳐가시며
다스리시어 인민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의 흐름

《교수선생…》

나는 창문에 다가가
일어서는 언제를 바라보며
조용히 흥분에 떨고있는
교수의 손을 잡았다

《대동강의 하구를 봉쇄한
저 갑문을 보며
저도 생각되는바가 있습니다.
수령님의 사랑이 한방울도 새지 않게
굳건히 막아선 저 갑문말입니다.

저 갑문이 있어
그 사랑은 온 나라에
생명의 젖줄기로 퍼지고
저 갑문이 있어
그 사랑은 대를 이어 세월을 넘어
살기 좋은 내 조국땅에
찬란한 번영의 꽃을 피워갈것이 아닙니까

저 갑문이야말로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그 이름과 함께
시대의 대기념비로
사랑하는 조국땅에
후손만대 인민들의 가슴속에
길이 솟아 빛날것입니다.》

맺음사에서 인용한 이 시구절은 시인과 로학자와의 대화인데 바로 이 이야기를 시인은 세상에 하고싶었으며 또 그것은 작품에서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는 사상이기도 하다.

장편서사시 《대동강》은 한갓 기행체형식의 서경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우리인민의 다함없는 충성의 송가이며 사랑과 은정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노래이다.

이렇듯 우리 서사시문학에서 아직 개척되지 않은 기행체형식이라는 새 령역을 독창적으로 혁신하여 사람들의 혁명적수령관확립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게 한데 이 작품이 거둔 귀중한 성과의 하나가 있다.

장편서사시 《대동강》은 예술적형상의 다른 측면에서도 일련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있다.

일반적으로 기행체서사시는 서정성이 우세한 형식이므로 생활에 대한 시인의 깊은 철학적사색을 토로하며 생활도 비교적 다양하고 풍만하게

반영하는데 유리한 점을 가지고있다. 반면에 주제사상이 분열되고 서사적성격창조가 어려우며 구성의 조형미를 보장하기 힘든 난점을 가지고있다.

창작실천에서도 어떤 작품의 경우에는 설정한 주인공의 성격형상보다 시인의 간섭이 전면에 나서고 구성의 짜임새가 부족하여 읽기에 지루하며 또 어떤 작품은 작성과 생활세부는 인상깊지만 역시 시인 이외의 개성화된 성격을 찾아보기 어려운것이다.

기행체서사시가 이무리 형상의 중심에 시인을 세우는 특성을 가지고있다고 해도 서사시인 한에서는 성격창조를 소홀히 할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주인공의 운명선을 따라 일정한 극적줄거리속에서 성격을 그려서는 안된다. 이것은 벌써 자기의 분수를 넘어선것으로 된다. 여기에 기행체서사시에서의 성격형상과 줄거리조직의 고충이 있는것이다.

장편서사시 《대동강》은 서사시로서 응당 구비해야 할 체모를 훌륭히 갖추게 하면서도 기행체형식의 특성을 최대한 발양시킬수 있는 형상의 고리를 찾아냈다.

작품은 시인과 깊은 인연관계를 맺고있는 중심인물을 설정하고 작품의 첫머리와 중간과 마감에 등장시키는 독특한 줄거리로 구성을 엮어나갔다.

그렇기때문에 비록 일관된 사건적인 줄거리는 아니지만 인물들의 정신적미와 이야기의 결말에 대한 동경과 기대를 가지고 작품을 읽어나갈수 있는 강한 견인력을 보장할수 있었던것이다.

실례로 작품의 제3편에서 시인과 수옥의 대화를 통하여 결렬된 수옥이의 사랑이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기대를 독자들에게 주고나서 제3편 첫머리를 수옥의 애인인 명훈의 이야기로 시작하였으며 대동강기행이 끝나는 서해갑문건설장에서 비로소 두사람을 등장시켜 그들의 사랑도 행복한 결말로 매듭짓게 하였다. 여기에 시인과 로학자가 동행하는 이야기를 잘 결합시켰던것이다.

이렇게 작품의 줄거리, 구성의 대가 일정하게 세워짐으로써 거기에 의거하여 사람과 생활을 다양하게 선정할수 있었고 주정도 자유로이 펼쳐나갈수 있었으며 형상도 다면적으로 할수 있었다. 사실 수옥이와 명훈이가 등장하는 대목을 봉우리로 하여 그 좌우에는 얼마나 많은 생활과 철학적 사색이 다양한 수법과 조화를 이루고 반영되어있는가.

장편서사시 《대동강》에서는 시인의 정서적체험도 특색있게 형상되었다.

서사시적성격창조의 가장 주요한 무기의 하나인 서정성은 주로 시인의 정서적체험, 주정토로로 표현되며 그 수법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서사시적정황과 계기, 성격창조의 요구에 맞는 특색있는 주정토로의 방도를 찾아내는것은 작품의 형상성을 높이는 중요한 고리로 된다. 특히 이 문제는 시인의 주정토로에 의한 서정성의 우세로 하여 다른 형식의 서사시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 기행체서사시에서 더욱 절실하게 나선다.

작품은 생활의 씨앗이 박인 시인의 무게있는 주정토로와 함께 작중인물의 내면세계의 토로에 의한 대변의 수법을 적중히 배합하였다.

이것은 작품의 정서적흐름에 다양한 색깔과 굴곡을 주고 시적체험의 진실성을 담보하였을뿐아니라 작중인물들 스스로가 자기의 개성적특징을 드러내게 하는데 훌륭하게 기여하였다.

임의의 실례로 시인이 개천에서 옛 전우를 만나 그동안에 쌓였던 회포를 나누는 대목의 형상이다.

《…

오직 수령님과 당을 따르는
그 믿음이 없고
마음의 기둥이 없다면
견디어낼수 없어요. 단 한시도 이 지점은 고통
을
나는 절망에 쓰러지고말았을것입니다.
희망은 우리 삶에 안정을 주고
지칠줄 모르는 걸음을 주는
정신력의 샘터예요

미제와 우리는
비단 총검으로만 맞서고있는것이 아니라
강한 정신력으로 대결되어있어요
하기에 우리의 또 다른 적은
혁명의 간고성과 장기성에서 올수 있는
권태와 안일

개인의 향락과 가족
민족이 그토록 속망해온
조국통일의 그날을 위해서는
몇번이고 허리띠를 조일수도 있고
비록 찬물에 밥을 말아먹어도
기꺼이 참을수 있어요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고야말겠다는
우리 인민의 정신력이 귀중한거예요
삶의 매 순간마다
이것을 투쟁으로 불태워야
우리는 승리자로 될수 있고
조선의 이 위대한 정신력앞에
원췌는 무릎을 꿇고야말거예요.》

손동무의 안해인 옥녀가 하는 이 말은 결코 어느 서사시에서와 같은 보통 대화가 아니다. 그대로 시대와 민족, 후대들앞에 지니고있는 조국통일의 역사적사명감에 대한 시인의 절절한 호소이며 옥녀자신의 성격적특질을 감수할수 있게 하는 높은 사상정신세계의 발현이다. 그들 세사람이 주고받는 대화과정을 통하여 독자들은 나서자란 고향이며 생활경위, 신념과 의지 등 개성적인 인간풍모를 능히 그려보게 되는것이다.

실로 작중인물에 의한 대변의 수법은 사건과 극적줄거리를 기본으로 하지 않는 기행체형식의 이 작품에서 주정토로의 람용과 일률성, 서사적 묘사의 비만증을 막고 자연스러우면서도 함축성 있게 형상할수 있는 성격창조의 효과적인 방도였다.

작품은 또한 인민들속에 친숙해진 노래며 시, 전설과 이야기, 편지와 일기 등 여러가지 형상 수단과 수법을 다양하게 적용하였다.

형상과제와 계기에 맞게 각이한 수법을 자유로이 선택 리용하는것은 기행체서사시에 주어진 무한한 가능성이다. 따라서 이 유리한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하는것은 작품의 사상에술적풍격을 높이는데서 큰 작용을 하게 된다.

작품에 색깔있게 삽입된 시와 노래, 전설과 이야기, 편지와 일기는 서정성의 우세를 보장하면서 서사적묘사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 기행체서사시본래의 특성을 살리는데서 큰 작용을 높고 있다.

수옥의 일기장을 하나 레로 들어보자.

작품의 앞머리에서 그자신이 시인에게 준 일기장은 제3편 명훈이와의 상봉직후 렬차칸에서 휴가를 마친 갑문전설자들이 친구의 어린아이를 데리고가는 뜨거운 인정미에 접하여 시인이 명훈이의 리기적인 인생관을 두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

는 대목에서 소개되고있다. 이 일기장을 통하여 작품은 수옥이와 명훈이가 헤어지게 되기까지의 사람의 경위며 서로 대조되는 그들의 사상정신세계를 구구한 설명과 묘사가 없이 특징적으로 진실하게 부각하였다. 아무리 각근한 사이라고 해도 처녀가 판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속 비밀이야기를 선뜻 터놓을수야 없지 않는가.

작품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적중히 대조시켜 주제사상을 더욱 뚜렷이 하고 구성의 립체성과 조형미를 보장하고있는데 이것도 기행체서사시에서 적극 살려써야 할 긍정적인 경험이다.

장편서사시 《대동강》을 읽으며 간과하지 말아야 할것은 시인의 높은 시정신과 열정이다.

대동강편답의 고달픈 길을 패히 떠난 시인의 높은 시정신과 형상을 독창적으로 하려는 진지한 탐구심, 무수한 생활과 인간과 아름다운 문제성들을 한가슴에 걸어안고 풍만한 서정으로 융해시킨 뜨거운 열정은 진정 시인본연의 자세로서 작품의 성과를 담보한 근본요인이였다.

부피 큰 작품의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좋다. 독자들은 거기서 시행마다에 어린 시인의 값높은 편답의 걸음걸음을 력력히 보게 될것이다.

시대와 혁명을 대하는 시인의 가슴이 열렬하고 성실한 그만큼 생활도 그에게 새로운 시의 세계를 헤쳐보이는 법이다. 형상의 독창성은 결코 주관적욕망의 소산이 아니다.

그렇다. 시인은 언제나 생활의 진실에 충신했기때문에 기행체서사시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특색있는 형상방도를 새롭게 찾아낼수 있었다.

물론 이 작품에는 아직 더 탐구하고 완성해야 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리고 기행체서사시가 반영해야 할 생활분야도 다양한만큼 그때마다 형상방도를 또 달리 모색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우리 조국의 상징으로 되고있는 어머니강, 대동강의 노래를 기행체형식에 처음으로 궁지높이 담아 노래한것은 최근 우리 시문학의 하나의 자랑스러운 성과로 된다.

우리 시인들은 장편서사시 《대동강》이 시사해준 귀중한 경험을 살려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서사시를 활발히 창작함으로써 《80년대속도》창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해야 할것이다.

기발

송병준

승용차는 푸른 가로수길을 벗어나 곧게 뻗은 옥류교를 달리고있었다. 머나먼 아메리카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조국을 방문하러 온 나는 공장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나는 부풀어오르는 가슴을 안고 차창밖으로 눈길을 보냈다. 다리아래로는 해빛을 받아 번쩍거리는 대동강 맑은 물결을 거슬러 유람선이 오르고 신록이 무르익은 모란봉이 강물에 비졌다.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왔다. 취할듯한 내 조국의 훈향이 가슴을 후더욱게 해준다.

아, 얼마나 소중한 간직해보고싶었던 내 나라 체취였던가.

민족의 얼이 있고 존엄이 있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조국, 그 품이 그리워 해외동포들은 지구의 한끝에서도 눈물짓고 끝날같은 이남땅의 젊은이들은 원쑤들의 교수대에서도 복讎하늘을 우러러 웃음을 보내는것이 아닌가. 내 조국 공장과 농촌, 도시와 마을을 보면 볼수록 나는 그 위용과 억센 숨결을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이 위대한 조국이 있음으로 하여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세상에 자랑하고있는것이 아닌가.

나는 깊어지는 생각을 안고 만수대언덕우에 자리잡은 조선혁명박물관으로 향하였다.

우리가 처녀해설강사를 따라 혁명박물관의 어느 한 방에 이르렀을 때였다. 나는 진렬장에 전시되어있는 한장의 편지에 시선이 끌렸다.

순간 나의 몸은 굳어진듯했다. 흰 종이에 또박또박 정성담아 쓴 몹시 눈에 익은것만같은 글씨와 그옆에 놓인 작은 비닐병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남땅의 아이들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올린 편지였다. 편지는 비닐병에 넣어 마개를 꼭 막은 다음 바다물에 띄워보낸것이 분명했다. 내 가슴은 이름할수 없는 걱정으로 하여 세차게 들먹거리었다.

문득 내 눈앞에는 파도사나운 바다기슭이며, 끼드룩끼드룩 갈매기들이 구슬피 울어에는 고향의 눈물겨운 섬마을정경이 떠올랐다. 파도우에 팔매돌 던지며 갈배를 띄우던 호철이, 수남이, 봉녀... 나의 학생들과 불길처럼 타고오르던 석양노을 아래에서 수갑을 찬 두손을 높이 쳐들고 미소를 짓던 처녀선생 해옥의 모습이 조각처럼 우렁이 안겨왔다.

구절구절 심장을 울리는 편지의 글발, ... 뜨거움에 젖은 나의 가슴속에 잊을수 없는 추억의 물

결이 들물처럼 서서히 밀려들기 시작했다....

1

내가 해옥이를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10여년전 여름, 남녘땅 어느한 섬마을에서였다. 게딱지같이 울망줄망 들어앉은 오막살이들로 이루어진 자그마한 섬마을이었다. 나는 여기에서 몇년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있었다.

해옥이는 얼마전에 어느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학비가 없어서 도중에 공부를 그만두고 누구의 주선으로 우리 학교에 온 녀선생이다. 수수한 옷차림, 현숙한 기품이 보이는 행동, 사려깊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상냥한 목소리... 버들잎처럼 아련해보이면서도 지성이 엿보이는 스물안팎의 예쁜 처녀의 인상은 첫눈에 마음이 끌리었다. 나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 함께 지내기로 했다. 얼마 안되어 우리는 모든 면에서 리해를 같이 하게 되었으며 서로의 마음을 허물없이 줄 벗으로 되었다. 그는 나를 언니처럼 따랐고 나는 나이가 세살이나 아래인 해옥을 동생처럼 사랑했다. 생활의 보호자가 되어...

그가 이 섬에 온지 얼마 안되는 어느날, 나는 혼자서 교수준비를 하고있었다. 사무실문이 열리더니 해옥이가 들어섰다. 배너머마을에 살고있는 수남이란 아이가 어제 학교에 나오지 않아 그를 찾아갔다오는 길이었다.

《빨리 갔다왔군요.》

나는 그의 수고가 헤아려졌다. 온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나오지 않는 애가 있으면 그는 꼭꼭 그 집을 방문하곤했다.

《어제 앓는 아버지대신으로 그 애가 고기배를 탔었더군요.》

해옥은 유순하게 빛나는 눈에 그들을 담고 시름겹게 말했다.

나는 해옥을 위로하고싶어졌다.

《전에는 이 섬에 학교조차 없었어요. 아이 어른할것없이 모두가 까막눈이었지요. 이만한 학교가 선것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제는 교원도 교장을 내놓고 돌이 되었다. 해옥이가 학교에 부임된 이후에 학생들도 더 늘어났다. 그가 섬에 온지는 한달밖에 안되었지만 아이들의 생활에서는 전에 볼수 없었던 새로운 생기가 떠올랐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 어떤 희망의 빛이, 때로 어른다운 사색과 도전적인 열이 어려있기도 했다. 그것은 암담과 지친 절망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다. 그렇다. 분명 해옥이가 온

다음부터 고요하던 섬생활에서는 파문이 일어나고있었다. 그 파문은 어른들에게도 미치는것 같았다. 성미 드센 배사람들은 해옥이와 인차 친숙해졌고 그를 만나면 진심에 넘쳐 인사를 했다. 그 인사는 전날 나에게 하던 인사와는 어딘가 구별되는것이였다.

나는 어른들과 아이들의 생활에서 내비치는 이러한 변화를 해옥이와 결부시키면서 은근히 두려움을 느끼곤했다.

그것은 조용하던 나의 생활을 휘저어놓을것만 같은 불안에서 오는것이였다.

나는 어제 교장한테 불리워가 들은 말이 떠올라서 해옥을 쳐다보며 물었다.

《해옥선생, 지리시간에 우리 섬이야기를 한적이 있어요?》

교수준비를 하던 해옥은 잠시 생각을 굴리더니 나에게 얼굴을 돌리며 물었다.

《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특별한건 아니예요. 교장이 이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선생이 색다른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이 섬이 경기도땅이나 황해도땅이나를 논할 필요가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황해도땅인 이 섬이 휴전선때문에 경기도땅으로 되었지만 그걸 꼬집어 말할 필요는 없어요. 괜히 당국의 비위를 거슬릴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될수록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알아듣도록 타일렀다. 모난 돌이 정에 먼저 맞지 않는가.

해옥은 아무말없이 책상에 그린듯 앉아있었다.

그의 온화한 얼굴에는 그 어떤 울분같은 음영이 비껴있었다.

《난 도대체 이해할수가 없군요. 사실을 말했는데...》

《호호... 선생두 참, 그저 듣고도 못들은체, 보고도 못본체. 이게 가장 좋은 보신책이예요.》

나는 너그럽게 웃으며 혼시조로 말했다. 재부가 곧 권력이고 권력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세상, 독사의 눈초리와 같은 감시가 매 사람에게서 떠날줄 모르는 이 시국에서 진실로 량심을 고백할수 있으며 진리를 말할수 있는가? 그런데 해옥은 이것을 이해할수 없다니?... 그는 지성이 높은 처녀지만 역시 생활에서는 내가 선생이였다.

《?...》

해옥은 놀라운듯 나를 이윽도록 쳐다보더니 말없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는것이였다.

2

승용차는 고층건물이 즐비한 수도의 넓은 거리를 달리고있었다.

나는 언제 혁명박물관을 나와 만수대의 화강암

층계를 내리고 차에 올랐는지 몰랐다.

《엄마, 무슨 생각을 하나?》

승용차에 함께 앉은 딸애의 목소리가 야무지게 들려온다. 눈이 울롱해가지고 나의 얼굴을 쳐다보는 딸애를 보는 순간 이남땅 외진 섬마을에서 내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생각났다.

(그 애들은 이미 결을 떠난 스승의 신념과 귀한 뉘를 고스란히 가슴속에 받아안고 광란하는 파쇼의 압제를 짓부시며 통일의 그날을 위해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아, 해옥이... 그는 벌써 그때부터 그 애들에게 뜨거운 불씨를 안겨주지 않았던가!)

...학교마당가의 버드나무가지에 록음이 우거지던 어느날이였다.

나는 해옥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가로 놀러나갔다. 해옥이도 바다를 무척 즐겼다. 그는 그림그리는 재간도 놀랄만한것이였는데 그의 그림은 대개 바다와 관련된것들이였다.

아이들은 해옥의 화판을 저마다 들겠다고 싱갱이질을 하며 좋아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해초냄새를 머금은 싱그러운 바람이 무거운 중압에 눌러 답답하던 나의 가슴을 후련하게 씻어주는듯했다. 아련하기만 하던 해옥이도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백사장을 힘껏 달음박질쳤다. 그의 은방울소리같은 웃음소리가 멀리멀리 잔물결을 타고 구울러갔다. 나도 눈물이 나올만큼 마음이 벅차졌다. 한때나마 자신들의 불우한 처지를 잊는다는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우리들은 성깔스럽게 뻘쬂뻘쬂 치솟은 창바위 밑에까지 와서는 모래밭우에 털썩털썩 주저앉아 숨들을 태웠다. 바위절벽쪽에 보금자리를 틀고있던 낭비돌기가 구구 소리를 지르며 놀라서 날아났다.

《선생님, 저기 자라바위밑엔 굴도 많고 미역도 많아요.》

량불이 사과알처럼 빨갭게 물든 봉너라는 처녀애가 두발을 바다물에 잠그고 해옥에게 자랑했다.

《행, 그까짓 많으면 뭘하니. <악어>들이 못하게 하는걸.》

목이 상큼하고 얼굴이 가무잡잡한 호철이가 코웃음을 치며 참견했다. 《악어》란 사나운 군견을 가지고 바다기슭에 숨어있다가 누구든지 《금지구역》에 나타나면 무조건 잡아가두고 족쳐대는 괴뢰군경을 말한다.

그러나 봉너는 그 애에게 지지 않으려는듯 눈을 썰썰 빨고는 조개입술을 나풀거렸다.

《그까짓 <악어>를 넌 꽤 무서워하는구나. 선생님, 저기 삼형제바위근방에는 대가리가 큰 망쟁이와 뺨어가 옥실옥실해요. 수남인 해염두 잘치구 낚시질두 이겨요.》

봉녀는 호철이에게 약을 올려주려는데 얼굴이 등칫하고 눈길도 부리부리한 더벅머리사내애를 자랑스럽게 가리키며 엄지손가락을 쑥 내밀어보였다.

수남이는 수집은듯 얼굴을 붉히며 병긋 웃었다.

《그래요?》 .

해옥은 손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문지르며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은 가만있질 못했다. 그들은 눈깜박할 사이에 말쑥한 물속에 자맥질해 들어가서는 굴과 생복이며 가시투성이 성게따위를 한주머니씩 따냈다. 한쪽에서는 고깔불을 만들고 고소한 냄새를 피우며 《수확물》을 굵느라 야단법석이다.

해옥이도 바위우에 화판과 수채화색감이랑 올려놓으며 그림그릴 차비를 했다. 맑고 투명한 바다물은 기슭에 매달려 쉬임없이 굵니고 은빛같은 흰갈매기들은 파도의 비말을 날개로 부스르뜨리며 바다위를 자유롭게 날아였다.

해옥은 화판을 펼치고 굵실대는 바다를 연방 바라보며 그림을 그려나갔다.

나는 호기심이 부쩍 동해 그의 곁에 다가앉아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파도이는 바다위에 돛을 단 배가 어느한 포구를 향해 가는 그림이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 포구가 조구나루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나는 왜그런지 가슴이 울렁거렸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해옥이곁으로 모여들었다.

해옥은 잠간사이에 멋진 그림을 그려냈다.

《선생님, 이 포구가 어디입니까?》

그림을 들여다보던 봉녀가 손가락으로 포구를 가리키며 불었다. 해옥은 여전히 붓질을 하며 나직이 대답했다.

《어디 맞춰보세요.》

아이들은 머리를 기웃거리었다. 두눈을 깜박거리면서 생각을 굴리던 봉녀는 두손을 찰싹 마주쳤다. 큰 발견이나 한듯이 소리를 쳤다.

《조구나루예요! 그렇지요? 선생님.》

아이들은 그 말이 맞다고 떠들어댔다. 해옥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한순간 아이들은 이상한 흥분에 잠겨 그림속의 조구나루를 묵묵히 들여다보기만 했다.

나는 아이들의 얼굴표정에서 무엇인가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있음을 감촉할수 있었다.

얼마후 아이들은 흠어져서 제 하고싶은 장난들을 하며 놀았다. 저쪽에서는 처녀애들이 바다물위에 장난감같은것을 띄워놓고 손뼉을 치며 좋아했고 사내애들은 조약돌을 찾아들고 바다를 향해 저마다 돌팔매질을 하고있었다.

해옥은 화판을 접어놓고 사내아이들한테로 천천히 다가갔다.

《선생님, 우린 누가 이북땅에 돌이 먼저 닿게 하겠는가를 내기하겠습니다.》

수남이가 병긋 웃으며 의젓하게 말했다. 아이들은 돌을 던지면 그 땅에 떨어질것만 같았던 모양이다. 손을 뻗치면 닿을듯이 지척인 조구나루, 이렇게 맑은 날이면 이북의 이로공들이 산다는 아파트의 창문이며 나무잎이 무성한 산이며 룡파이 선명히 안겨오는 등대가 너무도 가깝게 보여 동경심을 부쩍 불러일으키곤했다.

《그래요?! 좋아요. 누가 멀리 던지는가 보지요.》

해옥은 바다건너 뻗히 보이는 조구나루를 바라보며 기쁨에 넘쳐 말했다. 먼저 호철이가 던지기로 했다. 그 애는 먼곳에서부터 호리호리한 몸을 바람처럼 날리며 달려오다가 조약돌을 힘껏 던졌다. 돌은 바다위를 날으는 물새처럼 수면위에 낮게 떠서 찰싹찰싹 물을 차며 나가다가 도중에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순간 아이들의 얼굴에 아쉬운 표정이 질게 어리었다. 다음은 수남이 차례였다. 그 애는 둥근 얼굴에 싱글벙글 웃음을 띠고 천천히 팔을 휘두르더니 그자리에서 쟁충 뛰여오르며 힘껏 돌을 던졌다.

《야!...》

아이들속에서 환성이 터졌다. 수남이가 던진 돌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날아간 것이었다.

《애들아, 수남이 돌이 이북에 떨어진게 아니야?》

한 아이가 두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다.

《글쎄말이야, 분명 그리로 갔어.》

다른 아이가 제눈으로 보기라도 한듯 맛장구를 쳤다. 아이들은 어이가 없다는듯 짜그르 웃어댔다.

해옥이도 환한 웃음을 담았다. 나도 마음이 즐거웠다.

이 명랑한 웃음소리, 이 밝은 표정, 과연 이들의 생활에 언제 이런 환희가 있었던가. 시간이 있으면 부모의 일손을 도와 굴이나 따고 미역이나 쪄던 아이들이었다. 삶을 위한 몸부림에 지치고 우울한 표정만이 얼굴에 어려있던 그들이 어떻게 되여 이처럼 희희낙락할수 있을가, 그 어떤 마술의 힘이 이애들의 뉘에 기쁨을 불어넣었던말인가?

나는 이해할수 없는 눈길로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선생님, 저것 보세요.》

처녀애들속에서 봉녀의 짜랑짜랑한 목소리가 울렸다. 모두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같이으로 제법 배홍내를 내여 만든것들이 천천히 이북쪽으로 흘러가고있었다. 처녀애들은 너무 좋아서 강충강충 뛰었다.

《선생님, 저건 내 배예요, 조구나루로 갑니다.》
봉녀는 출렁거리는 물결을 따라 쓴살같이 흘러가는 갈배 하나를 가리키며 눈물이 글썽해서 소리를 쳤다.

《아, 이북으로 가겠구나.》

한쪽에 서서 손채양을 하고 흘러가는 갈배를 지켜보던 수남이가 부러움에 잠겨 중얼거리었다.
해옥이도 어딘가 가슴이 설레는듯 나직이 입을 열었다.

《전에는 저기 조구나루사람들과 이 섬사람들이 함지배를 타고 아침저녁으로 마실을 다녔다고 해요. 봄명절에는 비교씨름도 하고 쌍그네도 뛰면서 두 포구사람들이 경쟁도 했구요. 그리고 조기가 많이 잡히는 계절에는 대흑산도까지 나가서 물고기를 잡은 다음 이 섬에 들려 모닥불을 피우고 썰과리를 치며 풍어놀이도 함께 하곤 했답니다.》

나는 속으로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섬의 래력을 손금처럼 알고있는것이였다. 그러나 이북땅은 지척이면서도 갈수 없는 꿈속의 천리길 이였다.

이때 흰 구름같은 한때의 갈매기가 이북쪽으로 날아가고있었다.

《선생님, 저 갈매기는 조구나루에 가겠지요?》

수남이가 서글픈 목소리로 물었다.

《가구말구.》

해옥은 조구나루쪽으로 점점히 사라지는 갈매기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언제면 우리도 이북에 가볼까. 이북아이들처럼 언제면 우리도 근심걱정없이 살수 있을까.》

옆에 있던 봉녀가 이슬고인 눈으로 이북땅을 바라보며 목메어 중얼거렸다.

(아니 저 애가?...)

나는 가슴이 섬찝하여 저도 모르게 사위를 조용히 휘둘러보았다. 꼭 무슨 잘못을 저지르다가 들킨 사람처럼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게 아니야.》

호철이가 봉녀의 어깨를 툭 치며 어른스럽게 편잔을 준다.

그러나 해옥은 봉녀를 사랑어린 눈길로 이윽히 내려다보며 확신에 넘쳐 말했다.

《봉녀, 그날은 꼭 올거예요.》

《선생님,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

수남이가 해옥을 간절한 눈으로 쳐다보며 열띠게 부르짖었다. 행복과 희망에 빛나던 해옥의 얼굴표정은 금시에 근엄해졌다. 그는 아이들을 천천히 돌아보며 낮으나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은 미국놈들을 이남땅에서 몰아내고 이땅에 자주와 민주의 새 제도가 서는 날이에요!》

《?!...》

나는 온몸이 오싹해졌다. 당장 《안전기획부》

의 요원놈이 어느 바위뒤에 숨어있다가 뛰쳐나와 덤미를 잡는것만 같았다. 그러나 해옥은 물론 아이들도 그러한 위험따위는 안중에도 없는듯했다. 그대들은 해옥의 말을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닌것 같기도 했다.

누군가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의 소원은 민주

꿈에도 소원은 민주

해옥은 아이들의 어깨를 정답게 잡고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노래소리는 바다위로 힘차게 메아리쳤다. 해옥은 열정이 솟구치는듯 주먹친 팔을 휘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나는 내 생활의 안정이 단번에 깨뜨려져나가는것 같은 환각에 사로잡혀 안절부절 못하였다.

3

어둠이 짙어갔다. 바다에서는 기슭을 썰는 파도소리만이 웅글게 들려왔다.

(해옥이는 어떤 처녀일까?)

나는 바다가에서 돌아오면서 줄곧 이런 생각속에 잠겨버렸다.

나는 처음에 해옥에게서 어딘가 이 사회에 대한 반항의 씨앗을 엿보았고 뜻이 있는 처녀로만 여겨왔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은 기간에 그는 아이들의 녀에 가늠할수 없는, 이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반항의식을 심어준것만은 틀림없었다.

그것은 마침내 폭발할것이고 그렇게 되면 해옥이 자신은 물론 나도 아이들도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나는 저으기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웠다.

밥술이나 먹는 배목수의 집에서 자라난 나에게게는 오래전부터 가슴속에 소중히 품고있는 꿈이 있었다. 안정되고 골절없는 생활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돈을 벌어서 공고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것이 무엇보다도 나에게게는 귀중하였다. 무엇때문에 분별없이 정치운동에 나섰다가 감옥에 끌려가고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지겠는가.

물론 나도 민중을 위해 바치는삶이 값있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부조리한 이 세상을 바꾸어야한다는것을 안다. 그러나 이 반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가. 나는 그를 자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이 벗으로서 생활의 선배로서 도의를 다하는것이 아닌가.

저녁을 먹은후에 나는 해옥이와 마주앉았다.

나는 될수록 생활적인 이야기로 말꼭지를 뗐다.

《해옥선생, 이 섬에 얼마나 오래 있겠어?》

《글쎄... 어쩐지 이 섬에서 살고싶어요. ... 송

희선생은 이 섬을 떠날 생각이예요?)

해옥은 귀밀을 살짝 붉히며 말하다가 문득 물었다.

《어느 때든지 떠나야겠지...》

나는 떠날것이다. 그날은 안온한 생활이 담보된 내 꿈이 실현된 때일것이다.

《집에는 누가 있어요?》

이번에는 내가 물었다. 나는 그와 무척 가까우면서도 그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있었다.

해옥은 금시 낮빛을 흐리며 쓸쓸히 웃었다. 나는 묻지 말아야 할것을 묻은것만 같아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열어놓은 창밖 어딘가를 바라보며 잠시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고향은 남해바다가의 한 도시였다. 아버지는 썰타기 몇대를 차려놓고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가였다. 매판자본가의 드센 발톱에 목을 졸리운 아버지의 기업은 하루아침에 술한 빛을 걸머진채 파산되었다. 아버지는 너무도 통분하여 목을 매달아죽는것으로 세상의 불의에 항거했다. 늙은 어머니는 남편의 죽음을 놓고 몸부림치다가 얼마후에 끝내 두 오누이를 남겨두고 저세상으로 갔다. 그때 해옥은 전남대학에서 공부를 하고있었다. 그무렵에 도시에서는 자주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그러나 해옥은 시위에 나가지 않고 그때마다 도시관에 박혀 책을 읽곤했다. 동생과 함께 아침저녁으로 식당일을 해주며 공부를 하는 처지에서 다른것에 정신을 팔 겨를이 못되었던것이다. 그리고 시위투쟁이 무섭기도 하고 겁도 났다. 외롭게 남아버린 오누이, 이제 그 어떤 불행도 더 용납할수도 이겨낼수도 없는 해옥이었다. 애인인 박형민은 해옥에게 시대의 관조자가 되지 말고 싸움의 기발이 되어야 한다고 일깨워주곤했다. 했으나 해옥은 동생까지 엄하게 단속하며 시위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동생은 누나에게 걱정 말라고 이르면서 거리로 뛰쳐나가곤했다. 해옥은 안타까웠다.

공부나 착실히 했으면, 이것이 사랑하는 동생에 대한 기대였다. 드디어 싸움이 터졌다. 수많은 학생시위군중들은 각목과 화염병을 들고 불을 뿜는 원쑤의 땅크와 장갑차 앞으로 노도처럼 밀려갔다. 그들은 경찰과 맞섰다. 미체의 조종밑에 파쑈피뢰악당들은 드디어 야수의 본성을 드러냈다. 도시에 피뢰놈들을 개처럼 풀어놓았다. 항쟁의 거리는 피로 물들었다.

해옥은 그속에서 동생 해남이를 찾으려고 헤매었다. 시민들이 모인 어느 한 건물에 이르러 무심중 그 집안을 들여다보던 해옥은 그만 악 소리를 치며 비칠거렸다. 가슴에 총탄을 받은 해남이

가 박형민의 품에 안겨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었던것이다.

《해남아, 해남아!》

해옥은 사람들을 헤집고 동생에게로 허둥지둥 달려가 외락 부둥켜안으며 부르짖었다. 두눈을 부릅뜬채 거리에서 날치고있는 피뢰경찰놈들쪽을 노려보던 해남은 누나를 보자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띠우며 띠엮띠엮 입을 열었다.

《누나, 난 죽어, 민주와... 자유를... 못찾고...》

《해남아 안돼, 넌 죽으면 안돼, 너까지 없으면 난 어떻게 산단말아나.》

해옥은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해남의 어깨를 잡고 소리쳤다. 해남의 흐려지는 두눈에서도 맑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박형민에게 말했다.

《형님, 우리 누난... 참 좋은... 누나... 누난 어떻게... 아, 자유!... 민주를!...》

해남은 끝내 말끝을 맺지 못했다.

《해남아! -》

해옥의 애끓는 울부짖음에 격노한 시위자들은 두주먹을 틀어쥐었다. 이렇게 사랑하는 동생 해남이는 한떨기 꽃으로 노호하는 남녘땅우에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두었다. 그리도 절절하게 소원하던 민주와 자유를 위해...

《내 손목을 잡고 숨을 거두면서 민주와 자유를 부르짖던 동생의 그 목소리가 이 가슴에 사무쳐있어요. 만약 이 땅에 민주와 자유가 있었다라면 내 동생도 시위에 펼쳐나섰던 학생들과 시민들도 그렇게 무참히 죽진 않았을거예요.》

해옥의 목소리는 격하게 떨렸고 두눈에는 뜨거운 이슬이 흥건히 고이였다. 나도 가슴이 찢기는 듯했다. 그는 너무도 큰 슬픔과 아픔을 안고 사는 처녀였다. 해옥은 얼마후에 손수건으로 눈굽을 닦고 한결 밝아진 어조로 말했다.

《그 박형민이란 사람의 고향이 이 섬이랍니다.

그이는 저를 보고 섬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섬에 가면 학교가 있고 동생같은 아이들이 있다고... 저는 동생이 죽은 다음에야 모든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 싸움에 나서지 못하고 동생까지 막아나섰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정말 왜 일찌기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지...》

해옥은 자책에 잠긴 어조로 말하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가 어떤 뜻을 안고 이 섬에 왔는가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을 자기 동생처럼 사랑했고 그애들에게 이 세상의 불의를 깨우쳐주려고 애쓰는것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그러다가 해옥이까지도?... 나는 생각할수록 몸서리가 쳐졌다. 그리고 불시에련민의 정이 끓어올랐다. 나는 조용히 위로의 말을 했다.

《해옥선생, 나두 민주와 자유를 바라고 통일을 원해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도 값비싼 대가를 바쳐야 하지 않아요. 시위를 하고 폭동을 일으켜도 당국은 날을 따라 더욱 포악해지고...》

나는 해옥이가 얼굴을 번쩍 들고 물끄러미 쳐다보는 바람에 그만 입을 다물고말았다. 그 눈길에는 오히려 나를 측은해하는 빛이 어려있었다.

그는 나의 말에 조금도 공감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나는 몹시 서운했다. 어딘가 야속스러운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다. 바다가 몹시 뒤설레이고있었다. 마파람이 불어오는것이 폭풍우가 일어날것 같았다. 마음은 벼랑끝에 선것만 같고 지금까지 고이 간직하고 있던 나의 보라빛 꿈은 줄지에 산산이 부서져나갈것만 같았다.

그러나 해옥의 부드러운 얼굴에는 그 무엇으로 써도 꺾을수 없는 역센 표정이 비껴있었다.

그날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꼭 풍랑이는 쪽배우에 탄것 같은 번거로움때문이었다. 각일각 섬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해일처럼 알지 못할 불행이 점차 나의 생활을 위협하는것 같아 잠을 자다가도 소스라쳐 깨어나곤했다. 그러다가 얼핏 잠이 들었다.

...해빛이 짙은 한낮이었다.

파도는 얼마나 세차게 이는지 바위벽에 부딪쳐 하늘 높이 솟구친 바다물이 마당에까지 쏟아졌다.

해옥은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백사장상으로 달리였다. 산갈은 파도가 노호하며 밀려들더니 기슭에 부딪쳐 통채로 하늘로 치솟는다. 그 거창한 물줄기가 떨어지는 날에는 바위도 박살이 날것 같았다. 나는 겁이 들어 그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안타까이 몸부림쳤다. 그런데 해옥은 하늘로 치솟은 파도를 한품에 안을듯 두팔을 높이 쳐들고 우렁찬 목소리로 웨친다.

《파도여! 더 세차게, 더 높이 솟구치라. 이 땅에 격랑을 들썩우라!》

아이들도 같이 두팔을 높이 뻗치고 소리친다. 하늘에 치솟은 파도는 해빛을 받아 오색령롱한 보석덩어리처럼 빛을 뿌린다. 드디어 그 보석덩어리같은 물줄기가 우리같은 소리를 지르며 해옥이와 아이들에게 들썩워진다. 나는 《악》소리를 치며 물러난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해옥은 크나큰 희열을 느끼며 여전히 두팔을 벌리고 거연히 서있다. 아이들도 해옥이처럼 기쁨에 겨워 어쩔줄 몰라한다. 파도가 또다시 밀려와 높이 솟구쳐오른다. 이번에는 나에게 사정없이 들썩운다.

나는 너무도 놀래여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나뒹군다. 물줄기는 내 머리며 뭉뚱이를 두들겨패더니 입을 한껏 벌린 바다속으로 떠밀고 들어간

다.

《해옥선생!-》

모지름을 써가며 부르고 불러도 목소리가 입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해옥이는 의연히 아이들과 함께 파도속을 춤추듯 걸어간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목이 터지게 그를 불렀다. 그때야 해옥이가 나를 알아보고 달려와 손을 잡아일으켜준다...

나는 온몸에 식은땀을 쭉 흘리며 눈을 떴다. 꿈이었다. 나의 눈앞에는 정말 해옥이가 앉아있었다. 그는 웃고있었다.

《송희선생, 어디 아파요? 왜 자꾸 나를 찾아요?》

해옥은 여전히 미소를 머금고 손수건으로 땀이 흐르는 나의 얼굴을 씻어주며 물었다.

《꿈을 꾸었던가봐요.》

나는 열적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떤 꿈이게요?》

해옥은 호기심이 반짝거리는 눈으로 나의 얼굴을 부드럽게 내려다보며 물었다.

《무서운 꿈이었어요. 해옥선생이 아니였다면...》

생각만 해도 오싹 소름이 끼쳤다.

그러나 해옥이가 다음이야기를 기다리고있음을 감촉한 나는 꿈이야기를 뜨직뜨직 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난 해옥이는

《역센 기상을 안은 바다, 그 바다의 용맹과 슬기가 얼마나 좋아요.》 하며 사뭇 즐겁다는듯 호호 웃었다. 그러니 결국 해옥의 가슴속에서 사뭇 일어나고있는 놀라운 변화를 모름지기 내가 꿈을 꾸것으로 대변한것이 아닌가...

바다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노호하고있었다.

4

날을 따라 나의 번민은 더욱 짙어갔다. 더우기 《칼치》라는 별명을 가진 《안전기획부》의 섬 담당요원님을 만난후부터 그 공포감은 더했다. 그자는 학교에 나타나서 빙빙 돌다가 나를 교장실로 불러서는 해옥이에 대하여 캐어묻고 일거일동을 잘 감시하여 자기에게 알려야 한다고 율렷했다. 그 협박이 꿈속에서도 나의 마음을 괴롭혔다. 해옥에게 《칼치》가 한 수작을 말해주었으나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을뿐이었다.

나는 더 참을수가 없었다. 차라리 내가 이 섬을 떠나든지, 그가 떠나든지 해야 할것 같았다.

이것이 내 생활을 보존하는 유일한 출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우리 둘사이에는 끝내 심각한 언쟁이 있게 되었고 먼 후날에 가서도 나는 해옥의 가슴에 못을 박은것으로 하여 아픈 마음을 가실길 없게 되었다.

그날은 공부를 끝마친 방파후였다.

해옥은 학생들의 집에 가정방문을 떠났고 나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작문시간에 지은 아이들의 글을 한장한장 번지며 읽고있었다. 그동안 아이들의 글재간이 퍼그나 늘었다는 생각을 하며 봉녀의 학습장을 펼쳤다. 글줄을 읽어내려가던 나는 그만 깜짝 놀랐다. 누가 보지 않나 해서 얼굴을 들었다가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글줄에 눈길을 박았다.

사나운 파도를 해가르며 씩씩 달려요
선생님 그려주신 돛배도
내가 만든 갈배도
가고가고 또가서 닿는곳 그 어딜가
언제나 가고싶은 이북땅 조구나루
...

정말 아이들이 해옥에게서 물을 먹어도 단단히 먹는게 틀림없었다. 나는 속이 한줄만해졌다. 《안전기획부》요원놈의 손에 들어가면 어찌할번했을가

내가 아이들의 학습장을 들고 어찌할바를 모르고있는데 가정방문을 갔던 해옥이가 이마에 내똥을 땀을 훔치며 사무실로 들어왔다.

《해옥선생, 이걸 좀 보세요.》

나는 급히 봉녀의 학습장을 그에게 내밀었다.

《왜 그래요?》

해옥은 학습장을 받아들며 사색이 된 나의 얼굴을 의혹이 서린 눈길로 쳐다보는것이였다.

해옥은 봉녀의 학습장을 퍼들었다. 나는 그의 얼굴표정을 살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글을 읽는 해옥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오르고있었다. 그것은 손아래 동생들이 한 일을 대견스럽게 여기는 누나의 흐뭇한 웃음이었다.

《?...》

나는 실망과 노여움이 들었다.

해옥은 학습장을 책상우에 놓으며 미소를 머금고 입을 열었다.

《송희선생,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장하고 대견스러워요.》

나는 그만 입이 굳어져 말이 나가지 않았다. 이제 더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내버려둘수 없었다.

《송희선생, 학생들에게 주의는 주자요. 하지만 애들의 이 소중한 뜻을 키워주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해옥은 내 낯빛이 변하는것을 보고 타이르듯 부드럽게 말하는것이였다.

《됐어요. 차라리 내가 여기를 떠나겠어요. 여기를!》

해옥의 말과 행동이 갈수록 낭떠러지 한끝에

서있는것처럼 위태롭기 그지없다고 생각한 나로서는 달리 말할수 없었다.

《떠나다니요?》

해옥은 아연하여 반문했다.

《내 생활에서 파동이 일어나는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리고 해옥에게도 좋고...》

《?!...》

해옥은 피기가 가신 얼굴로 나를 처음보는 사람처럼 유심히 바라보는것이였다. 그의 두눈에는 심장을 짜늘하게 하는 실망의 빛이 서서히 어리었다.

《너무하군요. 그거야 날 보고 떠나라는 소리겠지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두고... 내 동생처럼 생각하며 언제까지든 함께 살아갈 내가...》

해옥은 고개를 떨구며 괴롭게 중얼거려였다. 나는 그의 말을 다 들을수가 없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그자리에 있을수가 없었다. 정신없이 밖으로 뛰어나와 바다가를 걸으면서야 해옥의 가슴을 아프게 침질했다는 때늦은 후회가 나를 괴롭혔다.

...학교는 발각 뒤집혔다. 물에서 경찰들이 더 쓸어들었다.

그처럼 우려하던 불행이 이렇게 빨리 닥쳐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칼치》는 아이들은 물론 나와 해옥의 필적까지 검열했고 교장실로 한 아이씩 불러다가 달고쳤다. 누군가 이북에 편지를 써서 비닐병에 넣어 바다물에 띄웠는데 그중 하나가 이북으로 흘러가지 않고 《칼치》의 손에 들어간것이였다.

나는 가슴이 죄여들어 머리를 싸쥐고 교원실에 앉아있었다. 손기척도 없이 문이 벌컥 열렸다. 얼굴이 파랗게 질린 봉녀가 들어왔다.

《?...》

《선생님, 수남이가 잡혔어요.

봉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쿵쾅거렸다.

나는 눈앞이 아찔했다.

《누가 편지를 쓰라고 시켰느냐고 막 때려요.》

나는 봉녀의 말을 꿈속에서 듣는듯했다.

《수남이가 왜 잡혔단말이나?》

나는 아직도 사건의 전말을 몰라 어정쩡해서 물었다.

《우리가 편지를 썼어요.》

봉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해옥선생님은 아느냐?》

《아무도 모르게 썼어요.》

나는 아이들이 너무도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억이 막혔다. 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해옥을 만나러 교실로 달려갔다.

해옥은 창가에 굳어진듯 서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방금 수업을 시작하려는 선생과 같은 태연한 기색이 어려있었다.

《해옥선생, 수남이가...》

나는 겁에 질려 말을 더듬거렸다.

《나도 방금 알았어요.》

해옥의 목소리는 놀라우리만치 조용했다.

《이 일을 어쩌문 좋아.》

나는 속이 한줌만해지는것 같았다. 그러나 해옥은 조금도 서두르는 빛이 없이 침착한 표정을 담고 《송희선생, 걱정마세요.》 하고 나직이 말하는것이였다. 그 어조에는 비장한것이 깔려있는듯했다.

바다에서는 썩-아, 처절씩 기슭을 때리는 파도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저 바다를 보니 아이들과 함께 팔매돌을 던지고 갈배를 띄우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해옥의 목소리는 평온하게 울렸다.

《선생은 참...》

나는 목이 짹 메여왔다. 불행이 닥쳐온 이 순간에 조구나루로 갈배를 띄워보내며 복讎을 그리던 애들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속에 나로서는 리해할수 없는 것처럼 크나큰 그 무엇이 세차게 소용돌이치고있는것이 분명했다. 그는 나의 손을 꼭 잡으며 다정히 말했다.

《송희선생, 나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요. 어떻게 사죄했으면 좋을지...》

나는 그만 눈물이 쿵 솟아 고개를 돌리고말았다. 졸연간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세차게 끓어번졌다.

순간 나는 고향산천의 정갈한 시내물이 비낀듯 고요히 빛나던 그의 맑은 눈동자에 무엇인가 불길처럼 타오르고 굳은 의지가 번뜩임을 감촉했다.

이때 교실문이 벌럭 열리였다.

《작별인사라도 하는가?》

빈정거리는 목소리 임자가 《칼치》임을 알아보자 나는 온몸이 굳어지는듯했다. 놈은 교실로 들어와 교탁옆에 있는 의자에 엉덩짝을 붙이더니 살기어린 낮짝에 차디찬 미소를 띄우고 한마디 한마디 찌르듯 말했다.

《송희선생, 이북에 편지를 쓴 애새끼가 선생의 학생이였더군. 담임선생은 이 사실앞에서 책임이 없는가?...》

《...》

나는 대답할수가 없었다. 그저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기만했다.

《애새끼를 끌고 와!》

놈이 문턱에 선 경찰에게 소리쳤다.

얼마후에 수남이가 교실로 끌려왔다. 어린것이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얼굴이 푸릿푸릿 멍이 들고 입귀가 터져 빨간 피가 턱에까지 흘러내렸다. 그래도 그 애는 아무렇지도 않은듯 멍멍하게 고개를 들고있었다.

나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것만 같았다. 아이들은 교실 한쪽에 몰려서서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뿐이였다.

《이새끼가 저쪽에 편지를 썼다. 애새끼 혼자서 그렇게 할수 없을텐데. <반공법>에 걸리면 어떻다는걸 알지. 애새끼들을 모조리 끌고갈테다.》 하고 짹소리친 《칼치》는 의자를 차고 벌떡 일어났다. 나는 그만 눈앞이 캄캄해왔다.

(아, 어떻게 하면 중단말인가...)

나는 두눈을 꼭 감으며 입술을 피터지게 깨물었다.

《좋다. 가자!》

《칼치》는 맵새눈을 부라리며 수남의 손을 나누쳤다.

이때 내옆에 서있던 해옥이가 나의 손목을 짹 쥐더니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애를 놔둬요.》

그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그의 목소리가 우뢰처럼 나의 가슴에 마쳐왔다. 놈들도 얼떨떨해져서 해옥의 거동을 지켜보기만 했다.

해옥은 수남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꺼내들고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는 말없이 그 애의 피흐르는 입귀를 씻어주는것이였다. 멍이 든 얼굴을 두손으로 쓸어주고 벗겨진 단추도 꼭꼭 채워주었다. 아이들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해옥은 엄한 눈길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울고있던 봉녀가 손등으로 눈물을 이리저리 씻을 때까지 해옥은 한방울 이슬이 고인 타는듯한 맑은 눈동자속에련민의 정을 담아 지켜보더니 《칼치》앞에 돌아섰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칼날같았다.

나는 심장이 딱 멎는듯했다. 설마 그가 이렇게까지 나을줄이야. 그는 편지를 쓴것조차 몰랐지만 아이들에게 위험이 닥쳐온 순간에 자기 한몸으로 그들을 막아나선것이였다. 나는 불시에 가슴이 쩡 울리고 눈곱이 뜨거워올랐다.

《선생님!》

수남이가 금방 눈물을 쏟을것 같은 눈길로 해옥을 쳐다보며 부르짖었다.

《음, 그러면 그렇겠지...》

《칼치》는 자기의 판단에 흡족한 모양인지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우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야, 뭘하고있어!》

그자는 말뚝처럼 서있는 경찰놈들에게 짹 고함을 질렀다. 경찰이 황급히 해옥의 손목에 수갑을 철컥 채웠다.

《선생님!-》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해옥에게로 욱 밀려들었다. 해옥은 광채가 빛나는 눈길로 아이들을 한명 한명 인찍듯 더듬었다.

정들은 아이들, 미상불 생명보다 더 사랑했으며 앞으로도 자기의 사랑을 더 부어주어야 할 귀중한 아이들, 애무에 찬 그의 눈길에는 못다준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과 무엇인가 마지막 부탁을 하는 구슬픈 여운이 있었다. 그는 교단위로 천천히 올랐다. 마치 교수를 하듯 겹겹이 막아선 학생들을 타는듯한 눈길로 둘러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학생들, 공부 잘하세요. 그리고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또다시 흐느껴울며 해옥에게 매여달랐다. 자기들의 꿈을 키워주고 지켜준 스승인, 원한많은 이 세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려준 살뜰한 누나이며 언니인 해옥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본능적인 감정이 폭발한것이다.

《칼치》는 더 지체해야 상서롭지 못할것 같았던 지 경찰을 보고 빨리 끌어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음산한 구름이 덮인 바다는 폭풍우가 일어날듯 세차게 뒤설레이고 있었다.

해옥은 두려움없이 배우에 서서 바다가로 달려나온 아이들과 섬사람들을 애절한 눈길로 바라보고있었다.

바다물은 길길이 솟구치며 기슭을 안타까이 물어뜯고 갈매기들은 해옥의 머리를 맴돌며 애처롭게 끼적거렸다.

나는 얼굴에 미소를 담고 고개를 들어 자유로운 갈매기들을 한동안 부러운듯 바라보고있는 해옥이를 얼없이 지켜보았다. 그것은 언젠가 꿈에서 본, 사나운 파도를 들쓰고도 회열에 넘쳐있던 해옥의 그 모습을 방불케 했다.

그는 천천히 북쪽하늘가로 눈길을 돌리는것이였다. 죽어도 못잊을 이북땅, 한번 가보고싶던 조구나루!...

나는 영원히 잊어버릴지도 모를 해옥에 대한 비통한 생각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막을수가 없었다. 그 눈물속에 나는 비로소 인간의 참모습을 보는듯했고 아이들을 지켜준 고마움을 마음속으로 뜨겁게 간직했다.

문득 나의 귀전에는 광란하는 거리에서 쓰러지며 부르짖은 해옥의 어린 동생의 목소리가 쟁쟁히 울려오는듯했다.

《아, 자유!... 민주를!...》

아, 해옥은 그래서 저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너는 한없이 소중한 자유와 민주를 위해 그렇게 웃으며 떳떳이 가는구나... 해옥은 나에게 눈길을 박고 그 어떤 기대와 믿음을 주듯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나는 눈물속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발동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생님-》

놀라고 억울한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오열을 터치며 아이들이 바다물에 빠지는줄도 모르고 배를

잡을듯 달려나갔다.

해옥을 실은 발동선은 도망치듯 속력을 놓았다. 해옥은 수갑을 찬 두손을 높이 들고 억세게 흔들었다. 불시에 서편하늘 한귀퉁이가 빠금히 열리더니 피빛같은 석양노을이 부채살처럼 흘러퍼졌다.

그 찬란한 붉은 노을빛을 받고 거연히 서있는 해옥은 한쪽의 기발과도 같았다. 격량은 더 세차게 일었다. 하늘과 바다가 하나의 용암처럼 무섭게 뒤번지는 수평선너머로 배는 점점이 사라졌다....

×

나는 지금 호텔의 로대에 서서 불야경을 이룬 수도의 밤거리를 바라보고있다. 쉬임 없이 흐르는 차들의 불빛, 거리는 잠들줄 모르고있다.

팔아가 쪼르르 달려와 나의 품에 안긴다. 그애는 고사리같은 손으로 나의 눈굽을 문지르며 이상해서 묻는다.

《엄마 왜 우나?》

나는 그때에야 이 세상에 없는 해옥을 추억하며 눈물을 보이고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해옥은 속절없이 스러진 하나의 꽃잎이 아니였다. 그는 이남땅에서 자유와 민주를 위한 투쟁에 꽃다운 청춘을 바치고 우리결을 떠나간 한없이 고결한 인간이였다.

나는 그후에 학교에서 쫓겨나고 실업자의 대렬에서 헤매이다가 해외에 가서 살면서 신문을 통해 해옥이가 키운 제자들이 한점의 불꽃이 되어 이남땅 도처에서 굴함없이 싸우고있음을 알게 되였다. 서울... 광주... 이남땅 그 어디에서도...

다만 세월이 흘렀어도 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것은 그 누구보다 불행했던 해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보신과 안락때문에 그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나보낸것이였다.

나는 조선혁명박물관의 진렬장앞을 떠나올 때 그 편지가 내 제자들의 눈에 익은 글씨라고만 생각하여 다시한번 여겨본 다음순간 그것은 분명 내 제자들이 쓴 글이 아니였던것이다. 그 독특한 글귀와 문체에서도 복讎을 절절히 그리는 이남민중의 체취가 한결같이 풍겨오지 않는가. 나의 일생에서 단 한번밖에 없는 강렬한 인상으로 뿌리박혔으며 내 생활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가장 중요한 계기로 된 사건이기에 이 글이 내 제자들이 쓴 글로 착각을 일으켰던것이다.

아니면 어떠랴. 이남민중의 마음을 담은 편지는 오늘도 래일도 사나운 파도와 광풍을 뚫고 바다처럼 흘러오지 않는가.

그렇다. 그 흐름속에 나라의 지맥은 이어지고 조국통일의 밝은 날은 오고야말것이며 해옥이와 같은 젊은이들이 바친 념원대로 이남땅에도 민주와 자유의 화원은 만발할것이다.

생활에 대한 개성적탐구와 특색있는 묘사

리병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과 생활이 다양한것만큼 현실을 반영하는 예술도 다양하게 되어야 하며 현실에 있는 모든 사물과 현상이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있는 구체적인 존재인것만큼 그것을 반영하는 예술도 구체적이고 특색이 있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인간과 생활이 다양하고 사물과 현상이 각기 자기의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있는 구체적인 존재인것만큼 그것을 반영하는 예술이 구체적인 특색이 있어야 한다. 비반복성, 독창성이야말로 작품의 사상에술적질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의 하나이다. 최근 단편소설창작에서 이룩된 성과의 하나는 작가들속에서 생활을 개성적으로 탐구하고 특색있게 묘사하려는 노력이 일정하게 높아진 것이다.

단편소설 《마음의 계절》, 《터전》, 《산촌의 미소》, 《고향》 등은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으나 인간의 내면세계를 비교적 생동하게 보여주었을뿐아니라 그 표현형식과 묘사수법에서도 특색있는 작품들이다.

우의 단편소설들이 생활소재나 내용에 있어서 현실속에 흔히 있는 사실을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화적미담에 그치지 않고 깊은 감동을 주는것은 생활에 대한 개성적탐구에 기초한 묘사의 독창성과 관련된다.

단편소설 《터전》, 《마음의 계절》은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심리정서적으로 파고들면서 우리 시대의 참된 간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생동하게 그려였다.

단편소설 《터전》은 류광열과 박춘갑의 인간관계를 현시점에 놓고 지난날 광산개발의 역사를 더듬어나가는 류광열의 내면세계를 통하여 광산개발에 깃든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넋을 보여주었다.

작가는 항일혁명투사인 오동식의 투쟁내용만을 가지고도 능히 감명깊은 형상을 창조할수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오동식의 값높은 삶의 고귀한 혁명정신은 류광열과 박춘갑의 내면세계를 통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심화되었기때문에 받아안은 충격이 크

다.

물론 작품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오동식의 성격이 개념화된 부족점도 있다. 그러나 소설이 거둔 성과의 하나는 광맥을 찾는데 30여년을 바쳐온 지질기사 류광열의 광맥탐사선과 항일혁명투사들의 고귀한 업적을 찾기 위하여 고심하여온 력사학 전문가 박춘갑의 혁명사적발굴선을 한점에 일켜시켜놓고 과학자가 되기전에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는 심각한 문제성에 대한 예술적해명을 준것이다.

《그렇소. 우리는 이 이 녹슬이끝에서 수많은 광맥을 얻어냈소. 하지만 나는 더 고귀한것을 놓고 살았단말이요... 나는 광산탐사에서는 언제나 신중했고 한번도 속단하지 않았지만 오동식동지에 대해서는 너무도 경솔하게 단했소. 오동식동지에 대하여 내가 좀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하고 함부로 속단하지 않았다면 벌써 일찌기 모든걸 알아냈을지도 모르오.

정말 과학자로 되기전에 먼저 혁명가가 되었었다면 쇠덩어리를 알기전에 인간을 알수 있었을게 아닌가...》

작가는 또한 소설의 마감에 가서 다음과 같은 의미깊고 서정이 짙은 묘사로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부각시켰다.

《풍성한 거목에는 반드시 깊고도 역센 뿌리가 있는 법이다. 하나 뿌리란 땅속에 묻혀있는것이여서 그것이 주는 혜택과 고마움을, 그 중요한 역할을 참담게 알기란 그리 쉬운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늘 혁명의 뿌리에 대해서 강조하는것이 아니겠는가!》

독자들은 이 문장을 다시 되새겨읽고 음미하면서 류광열이가 살아온 한평생과 더불어 자신들의 생활을 돌이켜보게 된다.

작가는 이 철학적깊이가 있는 함축된 묘사를 60년가까이 살아오면서 30여년간을 광맥개발에 전념하여온 류광열의 생활과 밀착시켰기때문에 생활이 가져다준 교훈으로, 누구나 가슴뜨겁게 받아안은 좌우명으로 되게 할수 있었다.

과학자가 되기전에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는 진리는 물론 풍성한 거목에는 깊고 역센 뿌리가 있는 법이라는 말은 다른 작품들에서도 적지 않게 리용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깊

은 사색과 여운을 주며 사상정서적공감을 불러일으키는것은 생활과 밀착시켜 성격론리에 맞게 묘사를 심화시킨데 있다.

단편소설 《마음의 계절》도 주인공 주영표의 아름다운 내면세계, 가식과 변심을 모르고 언제나 굳세게 살아가는 충성심을 주현옥의 내면세계에 굴절시켜 보여준 성과작의 하나이다.

소설은 주현옥과 임철모의 애정관계를 휴양생활에서 우연하게 맺어지게 한 부족점을 비롯하여 하나의 실화문학을 연상케 하는 점도 없지 않으나 초소를 가리지 않고 혁명에 전심하는 우리 시대 숨은 영웅의 모습을 생동하게 그리었다. 특히 정문관리원이 된후 정문의 출입질서를 철저히 확립하고 엄격히 단속하는 주영표의 주인공다운 모습은 묘사의 생동성으로 하여 현실에서 직접 체험하거나 눈으로 보는듯한 감을 준다.

이러한 생동한 묘사는 작가가 아무리 고심하여도 현실체험이 없이는 심현될수 없다.

혁명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 어떤 초소도 가리지 않고 전심하는 주영표와 길은 인간은 현실에서 보기 드문 인간도 아니며 이와 류사한 인간을 그린 작품 또한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영표의 형상이 생동한 개성으로 부각될수 있는것은 묘사의 참신성과 관련된다.

작가는 창고장을 그만두고 정문경비원을 자원하여 말아나선 주영표의 주인공운 태도와 아름다운 소행을 로출시키지 않고 밑에 깔았다. 다만 주현옥의 오해를 전면에 내놓고 심화시켜나갔다.

작품의 마감에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리해하지 못하였던 딸의 심각한 뉘우침과 자책으로 결속지었다.

오해선을 리용하여 긍정을 부각시키는 형상수법의 리용은 그 어떤 명예도 보수도 바라지 않고 당과 혁명을 말없이 받들어나가는 숨은 영웅들의 웅심깊은 성격적특징을 밝혀내는데 이바지하였다.

단편소설 《터전》과 《마음의 계절》의 창작경험은 생활을 개성적으로 탐구한 기초우에서 인간의 내면세계를 심리정서적이고 분석적인 묘사로 펼쳐보일 때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창작에서 독창성은 생활의 구체적내용이 서로 다른데도 있지만 표현형식과 묘사수법을 새롭게 하는데서도 나타난다.

창작은 본질에 있어서 새로운 형식, 새로운 형상수법의 끊임없는 창작리용과정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하나의 형상수단, 묘사수법이 완성되기까지에는 때로 몇대를 거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여기로부터 작품을 대할 때 비록 불완전하다하더라도 작가가 새롭게 시도한 참신한 싹을 발견하고 그것을 적극 장려하고 일반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단편소설 《산촌의 미소》는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혁명적량만이 짙은 생동한 묘사를 통하여 펼쳐보이였다.

소설은 주혁이와 옥분이의 사랑의 동기를 의의있는 생활적계기와 밀착시키지 못한 까닭에 좀 들뜬 기분에 사로잡힌 허무한 감은 있으나 자기가 태어난 고향땅을 더욱 살기 좋은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려나가는데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가는 청년들의 약동하는 기백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옥분이의 성격적특성은 웃음과 랑만으로 충만한 생기발랄성이다. 그의 웃음과 랑만적꿈은 고향에 대한 사랑과 잇닿아있어 것처럼 아름답고 귀한것이다.

지난 시기 소설창작을 미루어볼 때 혁명적량만이 차넘치는 생기발랄한 청년들의 성격을 창조함에 있어서 생활과 밀착되지 못한탓으로 공허한 감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옥분의 형상은 교훈으로 된다.

단편소설 《산촌의 미소》에서 발현되고있는 새로운 싹의 하나는 옥분이가 새로운 감자종자를 육종하고 그것을 남모르게 가꾸어온 곡절 많은 생활을 밑에 깔고 그 성과만을 전면에 드러내놓고 혁명적량만에 불타는 정신세계를 활짝 개방시켜 밝은 양상의 형상적빛갈을 창조한것이다.

《미구에 돌고개너머에서 아침해가 불끈 솟아올랐다. 해살은 처음 등성이우에 체조대형으로 늘어선듯 키높이 자란 봇나무들의 성긴 가지와 잎사귀들 째새기를 헤치며 감자밭우에 억만오리의 금실을 늘이는듯했다.

그러더니 어느결에 그 자태를 걷어버리고는 뽕얀 연무와 같은 빗발을 뿜어내려 알을 품은 씨앗땀처럼 아늑하고 따스한 온기로 감자줄을 포근히 감쌌다. 이윽고 새벽이슬을 함초롬히 이고 머리를 쳐들었던 망울들이 일시에 오무리였던 꽃잎을 활짝 터뜨리며 은혜로운 태양을 향해 방긋 웃었다.

<꽃이 퍼요-!>

옥분이는 용수철에서 튕겨나듯 발이랑으로 뛰어들며 두팔로 감자포기를 마구 헤친다.

허리를 굽혀 꽃에다 불을 비벼보기도 하고 꽃술을 살짝 건드려놓고 방글 웃기도 하며 꽃을 찾아해매는 그 모양은 금시 피어난 또 한송이의 꽃이랄가.》

보는바와 같이 휘황찬란한 아침해빛을 받아안고 일제히 피어나는 감자꽃바다를 헤가르며 기뻐하는 옥분이의 모습은 마치나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다.

풍작을 약속하는 새로운 품종의 감자밭속으로 정신없이 뛰어들어 그토록 기뻐하는 옥분이의 생활근저에는 산골지방을 벌방에 못지않게 꾸려나가기 위하여 바쳐온 그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기때문이라는것을 능히 짐작할수 있다.

생활을 인과성속에서 그리되 지난날의 생활상을 대담하게 함축비약하고 결과만을 뚜렷이 살리며 한 인간이 걸어온 생활의 아름다운 전모를 능히에감할수 있게 한것은 단편소설창작의 귀중한 기교인 동시에 생활을 독창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새로운 형상수법이다.

도식과 류사성을 극복하고 작품마다 자기의 고유한 얼굴이 있는 특색있는 단편소설들을 창작하는것은 작가모두의 임무이다.

단편소설 《고향》은 창작에서 새로운것을 시사해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먼저 작가가 지금까지 발로되고있던 도식화된 낡은 틀을 버리고 새로운 형상방법을 창조하기 위하여 대담하게 시도하였다는 점을 강

조해야 할것이다.

새것을 한번에 완성할수는 없는것만큼 거기에 는 일련의 부족점이 있을수 있다.

20대의 젊은 박사 정수의 형상에는 량만주의적 수법에 의하여 과장된탓으로 현실적인 느낌을 덜주는 부족점이 있지만 성격을 부각시킨 독특한 형상적기교가 있다. 그렇기때문에 소설을 읽고나면 정수의 성격이 마치 하나의 조각상처럼 선명하게 안겨온다.

작품에는 설명이 거의 없다. 정수의 성격발전 과정은 짧은 대화와 회화적묘사를 통하여 선명하게 주어졌다.

그렇기때문에 독자들이 정수의 모습을 작가의 설명을 통하여 그려보는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본다고 말해야 할것이다.

작품을 읽고나면 정수야말로 고향도 애인도 모르고 오직 과학일면에만 몰두하는 메마른 인간이 아니라 탐구욕과 열정이 누구보다높은 당의 참된 젊은 과학자이며 고향을 열렬히 사랑하고 련인을 끝까지 잊지 않는 뜨거운 심장을 지닌 인간이라는것을 인상깊게 느끼게 한다.

기발하게 착상하고 독창적으로 묘사하는 창작적기량은 작품의 성과를 확고히 담보한다.

작가들은 현실에 더 깊이 침투하여 창작적기량을 끊임없이 높여나감으로써 개성이 뚜렷하여 읽을수록 깊은 사색과 여운을 주는 가치있는 단편소설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바쳐야 할것이다.